— 1 —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85 1981년8월6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August 6.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AUG 31 1981

캐나다는 세계 1위의 파업 왕국

장기화하는 특성지녀 퀘벡노조가 가장 난폭

캐나다는 선진공업국중 파업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국제노동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70년대(70~79)에 캐나다 노동인구 1천명당 파업일수는 연평균 1,840일이었다. 이번 조사는 선진 19개국의 광산업, 제조업, 건설업, 교통, 체신등 산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은 캐나다에서 가장 분규가 자주 생기는 산업들이다. 70~74 년의 5년간은 이태리가 연평균 1,746일을 파업, 1,724일 파업으로 앓은 캐나다를 앞질러 선두를 달렸으나 후반기 5년간에 캐나다의 파업일수는 1,956일로 증가한 반면 이태리는 1,810일로 뒤져 캐나다가 영광(?)스럽게 파업에 관한한 세계1위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기록은 캐나다가 76년도에 세운 것으로 파업근로자들은 총 1,160일을 파업으로 쉬었다.

9,500명의 알고마 철강 노조원들은 3일 협상에 성공, 파업을 철회했다.

왜 캐나다의 노조원들은 CNE스타디엄의 야구 심판들보다 더 자주 "스트라익!"을 외치고 있나?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노동전문가들은 말한다.

캐나다의 파업은 국제수준으로 보면 빈도수와 파업노조원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파업이 끈질겨 장기화하는데 있다.

75년도에 우편파업이 42일간 계속됐고, 78년도에 인코니켈광산노조원들은36주간 파업했다.

온타리오노동성 관리 이안·윌튼씨는 "호주같은나라의 경우 캐나다보다 파업이 더 잦지만 3~4 일간의 단기간으로 끝낸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보통 15일 내지 20일까지 간다"고 말했다.

유럽의 산업계는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양보, 파업에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

온타리오의 노조원들 은 브리티쉬·콜럼비아주노조보다 협상적이어서 노사계약의 95%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

각종 산업에 총 1백만노조원을 가진 BC주의 노조는 캐나다에서 가장 투쟁적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가장 거칠은 노조원들은 퀘벡에 있다.

전국 근로자의 20%를가진 퀘벡주는 작년에 390만 근무일을 파업, 전국 총파업일수는 9백만일의 3분의 1을 훨씬 넘었다. 총 근로자의 30%를 가진 온타리오는 같은 기간 180만일을 파업을 빼앗겼다.

놀랍게도 파업이 많은것으로 느껴진 영국은 19나라중 중위권을 맴돌았고, 일본은 불과 215일(노동인구 천명당)을 파업, 최소기록국이었다. 미국은 1,211일을 파업으로 잃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12,800명의 철강노조원, 2,300 00명의 우편노조원, 113,500명의 BC주 임업및 제지공업노조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어 이들은 금년도에 세계적 신기록을 수립할 것같다.

진행중인 우편파업, 스텔코 철강회사 파업, BC주 펄프·임업근로자 파업이 끝나더라도 관제사들이 조만간 파업할 움직임이며, 이밖에 세인트·로렌스·시웨이 근로자 6백명, 던더·베이의 곡류운반자 1,500명, 운하관리자 1,200명, 선박의 간부급 2,500명등이 이달 안으로 새 노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한편 캐나다 노조총연합체인 캐네디안·레이보·콩그레스(CLC)는 "노조원들의 총파업일수는 이들의 병이나 사고로 직장을 결근하는 날의 6분의 1에 불과하고"고 밝혔다.

체전현장서 공연

이순주,토비·킴등 연예인

대한 체육회가 주최하는 8·15전국 체전에서 경기가 끝난 15일밤 9시30분부터 "교민위안의 밤"이 현장에서 무료로 열린다고 체육회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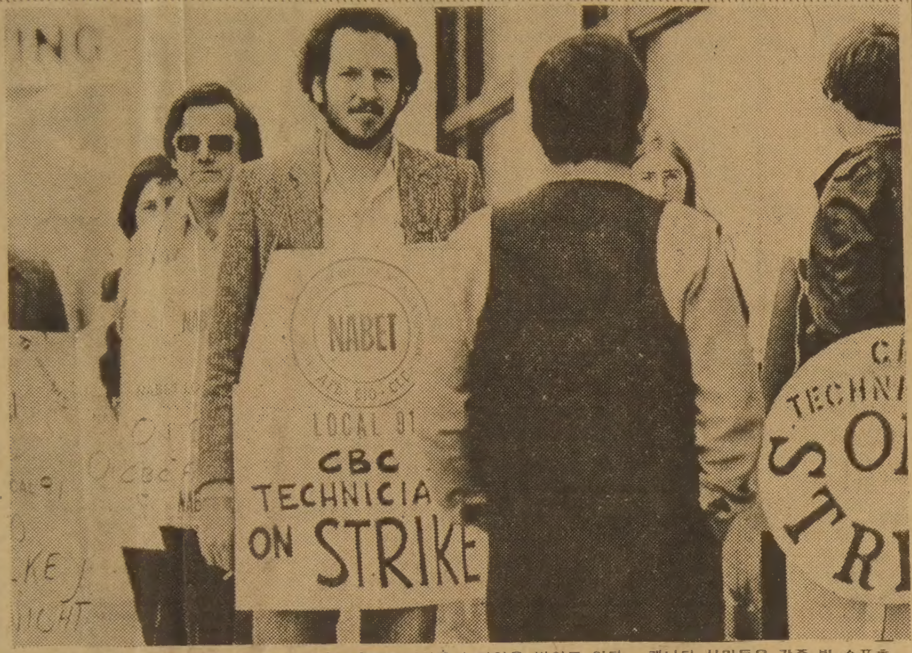
노래와 코메디로 엮어지는 이 쇼에는 연예인 이순주, 지미·킴, 토비·킴등이출연한다.

본국서 초청한가수 김정구씨등 모국 연예인들이펼치는 쇼는 체전후 열릴 예정이다. 시일과 장소는 미정.

체육회는 경기장(램포트·스타디움: 킹×더퍼린동쪽)의 광고판에 붙일 광고를 16개 접수했다고 6일말하고, 많은 광고주들이 이용해줄 것을 요망했다.

출전팀들의 등록도 접수중이다. 체육회 사무실은 635A Bloor St.에 있으며, 전화는 537-0745.

한국일보 무료배부
—우편파업기간중—



◇캐나다 유일의 전국방송망을 가진 CBC테크니션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 시민들은 각종 빅·스포츠 게임등을 볼수없어 점점더 미국방송에 채널을 맞추고 있다.

신예 문안나개인전

권위있는 프린스·아더화랑서

서양화 전공 문안나씨 개인전이 7월29~8월20일 프린스·아서화랑(33 Prince·Arthur Ave. 요크빌)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시간 상오10시 30분~하오5시30분(월~토).

일류 미술관인 이 화랑은 캐나다 일류화가의 작품만 전시하며, 여름휴가철 유망주 신진화가 작품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문양의 전시작품은 드로잉(데생), 페인팅(유화), 수채화 30여점이다.

문양은 ... 온타리오미대(O.C.A.) ...수미술과를 졸업, 재학중인 78~79년에는 이탈리아 프로렌스에 미술유학한 바 있는 실력가로 전해졌다.

◇전시된 자작품 앞에선 문안나씨

벼락에 2명 숨져

4일하오 토론토시내를강타한 폭풍우는 2명이 벼락에 맞아 죽고, 수천가옥이 침수되는 2인치 가량이 강우였다.

시내 북쪽지역은 폭풍우와 같이 우박이 쏟아져 전물을 뒤흔들고, 나무들의 뿌리를 뽑아버렸다.

마캄지역에서 2층집 수리를 하던 목수 호프톤(32)씨와 매코이군은 때마침 이 집을 강타한 벼락에 맞아 즉사했다.

스카브로 북쪽지역을 가장 심한 피해를 입어, 변전소를 때린 벼락 때문에 4만여 가정이 깜깜한 어둠을 견뎌야 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으나 이날 한 썹마린 가게를 강타한 벼락은 홀 안에 있는 손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고도 있었다.

이 벼락은 가게 건물에 인접한 나무를 통해 빌딩속으로 들어와 캐쉬리지스터를 강타했다. 마침 캐쉬대 앞에서 잔돈을 기다 리던 톡마크씨는 벼락에 튀어올랐다가 떨어졌으나 아무 이상도 없었다.

"의사는 정말 행운이래요"고 톡마크씨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폭풍우 속에 씨알한국인학교 버스로 어린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던 한 대학생은 "차의 윈드실드가 비바람에 뿌려져서 차를 10분 정도 멈추었이고, 아이들도 무서워하는 것같아서 계속 노래를 시켰 어요"하고 강우에 머리를 저었다.

미국이민법 개정 단계

캐나다에 2만명 쿼터 배정

(워싱턴) 로날드·리건 미국대통령은 30일 캐나다 시민의 미국이민쿼터를 2만에서 4만명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한 새 이민법안을 발표했다.

의회에 제출된 이 안은 수백만명 불법체류 자에게 제한된 사면령을 내린다.

65년 이후 최초로 크게 개정될 새 이민법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의 연간 이민쿼터는 2배로 늘었으나 캐나다의 쿼터는 남아돌아, 남는 부분이 멕시코에 돌아간다.

캐나다인의 미국이민자는 76년에 7,600명, 77년에 12,680명, 78년에 16,863명이었다.

한편 미국인의 캐나다이민은 최근 4년간 연평균 1만명씩이었다.

새 이민법안은 30일 상·하양원 이민위원회에 제출됐다.

미국내에 있는 3~6백만명의 불법체류자중 절반은 멕시코인이다. 이들중 15%는 농업분야에서, 50%는 서비스업계에서, 30%는 공장등에서 일한다.

새 법안은 80년1월1일현재 미국에 거주했던 불법이민자에게는 제한된 법적지위를 부여하며 이들은 10년후 영어실력이 괜찮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미국은 이민신청자의 출생지를 문제삼기 때문에 한인계 캐나다 교포가 미국이민을 신청하려면 캐나다에 배당된 쿼터와는 무관하고 한국에 배정된 쿼터 이내에서만 취급된다.

미국인 1천명 고용

금성TV 조립공장, 82년 여름부터

알라바마주 헌츠빌에 칼러TV 조립공장을 건설할 금성사의 허신구사장은 82년 여름부터 가동을 시작할 이 공장은 1천명의 미국인을 고용, 1년에 40만대의 칼러TV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사장은 헌츠빌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최초에 약 50명의 한국인이 미국현지 고용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한국에서 올것이나 결국에 가서는 약 1천명의 미국인을 채용하게 되며 제품은 미국국내 수요 뿐만 아니라 남북미지역에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츠빌공장은 칼러TV 뿐아니라 냉장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음향기기등도 생산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 P 9184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각종보험

백 용 빈
SUNLIF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B)497-3800
(R)284-9052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요금 : 성인왕복 $1180+(세금) $12.50
어린이 왕복
(2~12세) $645+(세금)$6.25
출발일자 : 8월7, 14, 21, 28일
대한항공 뉴욕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유 지 원
621 BLOOR ST. W.
(B)535-2377
(R)366-0864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 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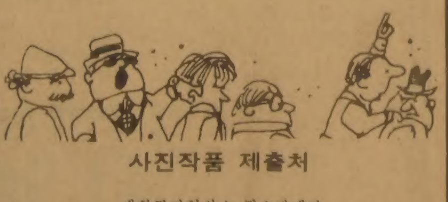
마감 연기

—사진촬영대회—

지난6월 나이아가라에서 열렸던 제6회 사진촬영대회 출품마감을 다시 8월15일까지로 연기합니다.

이것은 당일 대회에 참석했으나 여름휴가등으로아직 작품을 만들지못한 많은 사진애호가들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사진협회와 한국일보사는 마감기일을 또다시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출품 희망자는 마감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작품 제출처

새한칼라현상소, 킴스카메라, 한국일보사.

—한인사진협회·
한국일보사 드림—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실협뉴스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

실업인협회
20MOBILE DR
TOR M4A 1H9
☎ : 752－7771

회 장 : 이 형 인
부 회 장 : 임 철 원
〃 : 김 명 청
이 사 장 : 김 태 진
부이사장 : 전 윤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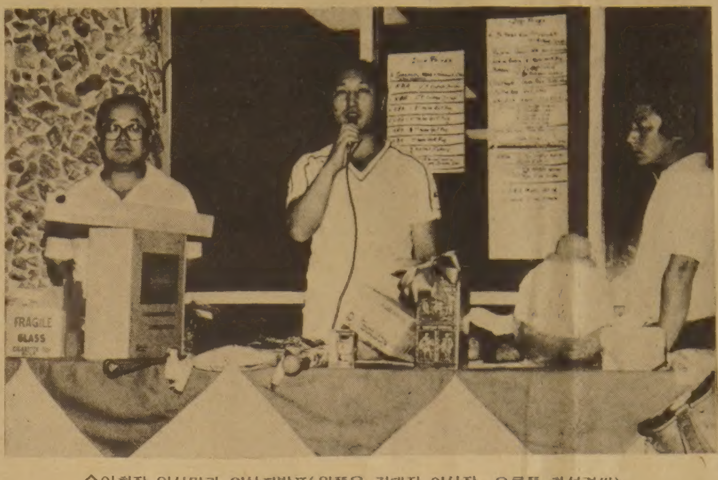
골프대회 최대의 성황

—152명의 애호가들 대거참가—

본협회 주최 제1회 친선 골프대회가 8월3일(월) 시빅·할리데이에 브람톤에 있는 캣슬모어 골프장에서 교민사상 드문 152명의 골퍼 참가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아침 궂은 비가 내려 대회진행에 영향을 줄까 염려했으나 제1조의 티업이 11시 시작되면서 날씨가 개어 끝까지 쾌청했다.

매조 4명씩 한팀이 된경기자들은 매홀에서 불뿜는 경쟁을 벌이면서 전코스를 돌 때 무서움을 잊은 것같았다. 예상외의 참가자 들로 스타트가 늦어져 불평하는 이도 있었으나 대회는 원만하게 잘 진행되었다.



◇이회장 인사말과 입상자발표(왼쪽은 김태진 이사장, 오른쪽 차선겸씨)

푸짐한 디너파티

저녁8시가 넘어서야 경기를 마치고, 잠시 휴식후 9시부터 시작된 디너파티(버펫)에서는 왕성한 식욕을 과시하여 준비된 음식이 동이 날 지경이었다.

겸해서 진행된 도어프라이즈 추첨 순서에서는 참가자중 즉석사회자 서동원씨의익살이 더욱 우스워서 흥을 돋우었으며, 상품들은 협회와 도매상, 제품회사들의 제공으로 다양한 물건들이 전해졌다.

늦어진 시상식

참가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적발표가 자연히 늦어졌다.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가리기에 애를 먹었으며 전 골프협회장 이기훈씨가 수고했으며, 현 골프협회장 정정홍씨는 심사기준을 설명했다.

밤10시30분부터 시작된 입상자 발표 즉시 트로피가 수여되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 참피온에는 먼저 회원부에서 82점을 따낸 유기훈씨가 되었으며, 게스트부에서는 최연소 참가자 오재원군이 78점으로 영광의 참피온이 되었다. 참피온들에게는 실버운 밀크회사가 제공하는 대형트로피가 회사대표와 이형인회장, 그리고 김태진 이사장에 의해 수여되었다.

주목되던 니어리스트

이날의 최대관심사였던 니어리스트상에는 게스트 에서 김태신씨가 97.5인치를 끝까지 지켜 결국 협회제공의 라스베가스 티켓을 땄으며, 회원부에서는 제3조의 노장 노도윤씨가 97.5인치를 잘 지켜가다가 마지막 30조의 차선겸씨에게 극적으로 깨졌는데, 그것은 거의 홀에 가까운 34인치였다.

차선겸씨는 협회의 총무이사요, 본대회 주관자로서 시상식에서 선배회원인 노도윤씨에게 협회 제공의 라스베가스 티켓을 양보하여 만장의 갈채를 받았으며, 이 광경은 매우 흐뭇한 분위기를 조성케 했다.

이같이 성대한 행사를 최초로 시도한 협회 준비위원들을 대표하여 이형인 회장은 인사말에 "오늘 이처럼 성대한 골프대회를 치르도록 후원해주고 협조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물품을 기증해 주신 도매상, 제품회사 대표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이번의 경험을 거울로 삼아 다음에는 더욱 알찬 대회를 약속하면서, 이 큰 행사를 주관한 협회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기쁨을 표했다.

행운의 1등 도어프라이스

마지막으로 남겨 놓았던 경품의 1등은 교민 김흥량씨가 차지 했는데, 그 상품은 최신형 마이크로오븐으로 인터씨티 잡지회사가 제공한 것으로 사장 Hugh Curry씨가 직접 전달하여 참가자들의 부러움을 샀다.

이날 행사는 밤11시경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폐막되었다.

골프대회 성과

제1회 골프토너먼트를통하여 얻어진 몇가지 사실을 밝힐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전교민골퍼들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이는 협회의 비중이 그 만큼 전교포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 될 것이다.

152명의 참가자중 회원이 53명 이었다는 사실은 코너스토어를 경영하는 회원들이 장시간 근무와 바쁘고 고달픈 일과중에서도짬을 내어 여가를 선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만큼 여유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음으로는 이같은 대외행사에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힘을 합할 수 있다는 단합된 친교의 정신이 발휘되었다는 것이다. 회원뿐 아니라, 사회의 각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스포츠를 통해 얻어진 친목이 바탕이 되어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데에 협회는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많은 회원들이 골프를 즐기면서 자신의 사업에 성공 있기를 대회를 주관한 관계자들은 기원하고 있다.

◇시상자 명단

〈회원부〉

Gross	1등	유 기 훈
	2등	원 장 호
	3등	이 병 문
	4등	김 용 기
	5등	최 상 수
Net A조(89이하)	1등	이 상 철
	2등	박 경 태
	3등	배 경 락
Net B조(99이하)	1등	윤 재 룡
	2등	김 정 곤
	3등	최 영 식
Net C조(100이상)	1등	임 철 원
	2등	조 기 연
	3등	양 해 룡
Honest		전 기 석
Longest		김 은 하
Nearest		차선겸(34˝)

〈게스트부〉

Gross	1등	오 재 원
	2등	김 경 철
	3등	강 태 영
	4등	김 현 철
	5등	정 진 수
Net A조(99이하)	1등	김 진 기
	2등	이 창 회
	3등	유 영 갑
Net B조(100이상)	1등	박 광 칠
	2등	최 광 훈
	3등	박 재 형
Honest		Martin Caird
Longest		이 무 교
Nearest		김 태 신

소년축구팀에 유니폼 기증

미도파선물센터

토론토 블루어의 미도파 선물센터 경영자 장추신씨는 지난 주 소속교회인 한인천주교회 한맘어린이축구팀에 유니폼 16벌을 기증했다.

이에 용기를 얻어서인지 동팀은 지난주센테니얼·팍에서 열린 소년축구대회예선에서 우승후보로 예상되던 연합교회팀을 3대1로, 다시 장로교회팀을 3대0으로 누르는 강세를 보였다.

▬ 제 언

여 름 휴 가

조 남 유

끈적한 습도가 더욱 더울게하고, 한차례 쏟아져 내린 소나기가 시원하기보다 더욱 짜증나게하는 여름날, 스토어 카운터에서 여름을 보내는 회원들에게 무엇을 제언해 본다는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어쩌면 정신빠진넋두리로 들리게 되는게 아닐까. 하지만 이야기 해본다.

대개의 경우 여름휴가를 위하여 가게문을 닫는다는 생각을 해본분들이 없을 것이다. 우리 처지에 그런 화사한 계획이 있을수 있느냐는 것이다. . 그러나 권해본다. 한번 시도해 보라고…

문을닫고 여름휴가를 가면 큰 손해를 본다고 믿는강박관념, 고객들을 외면하고 자기이익만 찾는 게 아닌가하는 겸양의 생각, 헬퍼에게 가게 키이를 맡기고 현금관리를 맡긴다는것은 도저히 상상할수도 없는일이고, 아예 도둑이나 화재를 당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태인들이나 유럽계통의 사람들은 대담하게 2주간씩 문을닫아 걸고 휴가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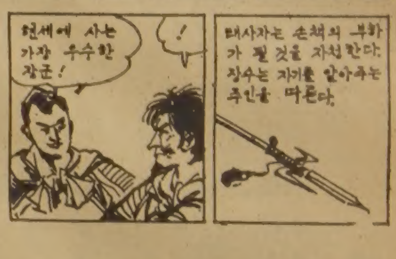
그들이 돈을더 많이 벌었기 때문일까? 더 여유가 있어서 일까? 아니 결코 그래서가 아닐 것이다. 코너스토어가 문을닫고 휴가를 갖는다는데에 아무도 탓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열심히 벌고 일하는것에 누가 시비를 거는사람도 없을 것이다. 휴가를 갖는다는것은 결국 자기 문제다. 내 문제를 누가 대신할수 없다. 그러기에 무더운 여름날 휴가를 즐긴다는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모두들 그 값어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억지로 참고, 또 참아가면서 짜증스러운 여름날을 스토어 안에서 피서한다고 자위한다.

마음 굳게먹고 한번 시도해 보자. 완전히 심신의 피로를 풀어버리고, 억압된 여러감정들을 승화시켜 새로운 각오와 참신한 기분으로 새로 스토어를 오픈한다는 자세로 문을열어보라. 휴가의 진가를 거기서 발견하리라. 눈앞숭 닥치는 매상액에 얼굴을 펴고 찡그리는그런 생활의 강박관념 속에서 모든걸 잊고 훌쩍 떠나 보라. 아마도 그 이상의 보람을 찾을수 있을 것이다.

아침마다 걸려오는 회원들의 전화요청 속에 누군가 어느날자부터 휴가를 갖겠으니 연락은 그후에 해달라는 요청이 온다면 무더운 여름을 지키는 협회 사무실에 시원함이 깃들것 같다.

부디 여름이 가기전에 용기를 발휘해서 여름휴가를 갖고, 새로운 출발을하는 회원들이 있어지기를 제언하고 싶다.



번역 ·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 : 759－9505(5시이후)

회원 문예작품 공모

본 협회에서는 1981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회원여러분의 문예작품을 모집하여 우수작을 시상코자 하오니 많이 응모해 주심을 바랍니다.

— 아 래 —

응모마감 : 우편파업 끝날때까지
작 품 : 수기, 시, 수필, 콩트등 원고제한 없음.
심사위원 : 추후 발표함
시 상 : 1등 상패및 부상($500현금)
2 〃 〃 ($200현금)
3 〃 〃 ($100현금)
원고제출처 : O. K. B. A.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원고 반환없음)

온타리오 한인실업인 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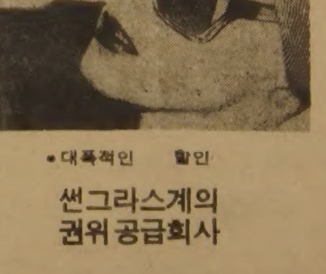
협회고문 변호사

온타리오주 상법 권위자

CATZMAN & WAHL

BARRISTER & SOLICITORS
133 RICHMOND ST. W.
(University와 Osgoode)
자세한 문의 : 362－1623
MISS 박이나
MR. LEVINE을 찾으세요.

각종 썬 그라스



•대폭적인 할인
썬그라스계의
권위공급회사

CAMELOT IMPORTS LTD.
250 Wildcat Rd., Downsview, Ont.
전화 663－2972 Mr. Sm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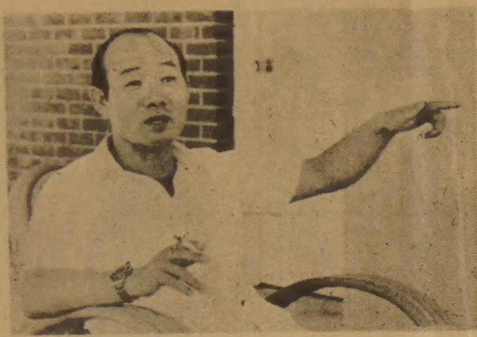
改閣않고 責任질 長官만 交替

政治규제 때오면 選別해제
敎育稅필요…庶民부담 적게

全대통령 鎭海휴양지서 會見

내년엔 經濟안정成長 확신
韓·日頂上會談 서울서희망

【鎭海=尹國炳기자】 全斗煥 대통령은 2일 『정치활동 被規制者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풀지않고 自肅하는 사람에대해서 심사를통해 적절한 시기에 한사람씩 개인별로 정치활동을 허용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아직은 그문제를 고려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鎭海휴양지에서 기자들과 國政전반에관해 會見하는자리에서 이같이 말한뒤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체모를 갖추어 뿌리를 내리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지도체제를 확립했을때 정치활동 被규제자를 푸는것이 정당의 混線을 막고 정치안정에도 도움을 줄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아직은 정당들이 뿌리를 내리고 단합을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被규제자들은 과거정치에 대한 직접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스스로느껴 반성하고 自重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全斗煥 대통령이 2일 鎭海휴양지에서 기자회견을갖고 國政전반에관해 소신을 밝히고있다.

全대통령은 改閣에대해 『장관들이 入閣한지 1년도안돼서 改閣을하면 정책의 一貫性이 없어진다』면서 그가능성을 부인하고 『관계장관들이 국민한테 책임을 질 일이있으면 그때 그때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치문제에 관해 全대통령은 『국회는 진정으로 民意를 수렴하고 국민화합의 기반을 창조해야하며 국회가 이같은 본연의 임무와 기능에 충실하면 국회의 전천한 토론을 경청하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날 韓日頂上회담에언급, 『언제든지 회담을 할수있는 준비가 되어있으며 이번 頂上회담은 서울에서 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敎育稅에대해 『교육세는 교육의 內實化를 위해 필요한것』이라고 말하고 『課稅기준등은 각계의 의견을 들어 公平의원칙에 따르되 서민층에는 과중한 부담이 가지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어 오는 8·15光復節에는 改悛의情이 있는 在所者들을 刑執行停止, 赦免등으로 석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자의 선정은 관계부처에서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2시간30분간의 會見중 특히 경제문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하면서 全대통령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20%선에서 억제할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6~7%線으로 보아 올해 GNP는 6백10억달러, 1인당 GNP는 1천5백76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全대통령은 『일부에서는 景氣회복을위해 통화증가나 金利引下, 換率인하등을 주장하고있으나 이같은 일시적이고 졸속한 정책으로 경기浮揚을 꾀할생각은 없다』고 말하고 『상반기의 국제수지개선, 하반기의 전자및 造船부문의 부자층대등으로 금년도 경제시책의 당면목표가 확실히 추진되고있어 이러한 餘勢를 몰고나가면 내년에는 안정적 성장을 다지는해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경제시책의 당면목표는 ▲物價안정 최우선 ▲국제수지의 개선 ▲기업의 體質개선 ▲품질관리와 生産性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강화 ▲경기의 內實을기한 上昇과 이에 따른 稼動率및 시설투자의 확실한 증가라고 제시하고 올해의 경제회복과 내년의 안정성장 기초가 확립되면 83년부터는 失業率을減少하면서 고용을 증대, 제2의 도약단계에 돌입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고 不正부패를막기위해 司正기관등 정부관계기관에서 적절한 제도를 연구검토하고 있다고밝히고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잘못이 있는 관리의 직속상관에 대해 지휘감독 불충분의 連帶책임을 물어야할것 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밖에 南北관계에대해 『우리의 평화통일정략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가 있는 만큼 이餘勢로 밀고나가면 80년대중에 北에서대화에 응할것』이라고 전망하고 『北에서 대화에 응해오면 우리사회를 완전히 개방해놓겠다』고 다짐했다.

全대통령 어제歸京

全斗煥 대통령은 지난달28일부터 慶南 鎭海휴양지에서 가족과함께 휴가를 보낸뒤 3일 하오 歸京했다.

財産稅 50%부가 修正될듯

李財務 敎育稅案 國會·輿論반영

民正黨 간부회의서 밝혀

政府와 民正黨은 당면한 현안으로 올 빛고있는 정부의 敎育稅案중 財産稅의 50%부과는 公平課稅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일반庶民과 中産層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데 의견을 같이함으로써 敎育稅案은 대폭 修正될것같다. 이에관한 최종방향은 來週열리는 黨政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정될것으로 보인다.

民正黨은 3일 李承潤재무장관도 참석시킨 가운데 열린 간부회의에서 『6大都市에일률적인 재산세의 50% 교육세부과는 庶民부담이 큼뿐더러 租稅衡平의 원칙에 어긋난다』는점등을 들어 再考을촉구했다.

이에대해 李장관은 3일 『국회에서 공청회나 공개간담회등을 통해 교육세 신설문제에 관한 전체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좋은 방향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하고 『재산세의 50%를 부과하는것이 문제인것같으며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면 정부는 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日, 對韓借款 60억弗불능, 프로젝트 먼저具體化돼야

【東京3日=聯】 일본정부는 향후5년간에 걸친 60억달러의 대한차관제공이 재정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는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 최근 한국측에 전달한것으로 2일전해졌다.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일 정부소식통을인용, 『정부정부의 재정사정과 대외경제협력의 기본방침때문에 한국측이 요청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진액수의 차관제공은 도저히불가능하며 따라서 서로 얘기가될수있는선까지 금액을낮추어주도록 한국정부에 이해와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낫케이 신문은 일본정부가 『방위에 힘을 쏟고있는 한국의 실정을 이해하여 가능한한의 경제협력을해야한다』는입장아래 최근 수년간 감소추세에 있던 엔 차관의 어느정도 증액에는 응할 생각이며 제2포항제철건설계획등이 확정되면 수출입은행 융자도 적극적인 자세에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본측은 대외경제협력의 기본방침이 개발도상국의 민생안정지원이기 때문에 한국과같은 중진국에 정부개발원조를 집중배정할수없으며 수출입은행융자도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기전에 융자액부터 협의할수는 없다는입장을 강조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民韓·국민 後援會반대

3黨총장會談 具體합의못해
政治資金調達 7일再論

民正 民韓 국민등 3黨 사무총장은 3일하오 서울 엔지니어링클럽에서 모임을 갖고 정치자금조달을위한 후원회구성과 자금배분등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합의를 보지 못하고 7일께 다시회담을열어 再論키로했다.

民正黨의 權正達사무총장은 이자리에서 8월말까지 3택명으로 우선 독자적인 후원회를 결성하겠다는 民正黨의계획을 밝히면서 他黨에대해서도 독자적인 후원회결성을 촉구했으나 民韓黨의 辛相佑, 국민당의 申鉉均사무총장은 『기업인이 野黨후원을 기피하는풍토때문에 어렵다』고 難色을 표명했다.

民韓 국민당측은 독자적인 후원회대신 各黨 공동후원회를결성하여 이를통한 募金으로 국회議席數에따라 배분할 것을 제의했으나 民正黨측은 그것은 法개정이 따라야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당측은 또 寄託金제도의 活用을 제의했으나 民正黨은 기탁금은 한두번밖에 활용할수없다면서 異議를 제기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 2361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脫都市의 滿員대열

◇일요일인 2일 시민들은 이른아침부터 필사적으로 더위를 피해 도시를떠났다. 春川行직행버스가 착발하는 서울 동마장터미널에는 몰려든 피서객들로 1~2시간이 상기다려야 버스에 오를수 있었다. 승객이 몰리자 회사측은 배차간격을 줄여 5분마다 1대씩 차를떠나보냈으나 막무가내로 밀려드는 승객을 수송하기에는 힘이부쳤다. 피서객들이 돌아오는 하오3시이후부터는 春川터미널에서 이와 똑같은 장사진이 벌어졌다. 【서울동마장터미널=李東虎기자찍음】

美MX미사일 輸送機에적재

地下배치 포기

【워싱턴1日AP聯合=聯】 레이건미 대통령은 MX이동식대륙간미사일을 터널로 연결된 지하사일로에 배치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수송기에 적재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지가 1일 보도했다.

일차적으로 미국전역의 공군기지에 비상대기하는 C5수송기를 개조, 이들 수송기에 1백기의 MX미사일을 적재하게될 것이라고 이신문은 밝혔다.

포스트지는 이날 백악관소식통을 인용, 그와같이 보도하면서 레이건정부가 그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실전배치된 사정9천6백km의 잠수함발사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개량하는데 역점을 두어 그 개량형을 오는 80년대말 실제배치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어 그동안 개발문제를 놓고 말썽을 빚어오던 B1폭격기의 개발결정문제는 이달 중순께나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社會漫評

"都市人口를 이정도로…"

地平線

『열한가지의 비밀약초와 양념으로 맛을낸 닭튀김』을 들고나와 억만장자가된 사람이 할런드·샌더즈라는 영감님이다. 세계48개국에 6천개의 가게를 갖고있는 소위 『켄터키·프라이드·치킨』의 창업자이다. 작년 12월 아흔살로 세상을 떠난 그는 흰 양복에 까만 나비넥타이를 매고 다니는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의 하나였다. ▼햄버거나 핫도그와 함께 外食산업의 스타다. ▼유명한 버거·킹이나 맥도널드는 햄버거나 핫도그로 한몫보는 외식산업재벌이다. 켄터키·프라이드·치킨과 함께 이들은 미국뿐만아니라 유럽과 세계를 지배하는외식산업재벌들이다. 햄버거나 소시지처럼 가공된 고기에다 야채, 그리고 빵을 주된 원료로해서 세계어디서나 똑같은 규격품을 만들어 파는게 이들의 장사 비법이다. 일종의 기성품 음식이다. ▼칼칼한 음식을 즐기는 한국사람이 세계를 한바퀴 돌자면 음식고생이 여간이아닙니다. 그러나 어디서나 안심하고 주문할수 있는게 미국식 음식—즉 아메리칸·푸드다. 다시 말해서 햄버거나 핫도그, 또는 켄터키·프라이드·치킨은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세계공통의 음식이다. 세계 어디서나 안심하고 콜라를 마실수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햄버거나 핫도그, 또는 켄터키·프라이드·치킨은 말하자면 달러라는 돈처럼 미국이 만들어낸 만국공통의 생활양식이 되고있다. 그대신 개성과 변화를 희생시키는 현대산업사회의 상품들이다. 구수한 쌀밥과 새콤한 김치, 그리고 매콤한 찌개맛은 한국인에게 햄버거와 견주어 바꿀수 없는 것들이다. 거기에는 한국사람의 개성과 창조정신의 오랜 전통이 스며있는 것이다. ▼콜라와 사이다를 알기전에 한국사람들은 참외와 수박으로 여름을 나게돼있었다. 무더위가 기록적으로 이어지고있는 올해엔 참외와 수박도 기록적으로 먹어치우고 있다. 지난6월초부터 7월21일까지 50여일간 서울에서는 시민 한사람앞에 평균15개의 참외를 먹어치웠다. 수박도 시민한사람앞에 1개와 5분의 1을 먹었다는게 농협의 계산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여름이라면 「보신탕」의 계절이다. 보사부는 지난7월 보신탕을 파는것이 「의료법및 약사법위반」이며 [illegible]

서울한의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로 표창장 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왕진함)

주소 : 10 Blackfriar Ave. #216 Weston, Ont. (Kipling·Dix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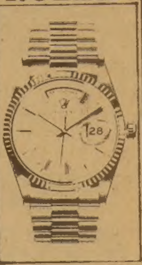
한의사 김장석

☎ : 247-9347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394
은 : 온스당 US 8.5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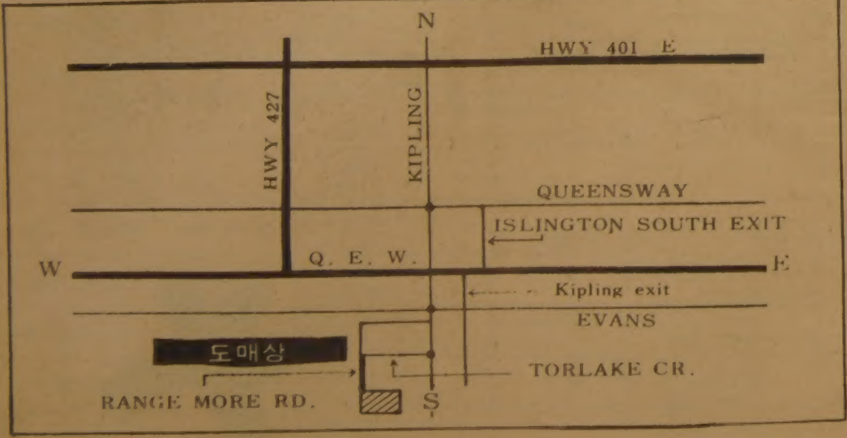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한인연합상사

한국인이 키워주는 한인도매상



★주문전화 : 251-6578 MISS 정

27 RANGEMORE RD. TORONTO, ONT.

영업시간 : 월~토 8시~6시30분

※토요일 오후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8월휴가 모국방문 특별요금안내

출발일자 : 8월 7, 14, 21, 28일

(뉴욕경유, KAL편)

요금 : 성인왕복 $1180
어린이 왕복 (2~12세) $645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TORONTO
(B)531-4607 (R)487-8088
성낙윤

頂上회담 議題조정 성공

南北外相회담 최대성과

무역活性化·金融협력

農業개발등 貧國주장 대거채택

◇南北회담보고서 검토하는 헤이그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이 1일 멕시코의 칸쿤에서 열린 南北외상회담 개막식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있다。【칸쿤(멕시코) 2日UPI電送=聯合】

【칸쿤(멕시코)2日UPI·聯合】오는10월 南北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칸쿤에서 회담을가진 南北22개국외상들은 2일▲농업개발▲천연자원가격보장▲국제무역활성화▲세계금융및 에너지문제에 대한 상호협력등 주로 貧國들의 주장이 대거 채택된 안전들에 합의함으로써 1975년의 남북대화가 개시된이래 최대의성과를 거두고 이틀간의회의를 폐막했다.

헤이그미국무장관등 22개국외상들은 비교적 순조로운 의사진행을통해 개막 첫날인 1일 주요의제에 합의하고 2일에는 공동성명초안 손질을위해 1시간동안만 회의를 재개했다.

참가국외상들은 이날 칸쿤에서 속개된 회의에서 멕시코의 호세·로페스·포르티요 대통령과 오스트리아의 브루노·크라이스키 수상을 오는10월22일과 23일 열리는 칸쿤 남북경제정상회담의 공동의장으로 추대하는 동시에 쿠르트·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을 「특별귀빈」으로 초청하기로 결정, 이내용을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외상들은 이 공동성명을통해 남북경제정상회담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분위기속에서 국제개발문제의 주요문제들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돼야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波勞組、政府와 協商키로

식량난·식품價引上등 항의 罷業

【바르샤바3日聯合】식량난과 식품가격 인상계획에 항의하기위해 파업과 시위를 벌이려던 폴란드 自由勞組는 노조의 파업·시위가 폴란드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黨정부·軍의경고가 있은직후 방침을 바꿔 일단 정부와 협상을 갖기로했다.

폴란드자유노조는 파업과 시위가 국가의 위기를 더욱 부채질할뿐이며 식량난과 식품가격안정에도 악영향을 끼칠것이라는 정부당국과 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각 지역에서 파업및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2일 정부당국의 회담요청을 수락, 3일아침 협상을 갖기로 방침을 정했다.

폴란드정부당국은 이와함께 심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해 투기와 암거래조직망을 일망타진하기로 결정하고 특히 경찰및 공무원들의 시장조사에 軍을 투입, 지원함으로써 식품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자유노조는 3일 바르샤바에서 버스·택시·쓰레기차를 동원, 차량시위를 벌일 예정이었고 블로츠와베크市에서는 부녀자들의 단식시위가 계획되고있다.

자유노조측은 3일의 對政府협상에서 勞組의 자율권문제가 주요토론 과제일것이라면서 노조에 자율권이 주어지는 경우에 한해 정부의 식품가격인상계획에 무리없이 협조할것이라고 밝혔다.

「레이건氷山」넘을 수 있을까

제네바 유엔海洋法회의 8년째 교착상태 예상

◇명태조업중인 韓國원양선 올들어 두번째로 제네바에서 3일부터 속개된 제10차유엔해양법회의는해양법초안에대한 미측의이의제기때문에 8년째 난항을면치못할것으로 예상된다。사진은 북양에서 명태조업중인 한국원양어선들。

유엔해양법회의가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제네바에서 3일에 개막, 28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마라톤회의에 들어갔다. 이번회의도 지금까지 미국의 해양법초안에 대한 반대때문에 개막과 동시에 8년째 교착상태에 빠질것으로 예측되고있다.

유엔해양법회의는 작년 8월 제9차회의때 이미 전문 3백20조 부칙8조로된 해양법초안을 거의 타결, 지난 3월 뉴욕에서 개막된 제10차 회의에서 새국제해양법조약이 성안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海床광물개발을 위한 자국의 이익과 관련, 돌연 재협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다시 벽에 부딪쳤었다.

지난 73년 출범이래 1백53개국가들이 유엔해양법회의는 특히 深海자원을 둘러싸고 南쪽의 개발도상국과 北쪽 선진국간의 대립이 격화하여 계속 답보상태에 빠졌었다. 그러다가 제9차회의에서 새해양법안 마련에 성공했다. 그해 8월 나미비아 海床자원개발에 있어서 새해양법초안이 개발도상국에 유리하게 되어있다고 반대하고 나서 레이건행정부가 開途國이익을 배치되는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초안은 서방회사들이 海床개발의 발기술을 설립에 공동으로 규정하는 해양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초안은 유엔海床개발국을 설립, 개발허가를 내주고 그댓가로 해상에 일정지역을 개발해주도록 규정하고있다.

미국대표들은 이번회의에서 4~5주간 계속될 이번회의가 별 진전을 보지못할것이며 조약성안은 미국의 입장이 수정되는 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택되기 있다. 그런데 제9차 해양법회의에서 개발도상국들은 바다에 있는 새해양법 모든 국제적인 해양자원 문제에 합의한 것이다.

작년의 草案타결…美서 再協商요구

先進·開途國 利害엇갈려 對立격화

경제수역、美·蘇·加·日·濠·印尼·뉴질랜드 45%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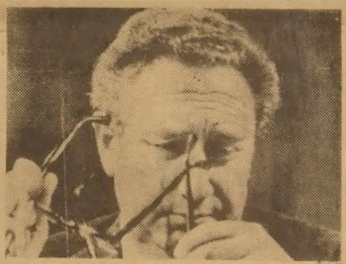
리영해및 2백해리 경제수역 선진국 해저자원개발 엔 개도국이 각각 양보 등에서 이익을 추구할 인 타결을 보았다.

한편 후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의 개발보다는 미·소·불·일등이 선진국에 이익이 되는 것은 절대불리하다.

【金善敎기자】

"日은 주변海域만이라도 지켜야"

키신저、日요미우리新聞 인터뷰



◇안경을 잡아끼고있는 키신저박사。최근 일본을 방문한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태평양지역이 금세기중세계사의 중심무대가 될것이라고 발언하면서 특별히 한국의 발전상을지적했다。

【東京3日=宋孝彬특파원】방일중인 키신저 미전국무장관은 요미우리(讀賣)신문의 와따나베(渡邊)논설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미국만의 힘으로 전세계를 지킬수 없다는것을 인식하고 적어도 일본주변의 해역만이라도 지킬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키신저박사는 앞으로의 세계사의 중심은 유럽에서 태평양지역으로 옮겨질것이라고 단언, 한국이 지금 훌륭한 공업국가로 성장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요미우리신문이 8회에 걸쳐 연재한 키신저박사의 회견내용이다.

美혼자선 世界방어못해

防衛費증강 具體化해야

西方 어떤나라든 蘇의攻擊 방임禁物

갬비아 쿠데타 失敗

자와라、統治權 再장악

12人革評저항 人質殺害위협

【다카르(세네갈)2日UPI=聯合】쿠클리·삼바산양이 이끄는 갬비아 쿠데타군이 산발적인 저항을 계속하고있는 가운데 다우다·자와라 갬비아 대통령은 2일 수도 반줄에 귀환, 정권을 재장악했다고 세네갈 방송이 보도했다.

세네갈방송은 세네갈의 육·해군및 공정대가 2일 갬비아의 전략거점들을 완전장악했으며 쿠데타군이 소규모저항을 계속하고 있으나 곧 진압될것이라고 말하고 자와라 갬비아 대통령이 수도반줄로 귀환, 국가의 통치권을 다시 장악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세네갈 탱크부대와 헬리콥터들이 1일 반줄에 집결, 자와라 대통령에 충성하는 갬비아군과 합류했다고 말하면서 세네갈군은 1일밤 반줄교외의 바카우 방송국을 탈환했다고 밝혔다.

다카르의 한 외교관은 『반란군들의 산발적인 저항이 계속되고있으나 수도 반줄은 거의 평정을 회복했으며 시민들이 다시 거리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도허티、斷食73일만에 死亡

IRA소속 斷食사망자 8명으로

【벨파스트2日聯合】북아일랜드의 메이즈 형무소에서 옥중단식투쟁을 벌여온 IRA(아일랜드공화군)소속의 키란·도허티(25)가 단식73일만에 2일 사망함으로써 보비·샌즈의 옥사이래 메이즈형무소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다 사망한 IRA게릴라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날 벨파스트에서는 도허티의 죽음에 항의하는 가톨릭계의 성난군중들이 폭력시위를 벌였다.

이라크 原油시설攻擊

이란機 티크리트地域 80%大破

【베이루트2日AP=聯合】이란 공군기들이 2일 이라크 영내 깊숙이 위치한 이라크석유시설을 공격하고 무사히 귀환했다고 이란군사령부가 주장했다.

이란군사령부 코뮈니케는 이라크수도 바그다드 동북방 1백50㎞ 떨어져있으며 이란 국경 서쪽으로부터 1백65㎞ 지점에 위치한 티크리트의 석유시설들이 이날 이란기들의 폭격으로 80%가 대파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라크측 소식통은 군당국의 성명을 인용, 이란기들의 공습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란 공군기들이 티크리트 북방25㎞ 지점의 민간목표물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찰즈夫妻 지브롤터出發 찰즈황태자 부부가 1일 신혼여행의 출발지인 지브롤터항에서 브리태니아號에 승선하면서 해변에 운집한 군중들에게 손을흔들고있다。【지브롤터1日AP電送=聯合】

아세안 3國巡訪 趙紫陽 中共首相

【北京2日聯合】중공수상 趙紫陽은 중공수상으로서는 처음으로 1주일동안 필리핀 말레이지아 싱가포르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3개국을 순방하기 위해 오는6일 北京을 떠난다고 중공의 외교소식통들이 2일 밝혔다.

印度 파키스탄 核센터爆擊획책

간디首相 軍事보좌관들이

【이슬라마바드AP=聯合】많은 파키스탄人들은 인도수상의 일부 군사보좌관들이 파키스탄의 핵연구센터를 폭격하라고 [illegible]

메아리

山河 異變

태풍 오그던이 남부지방을 휩쓸었다. 한라산 1천6백m지점에서 야영을하다가 천막이 휩쓸려 떠내려가 숨졌고, 지리산에서는 두 고교생이 벼락에 맞아 숨졌다.

할렐루야 찬양의 밤

성가대지휘및 반주자 청빙 :

믿음과 소명감을 갖고 봉사코자 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우는 잘해 드리겠읍니다.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사진 1매
기 간 : 1981년8월31일까지
연 락 처 : 300 QUEENS, DR. TOR. ONT.
전 화 : 223－1914, 226－2583
교 역 자 : 심 상 대
밴 드 부 : 음률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악기든지 다 환영합니다.
밴드부담당 : 옥 성 빈
전 화 : 274－8439(R), 278－4867(B)

곳 : 300 QUEENS, DR. TORONTO, ONT. M6L 1M5
때 : 1981년8월23일(일) 오후4시
주 최 : 연합한인펜티코스탈교회
교 역 자 : 심 상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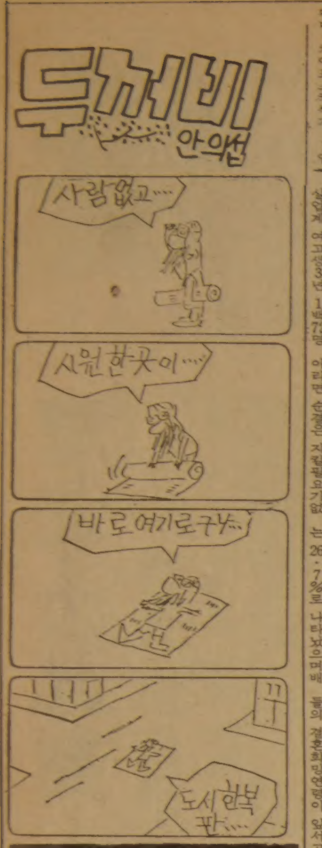
주님을 찬양드리는 성가와 밴드, 무용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 하오니 바쁘신 중에라도 오셔서 한마음으로 주님께 영광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 연 :

무 용 : 할렐루야 무용단 10명
밴 드 : 6인조 밴드(지휘 : 옥 성 빈)
성 가 : 본교회 찬양대
찬조출연 3명
특별출연 : 조 광(한국무용가협회 이사)
구성, 안무 : 옥 후 현

"하늘에선 주께 영광!"

두꺼비 안의섭



"外貨 불법流出을 막아라"

港口·항만非常令…적발時 拘束수사

暗거래·外國人통한 密搬出등 무기한 團束

치안본부는 3일 해외문호 개방에 따른 외화유출과 재산해외도피를 막기위해 전국 공항과 주요항구의 외사경찰과 수사경찰력을 동원, 외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이 중점단속할 외화유출사범유형은▲출국때 외화를 법정소지한도보다 많이갖고 나가거나외국인을통한외화밀반출▲해외사업및투자를가장한 외화도피및 무역차액도피▲암달러시장·기지촌에서의 외화암거래▲국내외 여행알선업자와 짜고 달러로 환산된 여행비용을 빼돌리는행위▲외환사재기등이다.

이에따라 일선경찰서 외사·수사경찰합동 외환사범전담수사반을 만들어 외화유출전과자, 불법외환거래자 또는 업소, 암달러시장등을 대상으로 무기한 단속을펴 적발되는 외환사범을 모두 구속 수사키로했다.

올상반기(6월말현재) 경찰에 적발된 외화사범은 17건 20명으로 미화70만달러, 일화1천3백만엔등 5억 천만원상당의 외화를 압수했다.

美TV·영화劇作家 차예프스키씨 別世

【뉴욕1日聯=合】 영화「마티」「네트워크」등의 각본을 쓴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 패디·차예프스키씨가 1일 뉴욕의 콜롬비아 장로교의료센터에서 癌으로 사망했다. 향년58세.

지난23년 뉴욕에서 출생한 차예프스키씨는 2차대전후 TV극 대본을 집필하기 시작, 美TV극작계의 선구자로서 주목과같은 많은 작품을 내놓아 TV는 물론 영화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복면강도 4名구속 松鶴國校 숙직실턴

【裡里=聯】 裡里경찰서는 3일 朴권종씨(22·裡里市松鶴洞219의5)朴방섭씨(21·주거부정) 金모(19) 李모군(16)등 4명을 특수강도혐의로 구속하고 범행때 사용했던 전기줄과 복면용헝겊 자기동을증거물로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2일 새벽2시30분께 裡里市松鶴洞 松鶴국교 숙직실에 복면을하고 침입, 숙직교사 李원방씨(40)와 고용원 李경호씨(49)등을 흉기로 위협, 현금89만원을 털어 달아나 주범 金모군집에 숨어있다 검거됐다.

犯人은 2명 세무원被殺사건

속보=서울北部세무서부가세과주사 姜貞根씨(40)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사건당시 20대청년2명이 姜씨를 뒤따라가 1명이 앞서면서 姜씨를 찌른후 각각반대방향으로 달아났다는 새로운 목격자 張모양(19·점원·恩平區佃佐2洞)의 진술에 따라 범인을 2명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있다.

2백여명 전원구조

【咸陽=聯】 속보=지난31일 새벽4시부터 智異山 등반에 나서 한신계곡등으로 올라갔던 2백여명의 등반객들은 이날내린 폭우로 계곡이 급류를 이루는 바람에 길이 막혀 한때 고립됐었으나 이날 오전11시께 智異山산악회장 鄭채권씨(37)가 이끄는 구조반에 의해 1차로 1백70여명이 구조되고 이어 오후7시20분께 나머지 34명도 전원 구조됐다.

2차로 구조된 34명은 이날새벽 1천6백m의 智異山천왕봉 등산을마치고 하오2시께부터 하산길에 나섰다가 갑자기 폭우를 만나 장터목과 고지사이의 속칭「첫나들이」폭포근처에서 5시간동안 갇혀 있던중 무사히 구조돼 인근 중산마을에서 보호를 받고있다.

百濟대행진 스타트

【大田=聯】 역사속에 파묻혀 사라져가는 百濟人의 문화유적을 찾기위한 百濟대행진이 扶餘군대학생연합회 … 1일 결단식을 갖고 扶餘—公州, 扶餘—慶州간서 각각 도보순례에 나섰다. 기운데 80여명이 참가한

光州버스회사 代表 7億챙겨 도주

【光州=聯】 전남지방 굴지의 화물자동차회사인 구백정기화물합자회사및 구백고속 화물유한회사대표 辛金洪씨(42·光州市北區中興洞33)가 S은행및 K은행 光州지점 발행수표와약속어음·사채등 7억여원의 빚을 진채 지난 6월29일 회사대표자명의를 宋모여인(47·서울城東區玉水2洞27의58)으로 변경한후 행방을 감춘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女際해도 純潔은 지켜야

—梨大鄭晟采씨 女高生 家庭·결혼觀 調査

배우자선택, 중매·戀愛 절충식으로

地方女學生 52%"시부모모시겠다"

結婚後先課題…서울 주택마련, 지방 가정화목

우리나라 여고졸업반학생들은 결혼전에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만이 이성교제를 하고있으며 교제를 하더라도 순결만은 꼭 지켜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대부분이 중매와 연애의 절충식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기 바라며 배우자와의 나이차이는 3살을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梨花女大교육대학원 鄭晟采씨가 서울의 인문계와 실업계 여고생 3년 1백18명과 지방의 인문계와 실업계 여고생 3년 1백72명 등 2백90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한 『여고생들의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태도조사연구』서 밝혀졌다.

논문에 따르면 서울여학생은 79·6%, 지방여학생은 90·6%가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서울여학생의 17·4%만이 지방여학생의 29·6%만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것으로 집계됐다.

또 여학생들은 순결은 꼭 지켜야한다(서울73·7%, 지방86·6%)고 생각하고있는데 서울여학생들의 경우 14·4%는 애정이 있는 사이라면 순결은 지킬필요가 없다는 우자와의 이상적인 연령차는 3살(7·5%)보다는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다고해 지방여학생(7·5%) 5살, 4살의 순이었다.

배우자의 선택방법은 서울여학생들이 중매와 연애의 절충식이 44·9%, 연애 32·2%인데 비해 지방여학생들은 절충식이 61·6%, 연애는 26·7%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여고생들은 이상적인 결혼시기를 51·6%가 24~26살로 잡고있는데 비해 지방학생들은 67·4%가 21~23살로 응답해 지방여고생들의 결혼희망연령이 앞서고 있음을 지적됐다.

배우자의 선택조건은 애정이나 성격 건강등을 중요시하고있고 결혼하기전 우선준비해야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여학생이 인격적성숙(38·1%) 당사자의 애정(31·3%) 경제력(12·7%)의 순인데 지방여학생들은 순결성유지(31·3%) 다음으로 인격적 성숙(25%) 애정(16·8%)을 들고있어 서울여학생들은 경제력을, 지방은 순결을 보다 중시하고있다.

시부모를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여학생들이 아니면 필요없다(50·8%)고 한반해 지방여학생들은 모시겠다(51·7%)고 응답해 지방이 전통적인 가족관을 많이 갖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에서 서울여학생들은 사회의 유능인물로키우겠다(46·6%)가 반반인데 비해 지방여학생들이 사회의 유능인물로 키우겠다(66·8%)가 자식이 원하는대로(27·9%)보다 2배나 많았다.

이밖에 서울여학생들은 결혼후 직장생활을 원하는데(50·8%), 지방여학생들은 원하지않는것으로(63·3%) 나타났으며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는 서울여학생들이 설득하겠다(39·8%) 냉각기를 갖겠다(29·6%) 이혼하겠다(25·4%)의 순인데 비해 지방여학생들은 설득하겠다(45·9%) 이혼하겠다(38·3%) 냉각기를 갖겠다(12·7%)의 순으로 드러나 지방여학생들이 적극적인 의식구조를 갖고있다.

또 여가생활은 서울여학생이 운동(27·1%)이나 가족놀이(20·3%) 수예(12·7%)를 하며 지방여학생들은 장보기(28·4%)나 수예(23·2%) 꽃꽂이(13·3%)에 시간을 보내는것으로 나타났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경찰通知받고 葬禮까지 치른 「被殺」소년 20일만에 生還

[표주박]

○…경찰이 목졸려 피살됐다고 해 장례식까지 치러졌던 어린이가 20일만에 살아 부모품에 안겼다.

○…大邱서부경찰서는 지난달22일 상오6시께 大邱市西區聖堂洞 성문교회 신축공사장에서 …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⑩

月南 李商在선생

대쪽같은 行跡…가끔 정열적憂國강연

Y서는 항상 우리를 어루만지고 激勵

皇城기독교청년회(YMCA)시절 어린나에게 나라와 민족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고 새지식과 文物을 교육한 많은 스승들이 계셨다.

그중에서도 長老格으로 가장우뚝한분으로는 韓末의 마지막 志士요 애국자인 月南 李商在선생과 외교관이자 교육자인 佐翁 尹致昊 형님을 꼽게된다. 물론YMCA에는 질레트(한국名 吉禮泰) 브로크만(巴樂萬)등 헌신적인 외국인들이 있었지만 이당시 한국인으로는 두분이 사실상의 대표였다.

내가 YMCA에 처음 들어갔을때 月南선생은 종교부책임자로 계셨다. 마르고 자그마한 체구이지만 그 炯炯한 눈매와 救國一念의 굳센 의지는 萬人을 압도했다.

YMCA에 들어서면 언제나 한복을 단아하게 입고 뒷짐을 지으신 기품있는 노인(月南)을 마주치게 되고어린우리들이 공손히인사를드릴라치면 『허허 그녀석 많이 컸구나』『너희적에 시간을 아껴 공부 열심히해야한다』는 훈도를 잊지않으셨다.

선생께서 이따금 강당에서 憂國강연을 하실때는 불덩어리같은 정열로 한말씀 한말씀이 千金이어서 우리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시곤했다.

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 형님들을 통해 月南선생의 대쪽같은 足跡을 들은뒤 더욱더 존경하게되었고 선생도 나를 무척사랑해주셨다.

高麗朝 牧隱 李穡의 후예인 선생은 哲宗元年(1850년)10월26일 현忠南舒川郡韓山面種芝里에서 청빈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났다.

18세때 과거에 응시했으나 돈으로 他人의 文筆을 빈자가 及第하는 부정을보고 크게 실망, 落鄕하려다 당시 진보적 名宦인 承旨 朴定陽을만나 時局을 논하며 그집의 上賓이되어 평생의 인연을맺었다. 朴定陽은 비록 14년 年上이나 선생의 인품에 감동되어 평생의 知己로 존경했다.

이인연으로 선생은 1881년朴定陽을수석으로 金玉均 洪英植등과 함께 日本시찰을 다녀오게됐고 1887년에는 朴定陽 駐美公使를 따라 서기관으로 渡美했다.

在美시절 선생은 大國역할을하려는 淸國공사를 이론으로 說服시켰다. 당시 선생께서 한복을 입고 워싱턴 거리를 거닐때 아이들이 돌을 던지는것을 경찰이 檢束하자 경찰에 대해 관용을호소, 풀려나왔다. 이에 부모들이 공사관에찾아와 謝意를 표했고 신문에는 한국선비의 雅量과 襟度를 크게보도하기도했다.

月南선생은 귀국후 典圜局위원으로 銀錢鑄造에 참여했고 學部참사관, 외국어학교장, 議政府총무국장등을 역임했다. 나라가어지럽고 貪官汚吏가 들끓는가운데 선생은 유일한 淸吏이자 한가닥 良心이었다. 선생은 현직에 있으면서 徐載弼 尹致昊·李承晚씨등과 독립협회에 가담했다가 구금되었다. 이때 獄中에서 기독교서적 2백여권을읽고 기독교에 歸依했다. 出獄후 선생은 救國方略으로 종교운동 청년운동에 전심했고 나중 돌아가실때까지 YMCA를 중심으로 더욱 진력하셨다.

언제어느자리고 直言과 警句와 諧謔으로 이름난 선생이어서 숱한 逸話를 남겼다.

5條約을 체결후 일본은 한국의 名士들을 초청, 각처를 시찰하게하고 兵器廠을 구경시켰다. 이날저녁 감상을 묻는 환영회에서 선생은『오늘 兵器廠을보니 日本이 과연 強國의 면모를 갖추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銃劍으로 興한자는 총검으로 망한다고 하셨으니 그게 걱정이오』라고말해 日人들을 숙연케했다.

合邦후이또오·히로부미(伊藤博文) 總監등이 참석한 美術協會창립식에서 賣國奴인 李完用 宋秉畯을보며 선생은 『대감들은 東京으로 이사가시오』라고 말했다. 『그게 무슨말입니까』라고 의아해하는 그들에게 선생은 『대감들은 망쳐먹는데는 천재니까 東京으로가면 일본도 망할것 아니겠소』라고 하자 李·宋은 무안해서 황망히 자리를 떴다.

YMCA창립때부터 참여해오신 선생은 62세때인 1911년 종교부장을 맡았고 2년후에는 2代총무에 被選됐다. 어린 우리들에게는 믿음(종교)과 勉學과 체육을 역설하신 선생은 특히 체육진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운동회때는 老軀를 무릅쓰고 직접 달리기 경기에 나서기도 했다. 선생은 우리들과도 농담을 즐겨하셨다. 언젠가 樹州 卞榮魯와 종로통을 가는데 뒤에서『변정상씨 변정상씨』라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樹州가 돌아보니 선생께서 자기 아버지이름을 부르시는게 아닌가. 樹州는『어떻게 아버님이름을 저에게 부르십니까』라고하자 선생은『이놈아 네가 卞鼎相의 씨(種子)아니냐』고 말하시곤 웃으셨다. 선생이 나에게도 이따금『致暎아 맛있는 아이스크림좀 사려무나』라고하실때는 YMCA내에서파는 크림을 사드리기도하였다.

나중 新幹會회장과 조선일보사장을지내신 선생은 내가미국유학중인 1927년3월29일 78세를 一期로 온국민의 哀悼속에 꿈에도 그리던 조국光復을 못보고 눈을감으셨다.

◇韓末의 마지막선비인 月南 李商在선생은 日帝下 겨레의 정신적支柱였다。

慶州서 유황온천 발견

섭씨26도 고급水質 佛國寺역서 2百m지점

【慶州=聯】 慶州市時來洞에 섭씨26도의 유황온천이 발견됐다.

지난 6월28일부터 온천수 시굴작업에 착수한 富泉개발주식회사(대표 楊大允·경남蔚山市)는 지난달 27일 지하 80m지점에서 섭씨 26도의 온천수층(두께 6m)을 발견, 1일 현재 1백20m 지하까지 시굴, 지반을 암반층 지하 3백m까지 굴착할 예정이다.

온천수가 발견된곳은 佛國寺역에서 불과 2백m안팎의 거리에 위치하고있는데 예부터 추운겨울에도 섭씨13도가량의 따스한물이 솟아나오는 곳이다.

시굴회사측은 수질을 확인한 결과 경남釜谷온천수보다 질이 더좋은 섭씨30도이상의 유황온천이 틀림없을것같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그동안 비밀리에 시굴작업을 벌여 현장주변에 있는 5만여평의 토지를 확보, 온천장을 개발하는대로 수익금의 30%를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기로 현지주민들과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明洞서 映畵제작 미사

천주교 조선교구설정 1백50주년 기념영화 「초대받은 사람들」 크랑크·인기념미사가 6일하오6시반明洞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 총대리 景甲龍주교 집전으로 올려진다. 이영화는 동아흥행주식회사가 제작배급을 맡는다.

張吉山

黃晳暎 作　崔然石 畫

(1623)

第四部 第一章 彌勒逆謀 (83)

『아까도 설유학께서 예를 들었으나, 지방에서부터 세를 모으며 한양을향하여 진격해 오르는 것은 십중팔구 실패한 것이외다. 왜냐하면 원래가 맨주먹인 백성들의 군사로는 지구전을 펼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이 작은 산하에서 수천의 입에 양식을 넣어야 하고, 하나 둘씩 공을 세우려는 자방보반이나 꿋내기 무사들을 의병이라는 이름아래 모여들게 만든 것이오. 한양을 치기로 하였다면 오래 준비하여, 그날 미명부터 해질녘 까지에 사대문 안의 모든 요새문루 궁궐을 장악해야 될게요. 장기에서 외통에다 차를 들이대고 상과 마로 교란하는 것과도 같소. 물론 저들 조정의 도와 덕을 잃은 점을 지적하고 대의를 두렷이 세워야 할것이오. 내 의견은 설유학께서 내놓은 두 안을절충하자는 것이지요. 먼저 번개 같이 궁궐을 점령하여 임금과조정대신들을 사로잡고, 경기도 바깥에서 외응하여 관을 점령한 뒤에 한양에 입성하는 것이오. 처음에는 반정이고 연이어 입국으로 나아가는 셈이지요』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성가및 설교테이프
●각종선물 용품.
백과사전(월드북)
월~토 오전10시30분~오후7시
714 BLOOR ST. W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W.	741-5411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오후 2:00 학생영어예배 오후 1:30	2500 Mimosa Row 미시사가	276-5163 277-2394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 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423-9324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925-852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김옥희 전도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675 Sheppard Av.E.	752-9727 752-9860
선교교회	안상열	주일 낮12:30 저녁 7:00	1 Greenland Rd. (Donm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순복음교회	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8:00	1 King St. Weston	661-7162 247-9577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illegible]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98 Finch Ave.W.	225-4430 665-2866
[illegible] 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er Dr. at Pape Ave.	423-8400 423-983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7:30 일요오후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자유감리교회	여용순	오전11시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임인환	주일오후1: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재신	주일오전11:00 낮12:30	353 Sherbourne St.	922-3863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풍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群商 결승先着 2冠王 눈앞에

大鵬旗야구 光州一 5대2로 꺾고

慶北·大邱高 승자와 決勝

群商 白仁浩·林東求·張虎翼등 殊勳打

【大邱=聯】群山商高가 제3회 大鵬旗쟁탈 전국고교야구 대회 결승전에 선착、금년시즌 2冠王을 눈앞에 두고있다。

3일 이곳 시민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 7일째 준결승전에서 대통령盃우승팀인 群山商高는 姜大浩·李東錫의 계투로 光州一高타봉을 4안타、2실점으로 막는한편、3회말 林東求의 결승2루타를 비롯한 4안타 2희타로 3득점、승리를 굳혀 光州一高를 5—2로 제압、4일 하오 慶北高·大邱高승자와 嶺·湖南의 결승대결을 갖게되었다。

群山商은 이날 1회말 1死후 2번 高長亮의 내야안타와 3번 白仁浩의 우중월 3루타로 선제점을올리고 敵失로 1점을추가、2—0의 리드를 잡았다。3회말에는 3번 白仁浩의 중전안타、4번 林東求의 좌월 2루타로 결승점을 올리고 6번 張虎翼의 좌전적시타로 5—0으로 승세를 굳혔다。

白仁浩는 이날 4타수3안타(1·2·3루타)의맹타를 보였다。

光州一高는 群山商선발 姜大浩의 호투에 눌려 5회까지 1안타로 눌리다가 6회초 9번 崔盛浩의 좌월2루타로 돌파구를 마련、2점을 만회했다。

◇제7일준결승전

광주일고 000 002 000—2
군산상고 203 000 00×—5

◇제6일준준결승

심석종 101 000 00—2
군산상 014 101 02—9
〈8회콜드게임〉

대구고 202 300 1—8
춘천고 000 000 0—0
〈7회콜드게임〉

◇제5일준준결승

광주상 000 001 100—2
경북고 200 000 02×—4

진흥고 000 203 410—10
포철공 000 011 001—3

◇제5일준준결승

선린상 532 000 111—13
목포상 401 020 020—9

▲홈런=金鍾友(1회초·만루) 李歐宰(2회초·2점) 趙永一(9회초·이상선린) 韓明安(1회말·2점·목포상)

善隣은 花郞旗 결승에

淸州高와亂打戰 8—5승리

【釜山=聯】善隣商高는 3일 九德경기장에서 벌어진 제33회 화랑기쟁탈 전국고교야구 7일째 준결승전에서 선두타자 金雄大의 결승타점을 포함한 5타수 4안타 2득점의 수훈에 힘입어 淸州高를 8—5로 격파하고 대망의 결승에 진출했다。안타수 13—13의 타격전。

1회말 선두타자 金雄大의 우중월2루타로 물꼬를 마련、5번 趙永一의 우월3루타등으로 3점의 선제리드를 잡은 善隣商은 5회말에도 金雄大의 결승타점 좌전적시타를 비롯한 집중4안타로 3득점、

4—2로 뒤쫓기던 善隣商은 5회말 선두 6번 李歐宰의 좌전안타와 우속포볼、9번 朴志遠、1번 金雄大、2번 金國鎭의 연속3안타로 3득점、7—2로 승세를 굳혔다。

淸州高가 9회까지 맹렬한 추격으로 5점까지 좇아갔으나 준준결승서 만루홈런을날렸던 善隣商의 金健友는 8회말 승리를 확인하는 2게임째 연속좌월 솔로호머를날렸다。

◇제7일준결승

청주고 010 102 001—5
선린상고 310 030 01×—8

▲홈런=金健友(8회말·선린)

◇제6일준준결승

경남고 000 030 200—5
신일고 410 000 40×—9

▲홈런=閔庚三(2회말) 金炳國(7회말·3점·이상 신일)

◇로빙볼을 잡아라 — 찬스냐 위기냐。中央女高의 金仁淑·柳賢珠조가 群山영광여고와의 1회전서 로빙으로넘어온 볼을 함께 달려들어 스메싱하려하고 있다。

大倫、李大元 결승골 景城 제압

中大附高·驪州商·東大附高도 決選올라

全國중고蹴球

【議政府】大倫高는 3일 의정부 공설운동장서 열린 제19회 추계중고축구연맹전 7일째 고등부 13조경기에서 전반25분 李大元의 중거리슛으로 결승점을 뽑아 강호 景城高를 1—0으로 제압、첫승리를 기록했다。12조의 中大附高는 甕湖高와 맞서 전반서 한골씩 주고받은후 후반서 崔元圭(18분)와 琴玟(25분)이 골을넣어 3—1로 승리했다。

한편 2일 열린 고등부15조경기서 창단4년째의 驪州商은 慶熙商와 1—1로비겨 두팀이 1승1무를 기록했으나 골득실차에서 앞서 결선 진출권을 얻었으며、14조의東大附高도 春川商와 0—0무승부를 기록、1승1무로 결선에 올랐다。

◇제7일전적

▲고등부13조
대륜고 1(1—0 0—0)0 경성고
(1승) (2패)

▲동12조
중대부고 3(1—1 2—0)1 운호고
(1승) (1패)

▲동11조
한영고 2(0—0 2—0)0 풍생고
(1승) (1패)

▲동16조
영동공고 1(1—0 0—0)0 계성고
(2승) (2승1패)

◇제6일전적(2일)

▲고등부4조
한양공고 3—2 군산제일고
(1승1무) (1패)
전남체고 2—0 동진종고
(1승) (1무1패)

▲동14조
동대부고 0—0 춘천고
(1승1무) (1무1패)

▲동15조
여주상 1—1 경희고

▲동순위=①여주상1승1무 ②경희고1승1무(이상 골득실차) ③청주상2패

◇골문을 死守 — 전반大倫FW이대원의 질풍같은 문전 대시를 景城GK원유철이 슬라이딩으로 선방、위기를 모면하고있다。【議政府=聯】

慶北A·貞和A·忠南·브니엘女高 2회전 進出

全國女子테니스

제17회 전국 여자테니스대회가 3일 장충코트서개막、첫날 여고부 1회전에서 慶北女高A팀、貞和女高A팀、忠南女高、釜山브니엘女高가 각각 승리、2회전에 진출했다。

이대회에는 여중부26개팀、여고부 30개팀、여대·일반부 7개팀이 참가、2단 1복식의 단체대항전을 벌인다。

◇첫날 전적

▲여고부 1회전
경북A 2—0 동래B
정화A 2—0 김제A
충남 2—0 효성
브니엘 2—0 신광B

▲여중부 1회전
서울중앙 2—0 성남B
대명 2—0 수일B
수일A 2—0 김제금성B

'81 鳳凰大旗의 고교로、

京畿·江原 在日同胞

전국49팀 強訓현장 올해의 스타는

仁川高、변화있는 마운드 鬪志 불태워

◇鳳凰大旗의 珍客으로 국내 고교팀들의 자극제가 되어온 在日同胞학생팀。

仁川야구가 전국무대를 주름잡던 시절이 있었다。徐東俊·陳元柱·金振榮등의 仁川高、申仁植의 東山高가 50년대의 고교야구를풍미했다。팀수에서는 다른 대도시에 비교가 안되었지만 仁川야구는 짜고 매웠다。

지금 仁川은 화려했던 옛 명성으로 시름을 달래고있다。79년 仁川高가 강속구투수 崔桂勳을 앞세우고 정상탈환의 기치를 치켜들었으나 불운으로 전국 4개대회서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금년에도 큰 위력을 보이지 못하고있으나 역시 仁川의 선두주자는 仁川高。1m83의 대형투수 金榮善의 오버·드로와 1m80의 金昌秀의 언더·드로등 변화있는 마운드와 청소년대표인 포수 金東基의 착실한 게임·리드로 수비일선이 비교적 견실한 편이다。

金榮善 金東基 李慶爽의 배팅도 상당히 날카로운 편。

仁川高는 시즌 첫대회인 대통령盃에서 포수겸 4번인 金東基의 통쾌한 2점 호머등으로 강적 光州一高를 꺾고 8強까지 올랐으나 信一高와의 준준결승서 선발 金榮善이 3회말 閔庚三에게 솔로·호머를 허용、이 한방으로 아깝게 1—0으로 패퇴했었다。청룡기、대봉기서는 1회전에서 탈락。

그러나 仁川高의 명예회복을 다짐하는 동문 南昌熙감독과 선수들의 불같은 투지가 큰 힘이 될것으로 보인다。

東山 嚴東河등 投手강해

春川·江陵、全國무대서 先頭다툼

在日同胞팀 名門13개교서 선발

仁川高에 이어 전국무대를 석권、위세를 떨쳤던 東山高는 최근 지척지간의 서울운동장 한번 밟기조차 쉽지않은 형편이다。새로운 적수 心石綜高가 예선을 지키고 섰기때문이다。대통령盃대회 본선진출권은 仁川高、心石綜高에 빼앗겼고 청룡기서는 春川高、普成高를 연파、8強까지 올랐으나 우승팀 慶北高에 9—2로 완패했다。

東山高도 강속구의 嚴東河、변화구의 姜德淑·崔容男·朴昌根등 비교적 여유있는 투수진을가지고있다。

내외야수비도 비교적 견실한 편。타격에서는 徐在洙·文柱模·呂泰九·成在龍등이 중심을이루고있다。3번을 맡고있는 呂泰九는 청룡기에서 春川高에 3—2로 뒤지고있던7회말 주자일소의 3루 적시타를날려 東山高의 역전승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仁川高가 비교적 대진운이 좋은데 비해 東山高는 信一高와 光州一高、두 강호의 틈바구니에끼여 고전이 예상된다。

球都 仁川을 위협하고있는새로운 세력 心石綜合高는전국 50개팀중 유일한里단위팀이다。그러나 학교측의 열의로 착실하게 성장을 거듭、79년 鳳凰大旗서는 8強에、80년 大鵬旗서는 4強에 진출했었다。

江原道는 어느 지역보다 늦게 고교야구무대에 들어섰으나 열의만은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다。春川高、江陵高 모두 4強을 목표로 하고있다。

球歷에서 앞선 春川高가 전력면에서도 江陵高를 다소 앞지르고있다。아직 한번도 전국대회 4強에 오르지 못했으나 大鵬旗서 8強까지 진출、점차 자신을 찾고있다。

무거운 구질의 빠른 볼을 던지는 韓鳳奎、1m82의 장신으로 낙차큰 커브를 던지는 朴光虎등 두 1년생 투수와 韓尙演·都炳煥·盧泰憲·崔鍾福의 상위타선에 기대를 걸고있다。

동해안에 고립된 江陵高는 지리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春川高와 선의의라이벌 관계를 이루며 중앙무대에 도전하고 있다。鳳凰旗대회서 77·78년잇달아 3회전까지 진출、선전했다。뚜렷한 스타는 없으나 포수겸 3번 辛良善、4번 秋應鎬、5번 咸永淳등의 상위타선의 한방이 위협적이다。

金榮賢·李英濟·李浩元등 3학년생들의 방망이가 다부저 수비보다는 공격력으로 승부를 가린다。光州眞興高의 왼손투수와 同名異人인 2년생 金正洙의 피칭이 안정된편이나 전국대회 경험이적은게 약점。

자유참가제、매회 추첨외에 鳳凰大旗의 가장 자랑스러운 특징은 在日同胞팀의 출전이다。프로야구를 가진 日本의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同胞학생팀은 매년 정기적인 모국방문경기로 鳳凰大旗 대회창설의 촉진제가 되었으며 72년 8強、73·76·77년4強、74년 준우승으로 국내고교야구 수준향상의 자극제가 되어왔다。

9번째 鳳凰大旗에 참가하는 이번 在日同胞팀은 日本고교야구 명문고인 堂島高、PL학원、天理高、生野高등 13개교의 18명으로 구성되었다。在日同胞팀의 약점은 언제나 그렇듯 급조팀으로서의 연습부족。그러나 개인기량이 돋보이는 피칭이나 타법에서는 국내선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좋은 플레이가 기대된다。

【方錫絢기자】

〈끝〉

한국、加팀과비겨

4개국 親善야구

【밴쿠버=聯】한국가대표야구팀은 3일상오(한국시간)밴쿠버 네이트에이리구장에서 열린 4개국 친선야구대회 캐나다와의 1차전에서 7—7로 비겼다。

한국 캐나다 美國 濠洲등 4개팀이 벌이는 이번대회는 6일부터 열릴 슈퍼월드컵대회 전초전으로 한국은 시간제한 7회정지게임이된 對캐나다전에서 6회까지 7—6으로 리드하다 7회초 1점을 뺏겨 비겼다。

캐나다 100 041 1—7
韓國 050 002 0—7
〈시간제한정지게임〉

한국팀、日·괌에 2連勝

리틀野球 예선

한국리틀야구대표팀은 2일 臺北에서 열린 81년도 세계리틀야구선수권대회(9월·미국) 극동예선 2차전에서 괌을 4—0으로 완파하고 2승을 올렸다。한국、일본、臺灣、홍콩、괌、印尼등 6개팀 풀리그로 세계대회 출전1개팀을 가리는 예선1차전서 한국은 日本에 9—3으로 이겼었다。

◇2차전

괌 000 000—0
한국 000 04×—4

페드로사 WBA 12次방어 페더級

【카라카스2日UPI=聯】프로복싱 WBA(세계권투협회) 페더급챔피언 에우제비오·페드로사(26·파나마)는 1일밤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서 벌어진 타이틀전에서 도전자인 카를로스·피냥고(22·베네수엘라)를 7회1분38초만에 KO로 물리치고 타이틀 12차방어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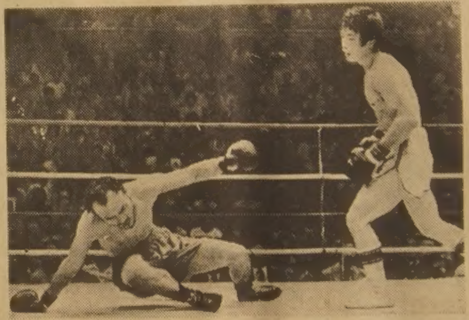
이날 승리로 페드로사는 프로전적 30승3패를 기록했다。

朴鍾八 9회KO勝

李商虎 눕혀

프로복싱 동양태평양 권투연맹(OPBF) 미들급 챔피언 朴鍾八(21)은 2일저녁 文化체육관서 벌어진 李商虎(24·동급 한국주니어미들급 챔피언)와의 라이벌전에서 9회2분30초만에 KO승、프로데뷔이래 21승(20KO) 1무1패의 전적을 기록했다。

세계미들급 통합챔피언 마빈·해글러를 겨냥하고 있는 朴은 8회까지 아웃복싱으로 점수에서 앞서나가다가 9회 접어들어 李의 턱에 짧은 카운터펀치를 작렬、결정적인 기회를 잡은뒤 소나기 펀치를 퍼부어 게임을 끝냈다。



◇9라운드에서 朴鍾八Ⓒ이 그로기상태의 朴商虎의 안면에 소나기 펀치를 퍼부어 녹다운을 뺏고있다。

월드게임 폐막

16개 종목에서 金9 銀3 銅1

【산타클라라=聯】제1회 월드게임이 2일 산타클라라에서 열전 9일간의 막을 내렸다。

한국은 60개국에서 1천5백여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16개종목중 태권도·야구·배드민턴·볼링등 4개종목 34명의 선수가 출전、금9·은3·동메달1개를 획득하는 성적을 올렸고 스포츠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알찬 성과를 거뒀다。

한국은 태권도에서 10체급중 9체급을 휩쓸었고 배드민턴과 야구에서도 은메달을 따냈으며 볼링은 남녀 모두 예선서 탈락했다。

暴雨속 忠義·海蜂 3대3 비겨

【全州=聯】忠義는 2일 全州공설운동장서 벌어진 홍콩프로축구팀 海蜂과의 친선경기1차전에서 3—3으로 비겼다。

폭우속에 열린 이날 대전에서 忠義는 전반 23분과 25분 FW秋鍾洙와 FW河德潤이 각각 한골씩을 넣어 전반을 2—0으로 앞선뒤 후반5분에도 河德潤이 득점、3—0으로 크게 리드했으나 이후 海蜂에 연속3골을 허용했다。

海蜂은 최근 불로바팀에있던 卞鎬瑛을 트레이너겸 선수로 입단시킨데다 花郞서 활약해온 崔鍾德을스카우트、7명이 한국선수들로구성되어있다。

이날 대전에서도 海蜂은 卞鎬瑛을 제외한 崔鍾德·李光善·金剛男·金成男·朴炳徹·金顯福등 전국가대표선수를 기용、朴炳徹이 10분과 22분에 두골을、그리고 39분에 金顯福이 동점골을 각각 빼냈다。

◇제1차전

忠義 3(2—0 1—3)3 海蜂

朴利熙선수 9위

월드컵 卓球

【쿠알라룸푸르2日聯=聯】한국의 朴利熙는 2일 쿠알라룸푸르 국립경기장에서 폐막된 제2회 월드컵탁구대회 마지막날 경기에서 캐나다의 조란·코사노비치를 2—0(21—11、21—14)으로 물리치고 9위를 차지했다。

朴利熙는 31일 B조예선 3차전에서 미로프·클람파르(헝가리)에게21—16、21—17로 패해 예선전적 1승2패로 9~12위전에 나갔었다。

朴은 1일 9~12위전 첫경기에서 스웨덴의 미카엘·아펠그린을 2—0(21—12、21—12)으로 제압했다。

한편 세계랭킹4위인 클람파르는 3위인 中共의 謝賽克에 3—2로 역전승을 거두고 감격의 패권을 차지했다。세계랭킹1위인 郭躍華(中共)는 준준결승전에서 謝賽克에게 4—1로 패배、3위로 밀려났다。

梁正模씨 은퇴식

6일全國레슬링大會서

아마레슬링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서 우리나라 최초의 金메달을 차지한 梁正模씨(29)의 은퇴식을 오는 6일 釜山九德체육관서 개막되는 KBS盃쟁탈 전국레슬링대회때 갖기로 했다。

梁正模씨는 현재 조폐공사 레슬링팀의 트레이너로 후진양성에 전력하고있다。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KBS盃쟁탈 대회는 고교일반부로 나뉘어 토너먼트로 경기가 진행된다。

교포특별우대… 이 쿠폰과 함께 20%할인 …남자용 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오 FOR MEN

TIE CITY
Square One
275-2187
Burnhamthorpe
Hwy 10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Bloor St.
Yonge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89
King St
Bay
Yonge

북미최대의한국식당
한식·중화요리·화식·캐네디안식
거구장

거구장

※환갑、생일파티、동창회、피로연、대소연화

영업시간：아침11시부터 밤2시까지 연중무휴

가수와밴드：목、금 토、일(8시30분부터 밤2시)

가 수：신 현 회

특별 메뉴

개스불로 굽는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중화요리·케네디안식
요리전문
2백대 수용무료파킹장

5 BETHRIDGE RD. ETOBICOKE
KIPLING×HWY 401서 1 블럭 북쪽 첫신호동서 좌회전
☎：742-1618 곽정렬·김선남

우리時代의 伝說 베스트셀러 이야기

有名詩人을 만들어낸 無名遺稿集

조용한出版…차츰 文壇관심 높아져

1948년 遺族들의 손으로 펴내
作品과 일치한 志操가 큰 매력
지금도 年5千部씩 총6만部 팔려

시인이 시집을 만든것이아니라 시집이 시인을 만들었다。 우리 現代詩文學史의 한 거목인 尹東柱。 그의 사후에 유족과 친지들이 만들어준 시집이 없었더라면 우리詩文學史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볼수는 없었을 것이다。

요즘은 시를읽지않는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이름이돼버린 시집「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는 원래 무명시인의 유고집으로 조용히 나와 점차 문학계의 관심을 끌어 마침내는 尹東柱의 모습을 재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尹東柱

현시킨 것이다。

이처럼 시집이 시인을 낳게된데는 尹東柱시인과 우리 민족의 기구한 운명이 서려있다。

1917년12월30일 北間島의 明東村에서 태어난 尹東柱는 어려서부터 시에대한 애착과 日帝에대한 증오를 동시에 키워나갔다。

당시 北間島는 抗日運動의 거점같은 곳이었으며 여기서 그는 국민학교를졸업했고 그후 平壤 崇實中에 다니다 신사참배문제로 崇實中이 폐교되어 龍井으로돌아가 光明中을 졸업하는등 수난을겪었으며 그때마다 항일의식은 굳건해졌다。

그러나 이런속에서도 詩作에의 열정은 지칠줄몰라 光明中재학시절에는 北間島 延吉에서 발행하던 「가톨릭 少年」誌에 동시 「병아리」(1936년11월호)와 「빗자루」(〃12월호) 등을 발표했다。

중학을졸업한 그는 의과대학에가라는 부친의권유를 완강히뿌리치고 延專文科에 들어가(1938년) 본격적인 詩作에 몰두했다。 일간신문 학생난에 「달을쏘다」라는 산문을 발표하고 「少年」誌에는 동요 「산울림」을 내놨다。

1941년 延專을 졸업한 尹東柱는 그때까지 발표한 19편을 묶은 시집을 내려고 했으나 당시의 사회적여건이나 진안형편때문에 포기했다。 그때 그는 시집을 77부만 발행하려했었다。 그동기는 알수가없었으나 친한 친구들에게만 돌리려던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이듬해인 1942년 일본으로 건너가 立敎大英文科에 입학했으며 그해 가을에는 京都의 同志社大로 전입학했는데 다음해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2년형을 받고 끝내는 해방을 앞둔 1945년 2월16일 福岡형무소에서 별세했다。 당시 그의 나이 28세。

이런 그의 경력이 탐해주듯 그의 생애는 자칫 잊혀지기 쉬운것이었다。

그가 옥사한 항일투사임에는 틀림없었지만 그의 투쟁경력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고있다。 일본검찰의 기록에는 「사상범」이라고만 기록돼있는데 이것만으로는 日帝下에서 순국한 수많은 우국지사들에 가리우기 십상이다。

시인으로서 그의 존재도보잘것없었다。 일간지나잡지에 몇차례 투고했던 문학소년이나 문학청년정도였을 뿐인데 이정도의 문학지망생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도 흔한 것이다。 그런데도 尹東柱가 기억되는것은 시를 아는 가족분위기, 특히 아우인 尹一柱씨(成大교수·건축학)와 延專후배인 鄭炳昱교수(서울大)등 친지들의 덕분이다。

가족들은 그가 옥사하자 유해를 수습하여 고향 龍井에 묻으면서 「詩人 尹東柱之墓」라는 비석을 세워주었다。 尹一柱씨는 비록 공학도였지만 대학시절 (서울工大)에는 시를 썼으며 지금도 시인으로 등록돼있다。

이런 가족과 친지들의 협으로 1946년가을 그의유작「쉽게 씌어진 詩」가 京鄕新聞에 발표됐으며 이듬해 2월16일에는 京鄕新聞옆「플로워茶房」에서 추도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그의 유고집 발간계획이 구체화됐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초판은 1948년 1월30일 正音社에서 4×6版 71페이지에 정가 1백圓으로 나왔다。 아우인 尹씨가 형의 유고 31편을 모은것이었다。

제목「하늘과…」는 시집중「序詩」라는 詩에서 따온 것이다。『죽는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점 부끄럼 없기를/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괴로와했다/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 제목은 尹東柱가 1941년에 내려고했던 시집의 제목이기도 했다。 당시 그는 병든조국을 노래한 시「病院」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려 했다가 日帝의 검열이 두려워 이런제목을 짜냈던 것이다。

이 길다란 제목은 당시로서는 퍽 획기적인 것이었다。 짧고 함축성있는 단어를 제목으로 고르던 당시의 풍조에 비추어 이런 나열식의 제목은 확실히 이색적이었으며 후에 이 시집이 인기를 끌자 이 이름을 원용한듯한 소설 제목들도 나오게된다。

초판의 판매실적은 보잘것이 없었다。 초판1천부를 찍은것이 6·25까지 갔다。 그러나 문단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尹東柱의생전에 전혀 교분이 없었던 朴斗鎭시인은 이유고집을보고 『尹東柱의 경우처럼 그작품과 생활과 志操가 완전히 具合一體된 예는 극히 드물다』며 극찬하기도 했고 白鐵은『우리 抒情詩史上 그예를 찾을수없는 페이도스의 특유한 작품을남겼다』고 평하기도했다。

6·25의 소용돌이가 가시자 尹교수는 이의 증보판을 내놨다。 여기에는 초판이나온 직후 누이인 惠媛여사(58)가 월남할때 가져온 유고와 고인이 鄭炳昱교수에게 맡겨 鄭교수의 모친이 고향인 경남 河東에서 간직했던 유고 및 고인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쓰인것등 초판 31편의 3배인 93편이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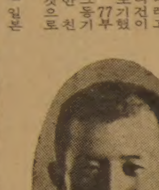
증보판이 나오자 尹東柱의 이름은 문학계에서 확고한위치를 점령했으며 60년대에들어와 그의 동요와 시들은 중·고교 국어교과서에 오르게됐다。

그러자 그의 이름은 대중에게도 알려지게됐으며 1968년에는 모교인 延世大에 그의 詩碑가 세워졌다。 자칫 무명의 우국청년으로 잊혀질뻔한 그가 1세기의전통을 통해 기라성같은 지사들을 배출한 延大에서 유일하게 비석을 남기게 된것이다。

「하늘과…」는 1976년에 또 23편이 추가된 1백16편의 증보판이 나왔는데 이 시집이 많이 나간것도 이때부터였다。 그것은 尹시인에 대한 새로운평가라기보다는 70년대후반부터 시작된독서인구의 급증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 나간 부수는 6만부정도이며 매년 5천부씩 꾸준히 팔린다。

「하늘과…」가 이처럼 인기를 끈것은 페이도스 짙은 문학성도 있지만 시인의 생애가 주는 매력때문일 것이다。 단아한 싯귀처럼 기풍있는 미남인 그는 행인지 불행인지 젊은나이에 별세하여고야말로 「죽는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갔다。 이 시집의 인세수입은「尹東柱장학금」의 기금으로 쓰이고있다。 이 시집은미래의 시인도 만들고 있는것이다。

◇1968년 延世大교정에 세워진 「윤동주시비」。



◇延專 재학시절의 尹東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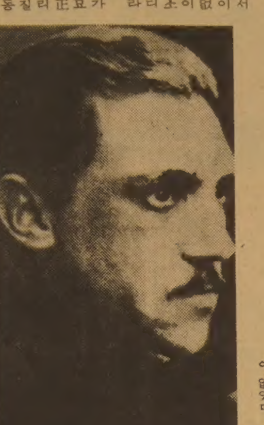
소련의 大衆을 사로잡은 詩人俳優 「비소츠키」

死亡1周忌맞아 NYT紙 특집

블라디미르·비소츠키。 소련인。 시인이자 배우, 또 풍자가。 소련국민들의 대중적 영웅。 1980년 7월25일 심장마비로 42세를 일기로 사망。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歐美에서도 비교적 생소한 이 이름이 현재 소련의 전역을 熱病처럼 풍미하고 있으며 그의 사망1주년을 맞은 지난달25일엔 모스크바시내가 떠들썩할 정도로 요란했다。 뉴욕·타임즈紙는 지난달 27일자판에 「소련의 대중적영웅, 死後에 더 크게사랑받는다」는 題下에 1주기를 맞은 그의 묘소풍경을 묘사하면서 짧았던 생애를 더듬고 있다。 【편집자註】

海外文化

世俗的언어로 眞實과 生活 노래
生前엔 벤츠몰며 해외여행, 아내도 유명한 佛女優
警察인토속 墓所참배객 줄이어



◇소련의 대중적 영웅이었던 블라디미르·비소츠키。 사망한지 1년이지났으나 그에대한 인기는 생전보다 더 요란하다。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에서는 어떠한사건이라도 신문에서나 포스터에 보도된 적이없다。 그러나 모스크바당국이나 시민들은 7월25일이 소련대중의 영웅이었던 블라디미르·비소츠키의 1주기라는것쯤은 알고있었다。

바로 그날아침 비소츠키가 묻힌 바간코스코예공동묘지로 가는길엔 20여명의 正服경찰과 사복경찰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민들이 질서있게 바간코스코예공동묘지로 갈수있도록 인도하고 있었다。

이날 날씨는 아침부터 찌는듯이 무더웠으나 비스츠키의 묘소에 참배하기위해서는 2시간동안이나 줄을서서 기다리지않으면 안되었다。 이들가운데는 지식인, 젊은이, 노동자, 퇴역군인, 농부, 심지어 경찰관들도있었으며 묘소참배를위해 멀리 시베리아로부터 달려온이도 있었다。

정오무렵엔 비소츠키의 묘소는 벌써 화환속에 파묻혀버릴정도였다。 그러면 비소츠키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그는 시인이자 배우, 또풍자가로서 생전에 소련안에서 가장 「인기있는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인기는 西歐人들, 특히 모스크바에 거주하고있는 西歐人들에게는 거의 생소한것이었다。 우선 그의 발라드(譚詩)는 정치문제를 표면적으로는 담고있지않아 주의를 끌지못했다。 더구나 그가구사하는말은 粗惡하고 世俗的인 「거리의 언어」뿐이어서 영어나 불어, 또는 독어로의번역이불가능했던것이다。

그는 1979년엔 미국을 방문했으며 파리는 가끔 여행했다。 西歐人들은 비소츠키가 지난해 사망했을때 영결식이 열렸던 타간카극장에 3만여명의 군중이 운집한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었다。

그는 생전에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명예나 타이틀을 얻은적이없었고 또 그의 시나 노래들은 공식적으로 책이나 디스크로 나온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상한것은 정부로부터도 박해를 당한적이 전혀없었다는 사실인데 이는 아마도 정부의 고위층들이 모두 그의 팬이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있다。

그는 죽을때까지 타잔카극장의 주역배우로 있었으며 타간카극장은 물론 그가 가끔 공연을 벌였던 공장이나 기관등은 항상만원이어서 티킷이 동이났었다。

비소츠키의 매력은 한마디로 그 주제가 「진실과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소츠키묘소를 참배했던 한젊은이는 비소츠키를 이렇게 평가했다。

『우리는 그가 진실을 애기했기때문에 이곳에 와있읍니다。 그는 우리가 항상들었던 半眞實이 아닌 진짜 진실을 노래했읍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정치를 쓴것이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생활을 얘기했읍니다』

따라서 그의 발라드에는 생활의 어려운 낙망, 희망, 유머, 신성모독, 근심, 걱정, 음주등에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며 이러한것들은 소련인들이 항상 일상생활에서 겪고있는 문제들이었다。 그는 그의주제를 일상생활중에서 술을먹는다든가, 형편없는 TV를 본다든가, 감옥의 생활이나 또는 식품을타기위해 줄을서있는 광경등에서 끄집어낸다。

또한 명백히금지된 정치문제를 직접 건드리지는 않았으나 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것들이 없는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불평하고 또불평하면서 페어·플레이를원했네。「우리는 줄의 맨앞에서있었는데 뒷줄에 서있던자들이 이미 다먹어치워버렸어」 우리는 이걸두고 다툴생각은 없네만, 친구여, 꺼져버리게。/배불리먹고 있는 사람들/외국인들과 당신들을/그런데 실례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시더라?』

특이한것은 비소츠키는 지독한 미남자면서 목소리는 굵고 쇳소리가나는 바리톤이였다는 점이다。 그의 부인은 유명한 프랑스여배우 마리나·블라디。 그는 소련사회에서는 구하기어려운 메르체데스·벤츠를 몰고다녔으며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축복받은 인물이기도 했다。

타간카극장은 이날밤 그의 1주기를 기념, 모스크바문화관계기관의 최고인사들을 초청, 추모제를 열었는데 타간카광장외부에는 무장경관을 가득실은 8대의 트럭이 비소츠키팬들이 밀어닥칠것에 대비, 도로를 차단했다。

비소츠키는 생전에도 그랬지만 죽어서도 위대한 영웅이다。 그는 소련 어린이들의 혁명시인 푸시킨의 시를 뛰어넘는 시의 주인공이 되었다。

비소츠키에 대한 소련국민들의 사랑은 소련의 가장 인기있는 대중가수 불라트·오쿠자바의 노래로 단정지어진다。

『그는 죽었으나 살았다。 사람들은 그가 罪를 범했다고 하지만 罪없이 타고난 사람이 어디 있으랴…』

【뉴욕타임즈紙】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모스크바에도 록오페라上陸

로맨스 그린 「滿船이야기」…관객들 열광

『브르좌들의 퇴폐행위』로 간주되어 오던 록뮤직오페라가 모스크바에서 공연되어 화제다。 그것도 노련한 작가에 의한 록오페라작품이라는데 무엇인가 文化的변모로 여겨질수 있기 때문이다。

시인 안드레이·보스네센스키의 첫 록 오페라작품인 「滿船이야기」가 지난주 모스크바에서 初演되어 수많은 관람자들에게 인기를 얻었었다。 요란한 오색조명과 시끄러운 전자음악으로 시작되는 이 오페라의 내용은 19세기의 한 러시아선장과 캘리포니아에 살고있는 어느 스페인아가씨와의 로맨스를 그린것。

공연은 관중들의 너무나 열렬한 박수로 몇차례 중단되기까지한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관중들은 오페라가 끝나자 15분동안이나 일어서서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10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스크바에서 록뮤직을 공연한다는것은 꿈같은 일이었지만 지금은 西歐式록뮤직과함께 소련화한 록뮤직이 모두 인기다。

엄격히 말하면 「滿船이야기」가 소련의 첫 록오페라는 아니다。 5년전 알렉세이·라이브니코프가 록오페라를 작곡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공연이 공식적으로 『소련에서의첫 록오페라』라는 이정표를 세운 공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공연의 목적은 처음으로 진지한 소련록뮤직을 창작하는데 있었던』고 보즈네센스키는 밝혔다。

『예수그리스도 슈퍼스타같은 서구작품도 물론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련의 록뮤직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이곳 음악인들은 말한다。

보즈네센스키는 이작품의 오리지널 詩句를 이미 70년대초에 완성했었다。 그는 1806년 무역사절단으로 캘리포니아(당시 스페인領)에 다녀온바있는 니콜라이·레자노프가쓴 체험기 책자 한권을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민으로부터 기증받고 이책에 기초, 작품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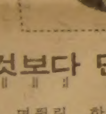
著者 레자노프는 캘리포니아부호의 딸인 콘치타라는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으나 황제의 명으로 露日戰爭에 참전키위해 귀국, 사랑은 열매를 맺지 못했었다。

오페라는 마지막에 기타로써 유향효과를 내는 가운데 출연자가 3박자의 빠른 「지그」춤에 할렐루야를 합창하게 된다。 이 작품은 앞으로 모스크바의 레닌극장의 레퍼터리로 수년간에 걸쳐 상연될 예정이다。

【모스크바AP=聯合】

文豪의 名言

幸田露伴 <1867~1947>



일본의小說家 隨筆家 學者。 본명成行(시게유끼)。 武士계급 출신다운 강한 精神主義者。 대표작 「風流佛」 「五重塔」 隨筆調史傳 「太公望」 등。

크고 높은것보다 먼저 사람이 되라

東西洋을 막론, 평소 심성이 천박한 爲人들은 남이 대신이 되거나 재상자리에라도 오르면 대단한것으로 아는듯, 자기또한 그같이 되고 싶어하며 그 백분의 천분의 만분의 1이라도 좋다생각하는 모양이나 그것이 곧 羨魚의 情이란것으로 羨은 맛있는것에 침흘리는것, 魚는 부러워하는것이며 羨魚의 情이란 한마디로 江가에 임해 즉각 고기를 탐내는것을 이른다。

× × ×

隨筆調史傳 「太公望」의 일절。 漫談調로 단숨에 써버릴 심산으로 쓴것이기에 오히려 맛이 더하는것 같다。

이귀절에서도 짐작이 가듯 幸田露伴(고오다·로한)은 학식이 깊어 中國古典은물론 印度佛典에서 취미오락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식을 갖춰 그같은 교양과 작품에서의 氣魄의 강도가 특징이 돼있다。

代表作「五重塔」은 작자 25세때의 것인데도 「文章의 雄勁함과 함께 措辭에 萬卷의 知識을 모아, 비유에 넘치며 氣勢웅약 筆力이 天空을 가듯하다」고 문학사가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偉人을 흉내 (높은·큰) 한 사람이 하는 것 같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 높은사람, 큰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은 탐탁치 않으며 어쩌면 한심하고 애처로운 교훈이다。

百人중 한 사람이 훌륭히 된다쳐도 나머지 99명은 그렇지못한 못난이가 되고만다。 이는 어려움을 남에게 責하는 不仁의 소리다。 거기다 훌륭한 사람조차도 반드시 세상을 아름답게는 못하며 자기를 행복하게도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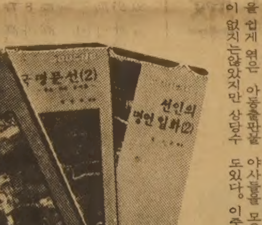
항차 훌륭히 못된자들, 허세만 부리는 껍데기 인간, 철없이 편체 날뛰는 무리들이 얼마나 세상을 흐리며 자신들을 불행케 하는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구름잡듯한 허황스런 가르침은 그렇잖아도 나래가 겨우 자라 바야흐로 雄飛하려는 젊은이들에 힘을 불어넣는것이어서 한때는 크게 도움이 될것같으나 나라의 젊이나 보리겉껍이 타오르자 마자 곧 꺼져버리는것 처럼 대개의 젊은이를 意氣는 곧 다(盡)해 버릴 것이다。

남는것은 바람앞에 한줌 안되는 재뿐。 크고 높이 되라는 것보다는 「착하게 되라」는 쪽이 좀더 확실하며 나쁜 결과가 덜할것이다。

「착하게 되라」는 것보다 나아가 「사람이 되라」는 편이 한층이 짙고 넓으며 심성 또한 넓고 두터워 백이면 백사람 모두에 따뜻한 마음을 기르게 하고 滋養을 풍족히 보내는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아동위한「민족문화문고」
「열두달 우리민속」등 8권나와



민족문화추진회는 어린이들에게 우리민족의 얼을 심어주기 위한 「민족문화문고」의 발행에 착수, 일차로 「위대한 우리선조」 「열두달 우리 민속」 「옛날 옛적에」 「한국명문선」등 8권을 내놨다。

이 문고는 이야기와 기록등 다양한 장르의 글로 돼있어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문화적유산을 다각도로 전할수있게돼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전설등을 쉽게 엮은 아동출판물이 없지는않았지만 상당수가 상업성을 의식하여 동화에만 편중된 셈이었다。

반면 공공기관이 낸것은 지나치게 주입식이어서 어린이들에게 외면당했다。

이에비해 이 문고는 한우근씨 (전서울대교수) 를 편찬위원장으로하고 김동욱교수 (연대) 박재규교수 (공주사대) 송지영 문예진흥원장 최영희 국사편찬위원장등 각계인사들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가지 소재를 확실한 고증아래 다루고있다。

그리고 고증된 범위내에서 박화목, 이호일등 문인들이 동원되어 재미있게 내용을 엮고있다。

이중 「열두달 우리민속」은 대보름이나 단오등 우리의 명절들이 생겨나게된 일화를 이야기체로 엮고있으며 「위대한 우리선조」는 을지문덕, 계백, 연개소문등 우리역사상의 위인들의 생애를 그린 것이다。

이문고에는 또조선초기와 중기에 이루어진 수필체의 야사들을 모은「대동야승」도 있다。 이중 「청파극담」은 성종대의 명신인 청파 이육이 쓴것으로 조선초기부터 당시까지의 여러인물이 남긴 일화와 기이한 이야기들이다。

한편 「대동야승」중의「秋江冷話」는 생육신의 한사람인 남효온이 세조와 성종시대에 자신이 직접 목격한바를 기록한것이며「병진정사록」은 임보신이 지은것으로 조선초기의 유명한 재상황희를 비롯한 20여명의언행, 문장, 일화등을간략하게기록한것이다。

流星의 賦 <148>

李炳注 作
李友範 畵

亡兆의 日月 ㉞

이 모든 일들은 계미년 9월까지에 있었던 일인데 10月 초 이이가 파주에서 올라와 이조판서와 대제학의 직을 사직했다。 그 자리에서 이이가 임금께 아뢴 말이 있다。

『박근원 송응개에 전연 사심이 없었다고는 할수 없으나 허물은 경망하여 일꾸미길 좋아한다는 것 뿐이고 재주 아까운 사람입니다。 결코 간사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세사람이 받은 견책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너그러운 처분을 내리시오소서。 비유컨대 열명이 도적질을 했는데 세사람만이 중죄를 입고 남은 7명은 아무 일도 없었던것과 같습니다。 그 3명을 귀양 보내지 않고 전리(田里)로 방귀(放歸)한다고해도 조정에 해독을 끼칠수는 없을겁니다。

같은죄를 짓고 3명만 중죄를 입었는데도 그 동류한 사람도 같은 죄를 받길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에게 의기(義氣)가 없다는 것이 자명(自明)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간사하지 않다는 것은 간사한 사람은 임금님의 의사를 엿보아 교묘하게 비위를 맞추며 야심을 이룩하려는 것인데 이사람들은 임금님의 뜻을 돌리지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생각을 고집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읍니다。

지금 서(西)를 옳다고 하는 자가 모두 군자가 아니며, 동(東)을 옳다고 하는 자가 반드시 모두 소인이 아닌 것입니다。 근래 연소한 이들이 조정 권세를 잡은지 30여년입니다。 물(物)이 극도에 가면 물극필반(物極必反)인 것인즉 지금은 마땅히 위에서 권력을 총람할 때입니다。 성혼이 올라오면 서로 또을수 있겠으나 이 사람을 어찌 올라오게 하겠읍니까。 지금 인재가 드문데 문사(文士) 중에 쓸만한 자로는 정여립(鄭汝立)이 있읍니다』

정여립의 이름이 나오자 임금은

『그 이름만을취해 어떻게 정여립을 쓸수있겠는가。 시험을해본 연후가 아니면 안될 것이라』

고했다。

이이는 말하는 도중

『한연이 광망하나 사형에 처하는것은 과합니다』

하는 대목이 있었다。 한연은 이이를 옹호하는 상소를낸 성균관생 유공신(成均館生 柳拱辰)등이 과거를 볼수없도록 계교를 꾸민 자이다。

이에 임금의 말은

『박근원은 임금의 주변에 인의 장막을 치는게 진나라의 간신 조고(趙高)와 같고 한연은 역시 진나라의 간신이었던 이사(李斯)와 같은 놈이아닌가』

그래도 이이는 그들을 관대하게 처분하라고 아뢰고 이어

『화평을 주장하는 이들은 전일의 삼사(三司) 사람들을 다 쓸만하다고 하지만 신의 의견으로는 그렇다간 의논이 다단하여 조정이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은 필지의 사실입니다』

임금은 이이의 의견을 좇아 성혼을 이조참판에, 김우옹을 이조참의에, 안자유를 대사헌에 임명하는 동시 이이의 사직을 만류했다。

이이, 성혼이 들어옴으로써 박순을 끼어 조정의 체제는 겨우 정상을 회복한 느낌으로 되었다。

비둘기사진 식자인쇄소

고급 인쇄를 원하시면 사진식자가 있는 비둘기 인쇄소를 찾으세요.

6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 : 493-8894 윤 종 대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863-9519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AU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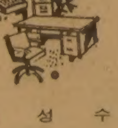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 LEASING • SALES • SERVICE • PARTS • BODYSHOP

PENDEX OFFICE PRODUCTS LTD.

Business Machines Stationery & Office

전자 CASH REGISTER할인판매



* 기타취급품목
● 각종 CABINET책상, 타자기,
● 각종 종이 테이프
● 사무용 학생용

FREE DEMONSTRATION 김 성 수

1436 QUEEN ST. WEST

☎ : 532-0111, 259-5820(R)

A. E. LEPAGE 부동산

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A.E. LePAGE

각종주택 투자관리
각종점포 매매알선
대지및 상가 대출안내

1174 ALBION RD. at ISLINGTON

B) 741-9170
R) 851-4717

DOUGI WOO 우 덕 이

KYOTO JAPANESE RESTAURANT

신장개업, 다양한 일본의 정통음식

뎀뿌라, 스시, 스끼야끼.

예약은 755-3010

영업시간 : 화~금 점심 12~2 : 30, 저녁 5~10 : 00

토~일 5~10 : 00(월요일 휴업)

주 소 : 1067 Midland Ave. Scarboro North of Eglington(오리올플라자내 무료 주차장)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도직 중국음식, 뱅킷, 파티에 알아서 원하는 대로 제공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 동부 :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인

입주하셔서 애들(2명) 봐주실분
가게 : 1－723－8632(오후5시까지)
집 : 1－571－0725(오후5시이후)
(콜렉·컬로 전화하십시요) MRS. 홍

룸·메이트 구함 : 여성에 한함
베더스트×듀폰
☎ : 531－5200 미스. 유(오후6시이후 연락)

급 구
주방헬퍼구함 628 BLOOR ST. W.
☎ : 536－0290
한 국 관

PHOTO SHOP에서 일하실 풀타임 구함
REXDALE지역
☎ : 486－6455

캐네디언 식당에서 일하실 용모단정한
미혼여성 웨이트레스 구합니다.
☎ : 362－3170 미스타 또는 미세스 리

일본식당 부엌에서 일하실분 구함
(오후3시~5시 사이)
☎ : 924－7501 459 CHURCH ST.
MICHI JAPANESE RESTAURANT

스토아 헬퍼 구함
●경험있는 스토아 캐쉬어 구함
●과일및 뒷일 해주실 분으로
VAN트럭이나 대형 왜건 가지신분 구함.
월수입 $1500.
☎ : 624－5817

급 구
20세에서 35세, 영어하실 수 있는
웨이트레스 구함
☎ : 224－1060, 221－1507

재봉사 약간명 모집
보통 공장에서 하는 일들이며, 또한 재단실에서
헬퍼하실분도 구합니다.
연락처 : 952 QUEEN ST. W. (오싱톤×퀸)

버라이어티 스토아에서 일할
경험있는 남자 헬퍼 구함
☎ : 532－6160

매매및 양도

타운하우스 매매 : 4 베드룸, 가격 : ₩62,500.
(DON MILLS × FINCH)
☎ : 491－3825, 27 SLENDER FERNWAY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 233－2576

벡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로타리오
☎ : 783－1984

콘도미니엄 매매
2 베드룸＋큰 리빙룸및 부엌 $57,000(협의가능)
냉장고, 스토브, 디쉬워셔.
HWY 427×RATHBURN 오후6시이후
☎ : 622－7162 미스타 리

GIFT & VARIETY STORE
연평균 주매상 $5000이상, 주 $300～$400
＋EXTRA인컴.
3200 ERINMILLS PARKWAY, 미시사가
(MILLWAY SHOPPING CENTRE, 1 BLOCK N. OF DUNDAS)

드라이빙 레스트랑 매매
새로 시작한 비즈네스이며 앞으로 발전성 있음.
가족 비즈네스 혹은 파트너 둘이 할 수 있음.
아스킹 : $185,000 IHOR DZIADYK
☎ : 763－5555
R. CHOLKAN CO. LTD. REALTOR

카페테리아 급매 :
5일 오픈
☎ : 532 : 5966(오후3시이후 전화바람) 미스타. 리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가게급매 : 주매상 $4000～$4500보장, 렌트 월 $600
(1 베드룸 포함), 리스2년＋4년 옵션, 가장 적당한 오퍼
자에게 양도코자 함. ☎ : 531－1067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격 $59,900, 주매상 $5,600, 렌트 $1,100
리스4년＋5년 옵션가능함 ☎ : 1－579－4507(WHITBY)

아파트단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4000, 리스 5년
☎ : 921－0034, 783－6464(오전10시～오후6시)

<매 매>
"가정 형편상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528 더프린 스트리트<자세한 것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 : 531－4165

브람리 하드웨어 비즈네스 매매
크기 : 1800sq. ft. 리스 : 긴 기간 다운페이먼트 :
$10,000, 장소 : 우수함.
주위에 경쟁할 가게 없고 새집들이 매일
들어서는 지역
연락처 : 630－5353 FRANK PERRONE
BELSTAR REALITY LTD.

성업중인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하드웨어 비즈네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는 절호의 기회임, 좋은 장소
좋은 장래성, 좋은 가격임.
전화 : 741－4520
CALL JOE

좋은 가격의 하우스 세일
개인세일 : 넓은 현대식 가옥, THORNHILL
에 있는 2층집, 방 네개, OAK으로 만든 용수철
식의 계단, WALK OUT베이스먼트, 화장실
4개, 벽난로 2개, 센트럴 에어콘디쇼닝,
현대식 조명장치및 등등 실지로 와서
보세요. 오픈하우스 오늘합니다.
☎ : 881－8436

렌트

세놓음 : 2 베드룸 베이스맨트
WARDEN×LAWRENCE
☎ : 751－9286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CALL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정 슨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검 부 원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미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악기점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인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한방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췌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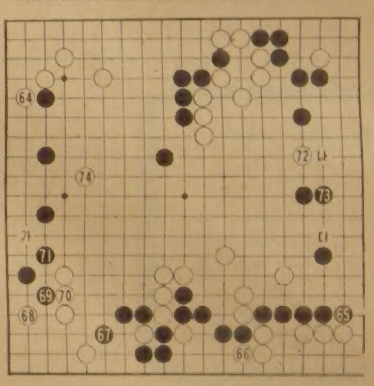
PICTURE FRAME WAREHOUSES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Tel. 746-2120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잗환영 ●현상, 인화, 확대

Can Am Coin Investments Ltd. － 25년간 경력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第12期 名人戰 挑戰5番棋

第4局 第6譜 64~74 (각 5시간, 덤 5집반)



白(名 人) 曺薰鉉<2勝1敗>
黑(挑戰者) 徐奉洙<1勝2敗>

峯군ー。 여태까지 수순을 쫓아가는데에만 열중하는바람에 소비시간따위를 소홀히했지만 까닭은 국면이 급속하게 가열돼가기 때문에 미처 소개할 겨를이없었네。

이바둑은 黑67까지된데서점심휴식。 여기까지 白은 1시간17분, 黑이 1시간45분을 소비했는데 이것은 속기가인 名人으로서 보기드문일이고 게다가 또 오후부터 白이黑의 소비시간을 앞지른뒤에 마지막에는 초읽기, 1분바둑으로 쫓기는 숨막히는 장면이 계속되었다네。

그전 뒤에 자연알게될테니 다시 수순을 따라가보세。

白64 최대의곳이 8분。 이만못지않은 黑65에 7분。 두어놓고보면 당연한점들이지만 특히 黑65의곳을 白에게 앗기는 날에는 이곳黑집이 어지없

白74 苦心의 一着

이 쥐어버리니 黑은 도저히 견딜수없는일。 해설자趙南哲8단은『아마추어들은 이런곳을 대수롭잖게 여기지만 프로는 여간 중요시하는게 아니다』고 강조하더군。

白66도 일견 평범하지만黑이어기를 박는것도 선수。 그래서名人은 66에다 시간 6분을 들이가며 차분히 두어갈 자세였다가 黑67때 白68이 멋진 타이밍이었네。

원래 이귀는 黑의선제공격으로 쑥밭이될지 모르는지경에 놓였었는데 오히려 白「가」의 침입을 노려서 黑71을강요했으니 상황이 일변한셈이지。 그리고 우변을 黑이지키기에앞서 白72。 이수는「나」자리까지 들어갈수도 있지만 72로도 다음白「다」를 노리며 黑73을 강요했으니 역시 名人의 날렵한 솜씨랄까。

하지만 峯군。 판세는 어느틈에 黑이 유리하게되어가는데 여기서 白74가 고심의 一着이었네。 【一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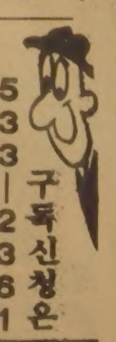
블론디 —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그래, 용건이 뭐지? 빨리 말해보게, 난 몹시 바쁘니까!"
"봉급인상 됩니까?" "안돼"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일이 빨리 끝나는구먼"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日84年부터 1만·5천·1천엔券 새紙幣

일본대장성이 1984년가을부터 流通시키겠다고 발표한 額面價가 다른3종류의새 지폐들 1만엔券과 5천엔券 1천엔券등<사진> 새지폐의 정면에는 모두 인물그림을 넣고있는데이들새지폐에는현재 사용중인 同額券보다 모두그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裏面에는 僞幣를 방지하기위한隱畵가 들어있다. 【27日東京=聯合】


구독신청은 533－2361

그림자놀이 ⑭

趙善作 禹慶熙畫 <165>

가까이 가자 그녀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대이시유?』

그의 말은 옳은듯했다. 살빛이 검게만 사십 대 중반의 아낙이었는데 그녀는 드러내놓고 나를 아래위로 훑어보았다.

『뭐 그다 아파 보이지도 않는구먼. 어디서 길을 잃었수?』

『산에서요』

『산엔 왜 올라갔는데?』

『그냥 울적해서였어요』

『쯧쯧… 밤새 산을 헤맸겠구랴』

그녀는 아궁이 앞까지 쌓아져 나온 불을 보고 다시 부엌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온 그녀가 말했다.

『좋있으면 돈서질거유. 들어가 쉬구랴. 근데 셈은누가 할 건가?』

『제가 하죠. 얼마 드리면 되죠? 저어, 그런데 여기서 오래 좀 쉬고 싶은데요. 보름이고 한달이고 오래 좀…』

그녀가 의아한시선으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내가 다시 말했다.

『휴양이 좀 필요해져서요』

『어디 아프우?』

그녀는 새삼스럽게 내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나는 얼핏 내가 한 말을후회했다.

그녀가 내 계획을 그에게 귀띔할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던 것이다. 결국은 그에게 알려질일이기는 했지만그래도 그런식으로 그에게 전해지는 것은 이롭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크게 아픈데는 없어요』라고, 나는 재빨리 말했다. 그런 다음 역시 정말로 멋쩍었다.

『아니, 오늘부터가 아니고요. 이 다음에 언제 직장에서 휴가를얻으면 말에요. 이런데서 얼마쯤 휴양을하면 퍽 좋을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슈. 하지만 미리 예약은 해야 하우. 두번 불편주고 하루에 삼천원씩 받아왔어요. 예약을 하고 오래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싸게해드리고…』

나는 백에서 삼천원을꺼내 그녀에게 주었다. 호기심을 발휘하는 일에는 염치가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녀가 뜻밖에도 돈을 받는 일에는 부끄러움을 탔다. 그런 그녀의부끄럼때문에 나는 그녀가 생각했던것처럼 그렇게 나쁜여자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한선생이 조반을 부탁하시던데… 이따가 내려오면 죽을 쑤어주라고…』

『네. 그런데 그분도 식사는 댁에서 하나요?』

『아뇨. 아주머니가 반찬서껀 모두 나르잖아요. 밥은 여기서 짓지만… 댁은 편찮으신 분이라니까 한끼만…』

아낙은 조금 웃어보이며 말했다. 그 웃음 뒤에 그녀가 풀지 못한 그와 나에 대한 의문들이 숨겨져 있는듯했다. 아마 그녀는 그의 방종한 사생활에 대해 소상하게 알고 있으며, 나에 관해서도 그의 변명을 때면 그대로는 믿지않는것 같았다.

아낙은 곧 산을 내려갔다.

집앞에 서서 착잡한 느낌으로 오솔길을 내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나는 뜻밖에도 그가 그의 오두막에서 나온것을 발견했다. 내가 선곳에서 그의 오두막은 보이지 않았지만 통나무를 쌓아놓은곳에는보였는데, 그는 한손에 하나씩 통나무를 들고 그의 오두막 쪽에서 공터위로 나온 것이다. 부인이 당도하기 전에 간밤에 일어났던 흔적들을 깨끗이 없애려는 그의 생각을 나는 손금을 보는 것처럼 빤히 들여다 보는 느낌이었다. 그가 그런 남자였다. 나는 그의 그런 소심함이 좀 분개스럽다가 끝내 귀여운 느낌까지 들었으며, 목까지 차오르는 웃음을 끝내는 참지 못하였다.

CENTRAL AUTO
-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김창세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智異山서 40명遭難

등산高校生 2명死亡
30여暴雨로 孤立 1명부상
急流에휘말려…百70명은 구조

【咸陽=聯合】 1일하오 2시30분께 경남 咸陽郡 馬川面 智異山일대에 쏟아진 폭우로 백무동에서 계곡을건너던 한영석군(19·裡里상고 3년) 박기학군(19) 등 2명이 급류에휩쓸려 숨지고 천경수군(19)은 중상을 입은채 구조됐으며 정희관군(19)등 3명은 계곡 건너쪽에 갇혀있다.

또 지난31일 쏟아진 폭우로 해발 1천m~1천6백m의 계곡쪽에 올라갔던 등산객 30여명이 조난당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백무동에 설치된 긴급구조본부에 따르면 31일새벽 4시부터 등산객 2백4명이 智異山의 한신계곡등으로 올라갔으나 급류로 길이 막혀 1일상오11시 智異山산악회장 정채근씨(37) 등이 지휘하는 구조반에의해 1백70명은 무사히 하산했다.

나머지 등산객들은 1일하오 5시 현재 해발1천6백m 장터목과 1천m고지 사이의 첫나들이 폭포근처에 갇혀있는데 물이계속불어나 구조가 불가능해 물이다소줄어든 이날하오 6시이후에야 구조가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31일저녁 韓國에 부임한 리처드·워커신임 美大使가 부인 셀리노여사와 함께 공항 귀빈실에 들어서고있다〉

워커美大使부임
韓美관계 誤解사라졌다
"協力할課題많아"

리처드·L·워커신임駐韓美國대사는 31일저녁 7시45분 부인셀리노여사와함께 KAL便으로 金浦공항着, 부임했다.

워커대사는 공항에서가진 회견을통해『韓美관계가 결코 지금보다 더가까왔던적은 없었다고생각하며 양국간의誤解가 이제는 모두사라졌다』고 말하고 全斗煥대통령의訪美와 이에따른 韓美공동성명이 이러한 두나라의관계발전에 큰보탬이됐다』고설명했다.

그는 이어 『두나라가 이제 第2世紀의관계에 접어듦에따라 서로각이 나눠가져야 할것과 공동으로해야할 많은 일들이있다』고전제, 『바야흐로 위대한기회의시대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워커대사는 在任중 가장力點을 둘 사항과 중요관심사에 관해 『상호협력이 내가 해야할 첫과제로 생각하며 안보와 평화는 영원한 관심사』라고 강조하고 『이밖에 많은 관심사중의 하나가 문화교류로서 본인은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기술과 음악과 ...

오늘부터 다시暴炎
태풍「오그던」弱化…30度 웃돌듯

8월들어 첫일요일인 2일 우리나라는 제10호태풍 오그던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후 다시 세력이 확장되는 북태평양 고기압권에 들지만 기층이 불안정해 전국이 가끔흐리고 곳에따라 소나기가 내린다. 그러나 기온은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고 중앙관상대가 1일 예보했다.

한편 관상대에의하면 태풍 오그던은 1일하오3시현재 백령도 남서쪽 50㎞해상(북위37도36분, 동경1백24도24분)에서 매시30㎞의 속도로 북서진하고있는데 점차 세력이 약화되고 이동속도가 빨라져 이날하오9시께는 중국 대련동쪽 1백30㎞지점인 압록강하류에 도착할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관상대는 이날하오 5시를 기해 서해남부해상에 내렸던 태풍주의보를 파랑주의보로 바꾸는한편 남서부해상의 파랑주의보를 해제했다.

急流에휘말려 관련
"日은 對韓經協강화해야"

南總理, 日중진言論人에 촉구

【東京31日AP=聯合】南悳祐국무총리는 31일 일본정부는 경제발전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과중한 국방비를 부담해야하는 한국의 실정을 감안,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고 일본의 교오도(共同)통신이 31일 보도했다.

南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교오도통신등 일본의 7개통신및 신문사의 중진언론인들과 만난자리에서『북괴의 군사력증강위협에 직면해있는 한국정부로서는 국민총생산(GNP)의 약6%를 국방비에 충당함으로써 경제와 경제발전에 과중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면서 그와같이 촉구했다고 교오도통신은 전했다.

스위스國慶日 맞아 全대통령 祝電보내

全斗煥대통령은 1일 제690회 국경일을맞은 스위스의 푸글러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

유엔「海洋法」회의 내일 제네바서再開

【제네바31日AFP=聯合】15년간 계속된 유엔海洋法회의가 오는3일 제네바에서 28일까지 4주간 예정으로 다시 열린다. 유엔해양법회의는 그동안 해양법안이 마련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마련된 해양법초안에 대한 美國의 반대로 개막과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질것으로 보인다.

財務委 이달中旬께 소집
3~4일께總務회담
敎育稅案공청회 論議

교육세 신설문제를 논의하기위해 民正黨이 국회財務委소집의사를 굳히고 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高在清民韓, 李東鎭 국민당총무가 교육세에 대한 각계의견청취를위해 공청회나 간담회개최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달중순께 재무위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따라 3黨총무들은 오는3~4일께 총무회담을 갖고 재무위소집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李鍾贊民正총무는 1일 내주초 총무회담을열어 재무위소집문제에관한 각당의 의견조정작업을 벌이겠다』면서 『재무위主管의 공청회나 공개간담회를 열기위해서도 재무위소집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무위 소집시기에 대해서 『정부의 교육세법안 마련, 재무위 해외 시찰단의귀국등으로 봐서 8월중순께가 될것같다』고 전망했다.

高在清民韓黨총무는 이날 財務委 소집엔 반대하나 교육세신설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중대事案임을 감안, 재무위주최 공청회나 간담회에는 응할생각이라고 밝혀 융통성을 보였으나 黨소속 국회재무위원들은 不參의사를 분명히해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당의 李東鎭총무는 이날 국회재무위소집문제에대해 따로 黨論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교육세신설문제는 중대事案이므로 常委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당의 李萬燮총재는 『先본회의 질의─後 상임위개최를 黨論으로 정하긴했으나 교육세新設이란 중대사를놓고 형식에만 구애될수도 없다』고 말해 교육세문제에 따른 常委개최에 긍정적인반응을 보였다.

3黨總長 4일會談

民正·民韓·국민등3黨사무총장들은 오는 4일께 회합을갖고 정당후원회구성문제등 정치자금조달방안을 협의할예정이다.

辛相佑民韓黨사무총장은 1일 權正達民正黨사무총장이 지난달30일 3黨총장회담을 갖겠다고말한것과 관련, 『오는4일께 모임을갖고 이문제에관해 전반적인 의견교환을 할생각』이라고 밝히고『이에 앞서 3일 정치자금조달에 대한 黨의 기본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정치자금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위해 각정당이 맡은바 責務를 수행하는 비용으로 정당별 규모에따라 共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함으로써 정치자금을 공동으로 募金한후 議席비율에 따라 배분하는방안을 추진할것을 주장했다.

"敎育稅신설 反對"
民韓결론 財源마련 11개代案 제시

民韓黨은 1일상오 정책심의회산하 財政·文公分科委 합동회의를열고 정부의 교육세신설을 반대키로 결론을내렸다.

國家保衛정책심의회의장주재로열린 이날 합동회의는 교육시설의 확충과 경상교육위해 교육財源의 필요성은인정하나 현재의 경제사정아래 국민의租稅부담을 가중시키는 교육세의신설은 부적당하다는 결론을내리고 교육재원확보위한 11개의 代案을제시, 정부가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것을 촉구했다.

▲民韓黨이 제시한 代案은 ▲5천8백억원(80년기준)에 달하는 租稅減免을 4천억원으로 축소조정▲인구의 도시집중억제책으로 만들어진 住民稅(81년도 1천2백50억)를 교육재원으로 轉用▲소비성, 展示性예산지출억제▲방만한 정부기구축소▲72년의 8·3조치로폐지됐던 지방교육재정 交付金의 부활▲5차5개년계획기간중 투융자에 최우선순위 책정▲受益者부담원칙에 의거, 학부모로부터 분담금을받아 교육재정으로 활용▲교육公債발행검토▲단계적 국유재산처분으로 교육재원확보▲GNP 6%에달하는 과다한국방부담축소등이다.

"舊正을 公休日로하자"
新正連休 하루줄여「農本節」로
국민당, 國會에 建議案제출

국민당은 1일 舊正을 公休日로 지정하고 舊正의 이름을「農本節」로 제정할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金永光의원외 23명의 소속의원들이 發議한 이 건의안은 음력설은 전통적 민족문화의 창달과 정신력의 함양, 그리고 충효사상의 고취라는 차원에서 조속히 公휴일로정하고 이를「農本節」이라는 이름의 全民族的 명절로 지정할것을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또 정책건의사항에서 舊正의 공휴일지정문제는 어디까지나 敬老사상보다는 愛農사상을 근간으로 검토할것과 新正3일간의 連休를 2일로 줄이고 대신 舊正을 공휴일로 하면서 2일간의 連休를 새로 지정하자고 주장했다.

국민당의원들은 敬祖의 예절과 忠孝사상은 추석과 어버이날및 李忠武公 탄신일등의 정부행사등에서 강조되고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舊正은 민족문화의 정통성확충과 農本사회구조에 관한 재인식이라는 새로운 측면에서 愛農사상에 바탕을두어 오늘날의 심각한 농촌문제를 발전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다루고자하는 心慮를 대변토록하자고촉구했다.

이건의안은 사실상으로 과세하고있는 음력설을 이제는 公休日化로 현실화, 국민의 쉴권리에 봉사하고 내면적인 국민단합, 都農간의 문화와 의식교류를 도모하는 훌륭한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海外여행自由化 첫날 旅券窓口는 滿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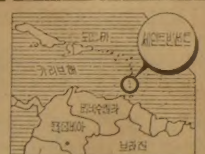
◇旅券제한이 풀렸다。夫婦동시여행이무제한 가능하고 여권의 單·複數개념도 사라졌다。내년 이맘때면 待望의 觀光여행도 가능해진다。가히 「여권行政」의 革命이 아닐수없다。旅行自由化실시 첫날인 1일, 서울太平路 旅券課에 殺到한 여권人波는 2천여명에 이르렀다。상오9시, 窓口가 열리면서부터 밀어닥친 旅券인파는 旅券課의 복도, 계단, 휴게실을 삼시간에 메워 토요일인 하오1시현재 평소의 4배가 넘는 2천1백件의 접수기록을 수립했다。

社會漫評

불볕더위가 계속되다보니…

세인트·빈센트國 케이토首相 訪韓
6일부터 6일間

◇케이토首相



中南美 카리브海上에 위치한 세인트·빈센트國의 로버트·밀튼·케이토首相이 南悳祐국무총리의 초청을받고 오는6일 訪韓한다고 1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케이토首相은 11일까지 6일간의 訪韓기간동안 全斗煥대통령을 예방하고 南총리를 비롯한 정부지도자들과 일련의 요담을 통해 양국간의 공동관심사와 우호협력증진방안을 협의할예정이며 국내산업시설도 아울러 시찰할 방침이다.

케이토수상은 부인을 동반하며 副수상겸 外務觀光相, 농업상공상, 수상실사무차관, 외무차관등도 수행한다.

세인트·빈센트國 — 카리브海의 미니國

지난79년10월 英國으로부터 독립한 카리브海域의 新生미니島嶼國으로 공식國號는 세인트·빈센트·앤드·더·그레나딘스。內閣책임제의 立憲君主國으로 면적은 釜山市와 비슷한 3백88㎢, 인구는 11만。1인당 국민소득은 4백85달러로 관광과 바나나수출이 주요 收入源。南北문제등 국제문제에서 非同盟중립路線과 제3세계와의 공동보조를 취하고있으며 정부는 지난한햇동안 농업원예용기계, 화물자동차등 6천달러상당을 수출했고 2만7천달러의 無償援助를 제공한바있다。

地平線

지난5월24일 저녁 미국의 덴버에서 있었던 일이다. 지휘봉을들고 신나게 교향악단을 지휘하던 게타노·들로구가 갑자기 돌아서서 소리쳤다.『난 어린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연주회장에선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이 덴버·심퍼니의 지휘자는 객석에서 어린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데 화가 치밀었던 것이다.▼들로구의 당돌한 행동에 객석에서 두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야만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휘자가 자기의「소리」를 그만큼 아끼는 것은 그만한 자부심과 집념이 있기 때문인 것은 틀림없다.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용납할수 없을만큼 혼신의 노력으로 만들어 내는「소리」가 없다면 아예 그런잡음에 신경조차 쓰지않을 것이다.▼로큰롤이나 디스코같은 팝음악의 본바닥인 줄로만 알기쉬운 미국의 여름은 온통 아름다운 고전음악의 세계다. 대도시에서 시골의 작은 읍에 이르기까지 신나는 야외음악의 축제가벌어지는게 이때다. 할리우드·볼이나, 보스턴·팝스, 그리고 센트럴·파크에 수십만의 남녀가 모여드는 뉴욕·필하머니의 야외연주회는 그 대표적 예다.▼유럽이건 미국이건 고전음악의 연주회에는 젊은이보다는 중년이상이 눈에 띄게 마련이다. 그러나 뙤약볕이 물러간 잔디위에서 모든남녀가 음악을 즐기는 야외음악 시즌은 역시 음악이 위대한 유럽문화의 한 기둥이라는걸 말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부자나라 미국에서도 교향악단은돈때문에 쩔쩔매고있다. 역시 팝음악처럼 상업성이 적은데다 엄청난 돈이 있어야 유지되기 때문이다.▼예를 들자면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심퍼니는 가을 시즌이 시작되기 전 까지 5백50만달러(약 38억원)를 민간 모금으로 거둬들여야 적자를모면할수있다는 계산이다. 이밖에 정부보조가 1백만달러(6억9천만원) 확보되고있다. 이런수준에 댈건 못되지만 우리 교향악단들이 소꿉장난에 지나지않는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해체된 국립교향악단의 한해 예산은 5억원이었기 때문이다.▼세계수준을 목표로내세우면서 국립교향악단이 8월1일 KBS교향악단으로 간판을 바꿨다. 예산도 껑충 뛰어서 20억원이 되고, 음악감독에게 모든 권한을 주기로했다한다. 또한 능력평가제에 따른 단원계약방식이나 외국트레이너의 초청등 야심적인 계획을 짜고있다한다. 우선은 양적이고 유능한 음악감독이 과연 누구냐에 성패가 달려있는것같다.

韓日 문화交流촉진 常設機構구성 계획
日、外相회담서

【東京1日=聯合】일본외무성은 오는20일 개최되는 한일외상회담을통해 양국간의 문화교류촉진을위한 정부간협의체 또는 민간중심의 문화교류위원회 구성을 제의할방침인 것으로 1일보도되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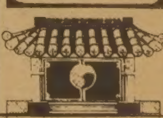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394
은 : 온스당 US 8.5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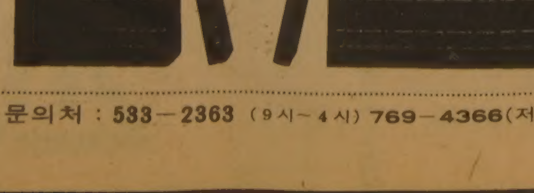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어디로 모실까요? IATA
모국방문 특별요금
요금 : 성인왕복 $1180+(세금) $12.50
어린이 왕복
(2~12세) $645+(세금) $6.25
출발일자 : 8월7, 14, 21, 28일
대한항공 뉴욕경유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 A BLOOR ST. W. TORONTO,
B) 535-8801 R) 293-9970
535-6004 최 동 주

World Book-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 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 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챠트 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533-2363 (9시~4시) 769-4366(저녁7시이후)

남북 外相회담 開幕

美·佛등 22國참가 非公開로

先進國무역·통화정책 重點논의

새國際經濟질서 수립

◇갓난아기 안고 가두示威하는 波女人 폴란드국민에게 더많은음식을 공급해달라며 가두시위를 벌이고있는 폴란드부녀자들의 모습。품안에 갓난아기를 안은 여인의 모습은 더욱 애처로운 생각을 더해주고있다. 【바로샤바31日AP電=聯】

【캔쿤(멕시코)31日AP=聯】 세계22개선진, 개도국외상들은 1일 멕시코의 캔쿤에서 빈부국간의 격차를 줄이고 국제적으로『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기위한 이른바 南北외상회담을 개막한다.

호르헤·카스타녜다 멕시코외상은 비공개로 열릴 이번 회담이 빈부국자의 ... 대화의 모임이 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앞서14개 개도국대표들은 이번외상회담에서 제3세계경제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는 선진권의 무역, 원조및통화정책을 중점논의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冷靜 못찾으면 破局초래"

波議會서 對國民 호소문

【바르샤바31日UPI특約=聯】 폴란드의회는 31일 식량기근사태와 관련한 자유노조의 파업경고가 나오고있는 가운데 경제담당부수상등 4명의 각료를 경질한 수상 야루젤스키 ...

대규모 上陸訓鍊 준비중

蘇海軍 발트海서

艦艇증가 波事態와 有關

【워싱턴31日AP=聯】 소련해군은 발트해연안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준비중이라고 미국방성의 한 정통한 소식통이 31일 말했다.

워싱턴스타紙 救出노력

베리2世 워싱턴 市長

【워싱턴30日AP=聯】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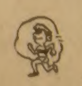
쿠데타 成敗 아직 不透明

갬비아政情혼미

【다카르1日AFP=聯】 ...

메아리

8월의 條理



◇1일 찰즈英國 왕태자부부를 싣고 지중해유람에 나선英國 왕실요트 브리태니아號가 31일 英國해군기지 지브롤터에 入港하고있다. 【지브롤터31日AP電=聯】

찰즈夫妻 超豪華版「요트蜜月」

브리태니아號 船體1백25m·5천7백69톤급

2週間 地中海여행…「움직이는海上宮殿」

船內엔 무도장·연회석과 헬機着陸도가능

士官生 3천5백명 탈주

아프간서 對反政軍전투參戰에 항의

【뉴델리31日AP=聯】 ...

오늘의 小史 <2일>

▲대한제국, 年號 隆熙로, 太子에 英親王	<1907>
▲日本·시베리아 出兵 선언	<1918>
▲독일관리에 관한 포츠담선언 발표	<1945>
▲英, 이란의 石油국유화 원칙 승인	<1951>
▲언론윤리위원회법안 국회통과	<1964>
▲컬러TV 시판개시	<1980>

波 經濟破局 回生 불가능

西方, 戒嚴통치우려 올借款상환 연기

굶주린示威…盟邦자처한蘇선 무관심

◇폴란드 공산당수 카니아(오른쪽)가 야루젤스키수상과 함께 날이갈수록 「불만의 계절」을 넘길 대책을 근심스럽게 숙의하고있다.

【崔相鎬기자】

팔 게릴라에「外人部隊」도

美·英·佛·伊등極左활동펴다가流入

순수한"PLO 人民解放이념"동조

◇팔레스타인 게릴라—싸움감하기 쉽게서 PLO에가담하는 유럽젊은 이들이 늘어간다.

【베이루트AP=聯】

인사이드

佛 미스터리「別莊살인」事件

일가족6명 잿더미…犯人은 國校교사

兩側, 極右 비밀경찰…政治스캔들飛火

◇SAC 살인사건 수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害毒의 악순환」…美殺虫劑

국내販禁藥 제3세계에 大量수출

美輸入식품에 다시묻어 農藥중독

◇농약중독의 악순환—미국내 販禁살충제를 뿌려서 제3세계에서 거둔 과일류가 미국으로 다시 흘러들어가 시비거리가 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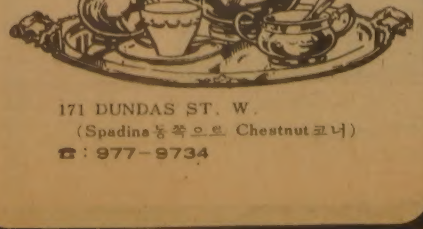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 4 AM
토~일 : 12PM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서울왕복 $1,180!
●여름철 SEAT SALE
●KAL뉴욕경유 귀환 자유

★방문초청 특별요금(초청장 작성)
★저렴한 국내선 요금(SKYBUS·CHARTER)
★월부·크레딧 카드 환영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김창범 536-2155·2156 (R)492-7525

왜 비싼가구를 삽니까

낡은 소파, 의자, 자동차 시트, 각종 가구등을 다시 새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오래된 물건이라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돈을 SAVE하는 길을 생각합시다.

가구재생 공장
TAYLOR'S QUALITY CHESTERFIELDS
536-1480
1009 DUPONT ST. TOR.
(DUPONT × DOVERCOURT)
한국일보사 옆건물

나의 이력서

〈題字·尹 致 暎〉

윤치영 ⑩

皇城基督靑年會시절

1908년開館…새知識·기술의 요람
英語·야구배우고 月南등 名士들만나

중학교시절 나에게 꿈과 미래와 희망을 일깨워준 皇城中央基督靑年會(YMCA)를 잊을수없다。정규학교인 중앙학교가 나에게 제1의 母校라면 YMCA는「제2의 학교」였다。

나뿐만아니라 1900年代초 韓國의 음울한 분위기속에서 YMCA는 서울장안의 청소년들에게 새지식과 文物, 그리고 기독교를 알게하는 요람이었다。

YMCA는 70~80년전 이땅의순하고 몽매한 새싹들의 앞을 비치는 등대인것이다。나는 중앙학교 시절 수업이 끝나면 영어수업과 야구하는 재미에 YMCA로 달려가곤했다。

한국YMCA는 1901년 YMCA국제위원회가 파견한 질레트(Philip L. Gillett·吉禮泰)가 來韓,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얻어 3년간의 사전준비끝에 1903년 10월28일 正회원28명과 9명의 準회원으로 출발했다。이때 선교사인 헐버트、언더우드、게일등과 呂炳鉉(培材학당교사)·金弼秀등 12명이 理事로 선출됐다。창립한지 한달후에 仁寺洞 舊泰華館에 임시회관을 차렸으나 협소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따라서 새회관을 건립키로 하고 募金운동에나서 국내에서 尹致昊 閔泳煥 韓圭卨 李允用 브라운(白卓安) 알렌(安連) 언더우드 헐버트등 정치인 외교관 선교사 은행가들의 성금에다 미국의 前체신장관이며 백화점王인 워너메이커의 巨金 보조로 1908년 延建坪 6백여평의 3층벽돌양옥을 세웠다。

당시 正領 玄興澤과 모간(毛艮)이 垈地를 쾌척하여 크게 칭송을받았다。

1907년11월7일定礎式에는高宗황제가 11세의 王世子, 즉 英親王을 현장에보내「一千九百七年」이란 머릿돌의 글을쓰게하고 1만원의 下賜金과 銀製 흙손두개를 내리셨다。1908년12월3일 개관식은 李完用총리대신과 이토(伊藤博文)등 각계인사 8백26명이참석한가운데 거행됐는데 사회자인 尹致昊부회장이 건축비를 기부한 워너메이커씨에게 謝意를 표하는 10분간의 연설을한결과 5천1백66원의 誠金이 즉석에서 거둬졌다。

黃玹이 梅天野錄에서『…그집은 높기가 산과같고 鐘峴의 천주교당과함께 남과북에 우뚝마주서서 장안의 제일큰집이되었다』고 말했듯이 종로통은 물론 서울의 名物이었다。YMCA는 종교·외국어실기교육과 스포츠의 요람답게 1층에는 5개木工室과 鐵工室 2개교실 5개의店舖 식당 목욕실이있고 2층에는 강당 체육실 친교실 사무실、3층에는 일반교실과 교직원실이자리잡았다。

YMCA에는 종교부、교육부(普夜間部、노동夜學部)、체육부、그리고 산업부산하에 家具 기계 양철 구두 전기 인쇄 사진분야로 나누어졌는데 밤낮으로 새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려는 청소년들로 만원을 이루었다。

청소년중에는 나같이 중학에다니면서 어학등을 배우려고 오는 축과 아예 기술을 습득하거나 운동을 하고 싶어 오는 축들도 각양각색이었다。

◇나의 재2의학교이자 1910年代 청소년들의 꿈과희망의모두였던 YMCA。

학교가 끝나 YMCA로가면 문에 들어서면서부터 활기로 가득찼다。교실마다 공부하는모습, 나무를 깎고 쇠와 양철을두드리는소리, 운동하는광경등 의욕과 젊음으로 충만했다。

나는 이곳에서 평생토록 정신적지주가되어온 月南 李商在, 霽南 李承晩선생을 처음으로 뵈었고 또 尤史 金奎植씨도 만났다。YMCA의 교사들도 모두가 志士요 스승이었다。그분들 역시 興國의 길은 오직 새싹들에대한 교육뿐이라며 성심껏 지도했고 학생들도 스승들의 가르침을하나도놓칠세라열심히공부했다。

당시 이곳교사진에는 李商在(종교부총무) 陸定洙(역사·지리) 李敎承(수학) 金仁湜(음악) 朴瑞陽(화학) 李源昌·李源祥형제(故李源喆박사형님) 白象圭·宋彦用·許城·李承晩·羅壽泳·李夏鍾등이 있었다。

지금은 거의가 他界했지만 YMCA시절 시인 樹州 卞榮魯와 음악가 洪蘭坡등과 가깝게 지냈다。具滋玉(前京畿지사) 李源容(前野球協고문) 등도 동창이다。

樹州와는 중앙학교동창인 竹馬故友로 장난도 많이하고 서로가 지기싫어하는 성격이어서 싸움도 자주했지만 이내 손을털고 마주웃곤했다。樹州는 이때 영어도 뛰어났는데다 文才를날려 그가「코스모스」라는 詩集을 냈을때 선교사인 게일이 좋은詩라며 미국으로 가져가기도했다。새지식과 체육의 보금처이자 日帝에대한 抵抗의 보루였던 YMCA건물이 6·25때 燒盡된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는일이다。

韓國庶民列伝

激動의近代를 살다간 偉大한 한국人들

점과 굿으로 이웃도운 義理의 화랭이

黃海道失鄕民에 "그리운 이름"

조선 무당 김기백

黃海道 실향민이면 누구나 김기백(1893?~1943)이란 남자무당을 안다。望鄕의그들에게는 고향[illegible]들이나 그립고 친근한이름이다。

그는 일자무식으로 평생을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 점치고 굿을 하다가 죽은 남자「화랭이」다。황해도 사람들은 그를「황치 무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황치」란「순하고 미련스럽게착하지만 한번 먹은 마음은 고집스럽게지켜나가는 황해도 남자」를 가리키는 속어。그는 일제하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을 단호히 거부하고「조선 무당 김기백」으로 살다가 맞아 죽었다。

김기백의 태어난 연대、장소는 정확히 알수 없다。그의 신딸인 무당禹玉珠씨(61)만이 1893년 黃海道 信川郡에서 태어나 7세때 甕津邑의 개울몰(室谷里)로 들어왔다고 증언할 뿐이다。

甕津군민들과 禹씨의 말이 일치하는것은 그가 아버지와 함께 당시 만석군인 南씨집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뿐。

아버지는 그가 어릴때 벼락맞아 죽었다고 한다。그는 신이 내릴때까지 들이나 산으로 소를 끌고 다니며 풀을 뜯어 먹이는 일을 했다。

14살때 들에서 소풀을 뜯다가 머리에 이상한 충격을 받고 기절한후부터 유식하고 영험한 말을 하게되었고「흥순호」라는 떡대(금맥 찾는 사람)에게 금맥을 알려주는 점을 처음친것이 들어맞아 이 소문이 옹진군 일대에 퍼지면서 박수로서의 명성을 얻게되었다。

15세때 마을어귀 개울가의 서포집(奉雨가 기거하는곳)을 주인에게 물려받고 여흥과 경복、본격적인 무속업을 시작했다。

옹진반도는 금이 많이나고 평야가 비옥한데다 바다에 접해 광산물 농산물 임산물 해산물이 풍부한 고장이다。특히 그가 살았던 곳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금광의하나인 秀岱광산、해주광산을 비롯 박막、은동광산등이 산재했다。

일제때는 한국의 금을 파내기 위해 日本광업이 수대광산을、미쓰비시광업이 해주광산을 인수、대규모적인 채금작업을 했다。또 전국에서 금에 미쳐서、혹은 취업을 하기위해 각양각색의 다혈질인간들이 옹진읍으로 몰려들어 살았다。

『기백이 무당은 당시 인기가 최고 였죠。금광인 수대광산을 비롯한 옹진군일대의 광산을 손에넣은 日本人들은 그의 점에따라 채굴했고 군소한국인 덕대들도 그의 신통한 금맥 점을 받기위해 개울집앞에서 노숙을했었으니까요』

6·25때 남하한 그의 신딸 禹玉珠씨의 회고이다。

그의 영험하다는「금맥 점」은 소먹이던 시절 눈으로 익혔던 풍수지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옹진군민도 있다。20세때 첫아들흥덕으로 잃고、21세때 둘째아들마저 잃은 그는「신의 벌이다」며 몹시 앓고 난 다음 다시는 금맥 점을 치지 않았다고 한다。

김기백은 그당시 황해도의 다른 무당처럼 재수굿이나、성주굿 대동굿등을 하지 않았다。죽은 넋을 위로하는진오기굿、넋굿에 전념했는데 이것은 두 아들의 죽음에서 연유된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광산들은 갱내안전시설이 엉망이라 광부의 죽음이 잦았고 바다에 나가 죽는 어부들도 많았다。그는 광부들을 위해서는 넋맞이굿을、어부들을 위해서는 넋건지굿을、평민들이 죽었을때는 진오기 굿을 해주었다。

특히 공수를 잘 주어서(만신이 죽은 사람의 뜻이라고 전하는 말)인기가 높았다。

그는 공수를 줄때 일본사람들의 욕을 많이했다。이때문에 옹진지서장은 그가 굿할때는 특별감시형사를 배치했었다。

옹진읍에서 2대째 수대광산광부로 있었다는 朴貞植씨(54·행정서사)는『황치무당은 일본순사가 배치된후에도 버젓하게 일본인 욕을해서당시 고리야마(郡山)란 지서장이 그를 잡아다가 심하게 캐린후 무복을찢어 장구·징·신칼등 굿도구와함께 불태워 버렸다고해요。그뒤 고리야마지서장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의부인이 황치무당에게 우환굿을해달라고 애걸을해서 병이 나았다는 일화가 있읍니다』라고 말한다。그는또 이일이 있은후부터 사람들은 그를 황치무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덧붙인다。

그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는 밤 한숟갈의 쌀을 받고도 수삼일씩 굿을 해주었다。일제가 1936년 神社참배를 강요하기 전까지는 옹진반도일대는 물론 어화도 소청도 대청도의 인근 도서지방및 연평도까지 굿을하러 다녔다고 한다。

그는 1938년 한국민들에대한 미나미총독의 신사참배강요가 가속화될때 쯤부터 그당시「노란병」이라 불리던 폐병을 앓기 시작했다。이때 그의신딸들이 감시하는日인들의 눈을 피하려 잠시 굿판을떠날 것을 권유했으나그는『일인이 굿을 미신이라고 못하게하고있는 때일수록 더욱 굿을 해야한다。우리나라 萬神이 日本神에게 질만큼 약하지않다』고 강변하면서 굿을강행했다。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 평생을 죽은 사람들의 넋을위로하는굿만 하다가 죽어간무당김기백。그가 넋굿을할때 연평도「환쟁이」가 그렸다는 40세때의 모습이다。

鑛夫와 漁夫들위한 넋굿에전념
굿통해 抗日…끝내 日警打殺돼

그는 여자처럼 곱사한외모와 가는몸매의 화랭이였으나 의지가굳었다。日人들은서민들을위해굿하는그를미워하다때리기는 했어도 감히 죽이지는 못했다。『고리야마 지서장의 일화가 옹진군일대에 전설처럼 퍼져있었던 탓도 있지만 금광에서 한국인광부가 죽었을경우 굿을 해주어야 사고가 적게난다고 굳게믿어 그에게 광산굿을 시키지 않을수 없었기 때문이지요』禹玉珠씨의 설명이다。

따라서 그는 1930년대末부터 그가 죽은 1943년까지 옹진군에서 가장 당당하게 한국인 행세를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1940년 2월 창씨개명의 바람이 분 후에도 萬神의 벌을 받는다며 일본이름 갖기를거부、그는「조선무당 김기백」으로 살았다。

폐병에 시달리던 그가 마지막 굿을 한 것은 1943년 8월。

신이내려 신병을앓던 朴貞植씨의 어머니 金龍女씨에게 신을지르는(신이내리지 못하도록하는것)굿을해준것이다。

그는 작두를타면서 다음과같은 피맺힌 절규로 공수를 주어서 신이내리는것을 막았다고한다。

『어화 따뜻한 부모情도놈과같이 받지 못하고。어화글월 한번 놈과같이 받지 못하고。

어화 팔자 운전해서 (기박해서) 귀신의 밥이 되어 만신이란 말이 웬말이냐。

이내 한평생 접처주고 굿해주며적선한것이 전부인데 남은것은왜놈의멍자국이냐。거품처럼 일어나 허망하게 스러지는 한평생。

저주가 내려질바에는 모든 귀신은이내몸에만내게하라』

그는 이굿을 한 직후 지서로 끌려간후 소식이 끊어졌다。사람들은「그가 매맞아 죽었을것으로추측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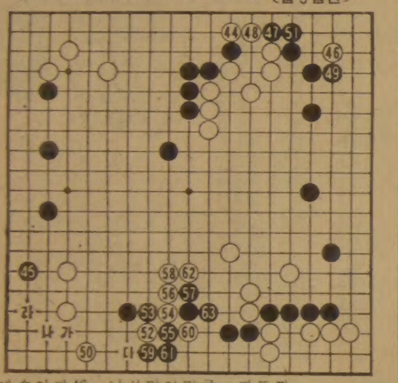
무당의 마누라인것이 부끄러워 평생을 감장자리로만 땅만보고다녔다는 그의 부인은 남편이 죽은후 목매달아 죽었다。

이들 부부의 소생인 딸「매몰」과 앉은뱅이였던 아들「칠성」은 어화도에살던 징할머니가 데리고가 키웠으나 딸은 6·25때 남하하다가 우물에 빠져죽었고、아들 칠성의 생존여부는 확인할길이 없다。

황치무당 김기백과 그의가족의 비참한죽음은 비운의역사속에 살아간 이나라 서민들속에서 쉽게 찾아볼수있는 삶과 죽음일는지모르지만 그것이 5천년역사속에 면면히 흘러온 민간신앙의 맥을이루고있다는 점에서 오늘의우리를 숙연케한다。【崔成子기자】

第12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4局 第5譜 45~63 (각5시간 덤5집반)



白(名 人) 曺薰鉉〈2勝1敗〉
黑(挑戰者) 徐奉洙〈1勝2敗〉

자세는 黑45를 어떻게생각하나。어쩌면「실리에 알뜰한 도전자의특기」또 혹은「좌하귀白에대한 선제공격」따위로 알고 무릎을치겠지。나도 그렇게 보고 再嘆三嘆했지만 국후에는 이론이 좋았었네。결론만 말하면『이黑45는 먼저 黑「가」로붙이는 형을 결정짓는 것이 수순』이란 말씀이야。그리고 좌하귀는 끝판에가서 승부가 여전되는 패싸움이 생길테니 기다려봐。

그런데 名人은 黑45를 외면하고白46으로 침입。밉지않겠지만 정말 번개처럼 두어놓더군。그래서 이건귀살이 수단일줄알았더니 실은 일종의응수타진이었네。그러니까 상대의 태도에 따라 귀삶이를하는것이지 그걸고집하는 뜻은 없으니 이경우도 하나의 보기랄까。

쌍방이 약간의 착오

여기서 국후검토때의 의견을 두가지만 소개하겠네。첫째 白50。이수는 내친걸음에 51자리를 둘어잠을만한데 그러면 黑은손을빼어「나」에 침입할까보아 50에선편한것이고 다음黑51。白이보류한 곳인만큼 일단 黑「다」로 보강하여 白으로하여금「라」로 귀를 지키게 한뒤 51이어야 견실했단 얘길세。그렇지만 불운도 전는 승산이있어서 실리부터 취한모양이지。

한편 名人은 갑자기 白50에서 52이하로 전투를개시했는데 이것이 조금 헸던 모양。하기야 白54로 뻗는기세가 등등했지만 결과적으로는 白62에 몰아막은 소득밖에 없었거든。

名人도 白54로는 그냥55、60으로 기어들어가 실리를 취해야 유리한줄을 모를리가 없을테니 이곳은 더이상 얘기거리로 삼지않고 귀추를 지켜보세。【一凡】

六堂 崔南善 遺稿 「建國의 指南針」발견

公州師大 河東鎬교수 공개

「光復의달」인 8월을 맞아 六堂 崔南善에「建國의 指南針」이란 遺稿가발견돼 관심을 모으고있다。

公州師大 河東鎬교수(書誌學)가 공개한 이遺稿는 六堂기념사업회에서 내놓은 六堂전집에도 빠져있다。河교수는 이遺稿를 1963년 서울寬勳洞 고서점에서 발견、간직해 왔는데 해방36년을앞두고 처음 공개한 것이다。

이 遺稿는「建國指針 亂史心鑑」이란 책자의 앞부분에 실려있는데 정부수립을앞두고 있던 1947년에 써、책자로 묶은 것이다。저자는 六堂 崔南善編·石溪 金文彬纂으로되어있다。1백66페이지에 菊版 크기로、1백66페이지중「建國의指南針」은14페이지에 불과하다。나머지 1백52페이지는 임진왜란사를 다룬「亂史心鑑」으로、이부분은 이미 사업회가 내놓은 六堂全集에도 들어있는것이다。河東鎬교수는「建國의 指南針」의 분량이적어「亂史心鑑」과 합철한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美濃紙에 毛筆로 빽빽이 草書한 이글은 六堂의 친서가아니고 書生이던 石溪가 寫筆한것으로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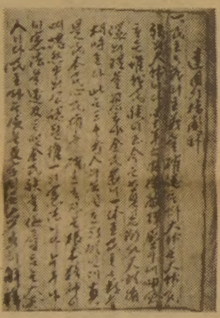
「建國의 指南針」은 전부 6개항목으로 나누어있다。

첫째항목「민주주의를 확인하라」에서는 民本·民心·民權의 확립을 주장했고둘째항목「英雄을 너무 믿지말라」에선 영웅보다는 다수의 인재가 필요하다는평등사상을 외치고 있다。

세째「黨派를 絶對抛棄하라」는 사색당파의 아픔을 되새겼고 네째「賣國賊을防備하자」는 일제시대의 자기입장을 설명한듯하다。

다섯째 항목「大韓魂을 잃지말라」에서는 6·25동란을 예견했고 여섯째「愛國者에 注意할 것」에서는 애국의 길을 제시했다。

六堂은 이 뒤에도 더 쓰려 했던듯。일곱째항목「통일건국의 一道를 회후로一言하노라」고 써내려가다 지워버렸다。河교수는『3·1운동때 우리민족의 나아 갈길을 제시한 독립선언서를 쓴 六堂이 해방후의 소용돌이속에서 건국이념및 방향을 제시했다는점에서 이遺稿의 의의를찾을수있다』고 말했다。【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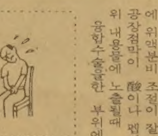


◇六堂 崔南善(1890~1957) ㊧과그의 遺稿「建國의指南針」。

現代人의 健康百科

空腸潰瘍

왼쪽 下腹部에 통증…확인후 手術을



空腸이란 십이지장에 계속된 소장의 일부를 뜻한다。공장궤양은 위와 십이지장궤양의 외과적 수술후에 위액분비 조절이 잘 안된다든지 공장점막이 酸이나 펩신을 함유한 위 내용물에 노출될때 일어난다。응합수술을한 부위에서 대략 1㎝아래쪽(遠心性係蹄)에 잘 생기는것이 특징이다。시기적으로 胃·空腸吻合術인 경우엔 3년、胃절제수술인 경우엔 10개월후에 주로 나타난다。수술한환자의 10%정도가 공장궤양으로 고생을 하게된다。이밖에 졸린거에리손증후군으로해서도 공장궤양이 나타날수있다。남자가 여자 보다 10배정도 많다。

소화성궤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나 통증이 보다 심한편이다。통증은 하복부 특히 좌측하복부에 많이 나타난다。통증은 음식과 관계없이 계속되면서 밤에 한층 심해진다。

공장궤양은 소화성궤양과 마찬가지로 穿孔이 일어날수 있다。천공이 되면 격심한 통증이 좌측복부에서 고환、옆구리와 등까지 뻗치게된다。

공장궤양은 대부분의 경우 내과적치료론 효험을 볼수 없다。따라서 일단 공장궤양이 확인되면 수술치료를 받아야 한다。

십이지장궤양 수술후엔 胃와 空腸및 大腸瘻孔현상이 나타나기도한다。이 누공은 위와 공장의 배출통로(횡행결장과 위·공장배출관사이)가 뚫어지는 현상이다。만성십이지장궤양 수술후에 비교적 잘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다。

주 증상은 역시 통증80%、정도에서는 설사를 보인다。심한경우 하루 80회정도 설사를하기도 한다。

환자에 따라서는 大腸 내용물이 위로 역류 대변을 토하기도 한다。심한 설사로해서 곧탈수증에 빠져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

대장X선 부시촬영으로 확진한수있다。위와 공장 및 대장 누공으로 확진되면 수술을 서둘러야한다。

설사가 심해 전해질과 수분불균형 상태가 되면 수술전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朴炅南【醫博·漢陽의대 내과교수】

모눈종이 위의 生 〈162〉

趙善作 作
禹慶熙 畵

그림자놀이 ⑦③

그 눈에는、그러나 아직도 갈등과 증오의 찌꺼기가 남아있었다。시선을 비키며 그가 말했다。

『왼쪽。집뒤로 해서 오솔길을 따라 가면 돼』

그에게 바래다줄 의사는없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는듯 벽에 기댄채 잠깐 서있었다。그러나 나는 그것이 분수에 넘치는 희망이라는사실을 알고 있었다。그는 계속해서 내게 완강한 모습의 등을 보인채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그가 꽁초에 새담배를 붙이려고 할즈음 나는 좀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밀었다。

그때 그가 말했다。

『주인 집에 아침 식사를 부탁해 두었어。우선 잠을 좀 자고…내려가면 죽을쑤어줄 거야。어딘지알아?』

오백미터쯤 아래에 떨어져있는 한석 지붕의 독립가옥(獨立家屋)을 떠올리며 나는 끄덕였다。

그가 내게서 시선을 걷어갔다。그리고 낮게 다시말했다。

『주인여자는 호기심이 강해。간밤에 산에서 길을잃은 모양이라고 했어』

아스피린을 얻으러가서 그는 그런 변명까지 해두었던 모양이었다。아침이면 아내가 올테고、주인 집의 여자와 그의 아내는 이웃에서 함께 산 경력까지 있는것이다。그런 그가 어떻게 노영지 등의 일행과 한밤중에 이곳에 들이닥쳤었던가 하는 의문이 얼핏 내게 일었다。게다가 노영지는 그가 이곳에 있을 때마다 가끔씩 들렀던 것으로 말했었다。나에 관한한 그가 필요 이상으로 결백한체 하려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에 나는 좀 마음이 상했다。그러나 아무래도좋았다。그가 이곳에 있는한 나는 돌아가지 않을것이며、그의 빈시간、부인이 찾아왔다가 돌아간 시간 중의 일부를 그와 함께 지내리라고、나는 생각했던 것이다。

더 주의할 말은 없느냐는듯이 나는 방문을 연 채 조금 더 서 있었다。그러나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나는 그의 방을 나왔다。

그의 방문을닫자 나는 그와 아주 멀리 떨어진 느낌이었다。육년동안 달려서 가까스로 도달한 곳으로부터 용수철의 튕기치는 힘에 의해 한꺼번에 육년전으로 되돌려진 듯한 허전함이 가슴에 파문을 일구었다。댓돌에 내신발이 없는 것은 더욱 그랬다。아스피린을 얻으러 나갔던 사이 그는 뒤쪽 창문 밑에 놓여진 내 신발을 앞에옮겨 놓아줄수도 있었다。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것이다。그런 그의 무신경 함은 그가 아직도 내게서 멀리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웅변으로 증거해 주었다。

나는 댓돌 밑의 슬리퍼를 끌고 굴욕의 느낌으로 집뒤로 갔다。통나무도 내 신발도 참 밑에 그대로 있었다。신발을 갈아 신으며 나는 통나무 두개를 본래의 자리로 옮겨 놓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슬리퍼만 앞쪽으로 옮기고 나는 그가 가르쳐준대로 위쪽 방갈로로 갔다。

그동안 산의 수목은 낙엽을 많이 떨구어서 시계(視界)가 훤해진 느낌이었다。내가 답사차 이곳에 왔을때와는 벌써 몇달의 시차(時差)가 있었던 것이다。그의 방갈로 뒤에서 몇 걸음 옮기지도 않았는데 그가 말한 방갈로의 초가 지붕이 나무가지 사이로 보였다。그리고또 조금 걸으니까 집의 몸체가 보였으며、부엌문을 들락날락하는 여자도 보였다。군불을 지피고있는 주인 집의 아낙인 모양이었다。

샘터의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 환영

디자이너 MR.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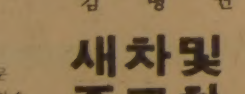
606 BLOOR ST. W.
☎ : 535-4441

NORTH YORK GM
CHEVROLET
OLDSMOBILE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병 권 올림

김 병 권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B) 881-5000, (R) 496-0954

제2회 도시별친선축구대회

저희 런던한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도시별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고져 하오니 바쁘신 중에라도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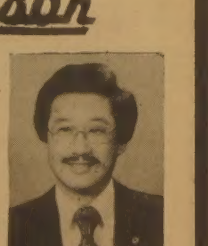
일 자 : 1981년 8월29일(토) 상오11시
장 소 : 기본스 · 파(GIBONS PARK)
등록마감 : 1981년 8월26일
주장회의 : 1981년 8월29일 상오9시 경기장
먼곳에서 오신팀은 경기시작 전까지 등록을 바랍니다.
시 상 품 : 1등우승컵및 트로피
2등 : 〃
3등 : 〃
연 락 처 : 하 광 용(1-519-473-5935)
강 상 권(1-519-432-5931)

주최 : 런 던 한 인 회
후원 : 토론토총영사관 · 런던동우회

런던지구한인회 회장 하 광 용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원 재 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전 북미주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GM의 신형모델 J2000가 애디슨에 나와 있읍니다. 각종외국 수입품보다 Engineering, Technology, Gas Mileage에서 월등하며 GM역사상 가장 센세이숀널 J2000를 시운전 해보시고 북미의 이 새로운 Feeling을 체험해 보세요.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

횡콩(香港)네 사람들

모두21곳 한국고객만 상대

이젠 商人들 스스로 自省기미…商街바꿔

가짜 속여판다 원망듣기도

교포상회

홍콩에 들르는 어느 여행객치고 빈가방만을 든채 떠났다는 얘기는 듣지못했다。

면세(免稅)지역인탓으로 세계의 유명상품이라면 없는게없고 값싼상품이 어딜가나 눈을 유혹하기 때문이다。

70년대초부터 한국인의 발길이 늘어나면서 홍콩에도 자연발생적으로 한국인상점이 생겨 이제는 모두21개소로 늘어났다。그들은 고객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간혹 홍콩현지인(중국인)을 점원으로 두는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온가족이 나서서 주로 한국고객만을 상대로 영업을한다。

교포상회에는 한국인여행객들이 주로찾는 상품들로 꽉차있다。

바바리코트에서부터 세무잠바、시계、혁대、화장품、선글라스、넥타이 그리고 중국약인 우황청심환、편자황、백봉환에다 일본약인 게브랄티가 있다。소형라디오와 카세트、라이터、장난감、심지어는 이 상품들을 담고갈수있는 가방까지 진열했다。 살물건이 없을만큼 종류도 많거니와 물건이 동이나면 2、3분내에 가져올수있는 상품보관소까지 갖추고있다。

몇년전만해도 한꺼번에 몇십명씩 단체여행객이 들이닥치는 날이면 하루매상액이 1천만원쯤 보통이었다는 교포상회。

그렇지만 이들은 때로 「동포를 속이는상인들」 「악랄하게 상품을 파는장사꾼」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홍콩하던 유명상품도 많거니와 그에못지않게 가짜가팔을치는곳으로 유명하다。

롤렉스시계 하면 98퍼센트가 가짜(홍콩제품)로 통한다。이미 오래됐고 크리스찬디오르、입생로랑、구찌、랑방、바리(구두) 할것없이 진짜보다 가짜가 더많은것으로 누구나 알게됐다。요즘 우리돈으로 쳐 1알에 1천원이 조금못되는 우황청심환 역시 엉터리가 많다。웅담(熊膽)하면 으레 소나돼지쓸개를내놓기 일쑤。

그러나 순진한 한국여행객은 별로의심하는일 없이 비싼달러를 후린다。

이미 옛말이 됐다지만 한동안 일부 교포상인들은 가짜인줄알면서도「진짜」를 강조했고 심지어 미니버스까지 제공하여 이곳저곳을 구경시킨뒤 떠날시간이 임박해서야 자기가게로 끌어들이는 상술을썼다。

비난이 쌓이자 2、3년전부터는 교포상인 스스로가 경영방침을 개선하는 기미도보인다。

자기들이 가짜인줄을 모르고 구입했다면 모르지만 알고있는한『이상품은 홍콩메이드예요』라고 밝히는경우를 볼수있다。【홍콩=金湧精기자】

◇홍콩의 商魂。【자보의 홍콩素描에서】

◇미국땅에 재현된 한국의 풍습

손자를 등에업고 양산을받쳐든 교포할머니가 유모차를끌며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가를 걸어가고있다。한국의 시골할머니를 연상케하는 모습과 머리위의 영어간판이 묘한 대조를이루고있다。【LA支社】

코리아타운 코리아타운

「美 遠征납치」 아이러니

빚받으러갔던 權씨등 起訴될듯

【뉴욕1日=權昇模기자】지난달20일 뉴욕서발생한 강선우씨「원정납치사건」은 본국에서 수배한 범법자라도 범인인도협정이 없는 외국으로 도피만 하면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교훈적 사건이었다。

뉴욕의 한인교포들은 본국에서 떼인 돈을 받기위해 이곳까지 좇아온 피해자 權五春씨가 납치범으로몰려 재판을 받고있고、부도를내고 도피한 강씨는 오히려 경찰의 보호를 받고있는 아이러니를 눈으로 보고있다。

퀸스의 뉴욕형사지법 피네건판사는 납치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온 권오춘、조한섭、남일씨의 3명에대한 예비심리를 29일 종결、1급납치 폭행등 혐의로 대배심에 넘겼다。

24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大陪審은 權씨등에대한 기소여부를 결정짓게 되는데 미국의 재판관례로보아 판사가 예심에서 혐의사실을 기각하지않고 대배심에 넘기면 대배심도 대개 혐의자들을 기소하게된다。

따라서 權씨등은 29일의 예심결과로 보아 유죄판결을받을 가능성이 높다。법원의 예비심리과정에서 강씨는 權씨등에게 납치되어 협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반면 權씨는 강씨가 부도를 내고 도주한 사람이기때문에 한국영사관으로 데리고가 영사입회하에 부도수표와 현금 6만달러를 교환하려 했다고주장、범죄행위가 되는지몰랐다고 항변했다。

權씨등의 범법여부는 최종판결과 밝혀지게된다。만일 權씨등이 미국경찰에 체포되지않고、계획대로 강씨를 한국영사앞으로 데리고 갔을경우 한국영사관이 과연 합법적이고 효력있는 조치를 취할수 있었을까도 의문으로남는다。

뉴욕 한국총영사관의 金世珍총영사는 공판이 진행중이던 7월27일 權씨등이 마치박으로 강씨를 데리고 찾아온곳이 총영사관이 있는 코리아센터빌딩 구내이며、당초 權씨에게 남일·조한섭등을 소개해준 사람이 그의 조카인 金正一씨라는 사실이 밝혀지자『총영사관은 이 사건과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총영사관은 아직 사건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않고있다。

강씨나 權씨는 모두 미국영주권자가 아닌 한국상용여권을 소지한 본국인이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별다른 해결방법이 없지만 본국정부를 대표한 총영사관이「강건너 불구경」하는식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이곳 교포들은 생각하고있다。

더구나 權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있는 남일씨는『이번일이 영사관에서 하는 일인줄 알고 안심하고 權씨를도와줬는데 결국이렇게 됐다』는 불평을 공공연히하고있어 영사관측을 머쓱 당황케 하고있다。

韓·美·中共3남매 36년만에 劇的상봉

시카고 누나、中共막내 초청

이젠 모두 할머니·할아버지

다시 이어진 血肉의 情 "꿈만 같다"

◇「누님 꿈만 같습니다」—22일 시카고오헤어공항에 내린 중공교포전명도씨㊧가 마중나온 누나응조씨㊥와 형성도씨㊨를 36년만에 극적으로만나 기뻐하고있다。

7월22일하오6시55분(현지시간) 시카고의 오헤어공항에 유나이티드·에얼라인소속 여객기1대가 미끄러져들어왔다。

잠시후 인민모에 중공인복장을 한 낯선 동양인남자가 두리번 거리며 출구로 나왔다。

환영객속에서 한국인할머니가 갑자기 뛰쳐나오며『어이고 명도야。네가 살아있다니…』울음섞인 목소리로 인민복의 남자를부둥켜안았다。36년만에 3남매의 극적상봉이 이루어졌다。

인민복차림을한남자는 중공에 살고있는 전명도씨(62)이고 마중나온 사람은 전씨의 누나 응조할머니(76)와 전씨의 형 성도할아버지였다。

3남매는 해방前시절의 모습은 간데 없고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얼굴을 마주 쳐다보며 옛모습을 더듬으려 애썼다。

당시 慶北安東郡西後面에서 아버지가 목사인 가정에서 태어난 3남매는 남달리 우의가 두터웠다。

한일합병후인 1928년 누나 응조씨는 平壤으로 출가했고 성도씨는 일본으로、막내 명도씨는 滿洲 吉林省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서로 헤어졌다。

공부를 마치고 경남昌邑에 돌아온 성도씨는 목사로 성직을 맡았고、명도씨는 滿洲에서 음악·체육교사가 되어 동포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8·15해방과 더불어 서로 소식이 끊겼다。

지난연말 釜山에 살고있던 성도할아버지는 뜻밖에 동생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여러손을 거치곤에 받은 꿈에그리던 동생이 혈육을 애타게 찾는 편지였다。

성도할아버지는 곧 미국에 체류하고있는 동생응조할머니에게 연락、방문초청장을 동생에게 보내도록했다。

현재 黑龍江省에 살고있는 동생은 마침내 미국입국비자를받아 미국행비행기에 올랐고 현성도할아버지도 동생을 만나기 위하여 미국에 온것이다。한국、미국、중공에 흩어져사는 3남매의 꿈같은상면이었다。

중공정부는 전명도씨에게 1년유효여권을 발급했고 미국이민국은 3개월간의 체류비자를 발행、이들의 재회를 도왔다。【시카고支社】

美교포 강배수씨 풀려

경찰銃擊혐의…검찰이 기소취하

속보=경찰에게 총기를 겨누었다고 하여「경찰에 대한 총기공격혐의」로 지난4월 로스앤젤레스경찰당국에 의해 기소되었던 재미교포 강배수씨는 7월23일 검찰이 기소를 취하함으로써 풀려났다。

강씨는 4월23일 하오6시30분께 자신이 경영하는 로스앤젤레스의 러커마키트에서 손님과 시비를 벌이던 흑인을 쫓기위해 권총을 들고 있다가 순찰중이던 로스앤젤레스경찰 뉴튼경찰서소속 사복수사관2명에게 4발의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은 뒤 거꾸로「경찰에 대한 총기공격혐의」로 기소됐었다。

만3개월만에 혐의를 벗은 강씨는『그동안 받아온 정신적 고통을 일시에 벗어난 느낌이다』고 기뻐했다。【로스앤젤레스支社】

記者의 눈

교포들의 契바람

契바람은 미국까지 수출돼 말썽을 부린다。로스앤젤레스 한인사회에 계사고가 빈번하자 그곳 경찰당국이 전면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계돈을 챙겨 도주하는 일종의 사기계가 출현、수사당국을 골머리를 앓게 한것이다。

교포치고 계안든 사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성스레 번진 한인사회의 계는 적게는 1천달러에서 최고 5만달러까지 규모가 커졌다。

이중 사고의 취약성을 가진것은 수만달러씩하는 고액계이다。

고액계의 계원들은 주로 햄버거가게、세탁소등 소규모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사업용의 목돈을 손에 쥐는게 목적이다。게다가 불황으로 인한 자금회전이나 은행대부등이 어려워질 경우 이를 만회키위해 계의 단위는 점점 커진다。계만 믿고 사업을 벌였다 경영이 잘안되는 경우 불입금조차 내지못해 계가 펑크나는 경우는 국내나 그곳이나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런경우를 미국의 사직당국이 어떠한 안목에서 다루느냐가 주목거리다。

계는 원래 공동사회의 가치기능과 이익사회의 殖利기능이 결합된 우리사회만이 가진 특수공동체이다。그바람은 인적 결합을 주내용으로 하고있다。상부상조를 목적으로한 계는 그러니까 한국인이 한자리에 모여 그속에서 훈훈한 생활의 요람이 될수도있다。

문제는 계가 은행밖에서 이뤄지는 금융행위이면서 현금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데 있다。현금은 범죄와 상관있거나 범죄를 자초하는것으로 보는 미국사회에서 사기계가 들통이나고 계가 깨지는 사태는 마치 한인사회에 범죄조직이라도 있는것처럼 오인을하기 십상이다。

오순도순 한인사회에 터진 몇몇 계사고는 美國이 코리아타운내 폭력조직이나 탈세가 있는가 [illegible] 조사를하고 있는것과 상관이 없진 않은 것 같다。【兪肇根기자·外信部】

韓·日高校야영대회

日本 히와다고원서

일본중부 기후켄(岐阜縣) 히와다(日和田)고원은 한낮의 폭염도 아랑곳없이 한국과 일본 젊은이들의 함성이 드높다。이곳엔 7월31일부터 두나라의 친선과 우호교류를 위한 고교생들의 야영대회가 벌어지고있다。【名古屋總局】

宇宙를 향한 산教育
우리는 꼬마 天文家

日食쫓는 눈길들 일식이 진행되는 동안 전국 도시의 아파트, 빌딩의 옥상이나 유리창에서 수많은 어린이, 시민들이 태양과 달이 펼치는 이 우주곡예를 관측했다。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은 불에 그슬린 유리조각이나 사진필름조각을 들고 달그림자에 서서히 먹혀들어가는 태양을 관측하면서 탄성을 지르기도 했다。또 아파트지역 주부들은 육안으로 태양을 쳐다볼수없자 대야에 먹물을 풀어, 먹물에 비친 태양을 들여다보며 자녀들에게 일식의 원리를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다。이날 일식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지방의 기온은 정오 33도2분이었으나 하오1시에는 32도8분으로 떨어졌는데 관상대는 일식으로 인해 일사량이 줄어든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뉴스

北傀休戰협정 위반 작년 8千2百여件

유엔에 報告書

【유엔本部31日聯】駐韓유엔군사령부는 북괴가 지난해 12월16일이전 12개월동안 저지른 유엔휴전협정위반사례가 8천1백여건에 달했다고 비난했다고 31일 미국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장앞으로 제출된 이 보고서는 작년한해동안의 유엔군사령부의 활동을 분석·검토하는 가운데 이같이 북괴의 휴전협정위반사례를 지적하고 그러나 한국은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의 규정들을 준수해 왔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지난27년간 군사정전위원회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간의 오해를 사전에 막아 새로운 적대행위를 막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金日成 70회生日 朝總聯 募金운동

【東京31日=聯】在日조총련은 최근 北傀 金正日의 지시에 따라 내년4월 金日成의 70회 생일을 목표로 50억엔이라는 거액의 모금운동을 전개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날조총련이 이른바「3배일 애국헌신운동」의 일환으로 벌여왔으나 최근 金正日이 40억엔 모금을 추가하도록 지시、50억엔모금운동을 전개중이라고 말했다。

50억엔은 15만~18만명、5만세대로 추산되는 조총련 1세대당 10만엔씩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충성경쟁을 강요당하고있는 조총련 동포가운데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洪時學 副首相취임

【東京1日=聯】北傀노동당중앙위원회서기 洪時學이 13명째의 부수상에 취임했음이 1일 밝혀졌다。

이날상오 東京에서 청취된 平壤방송에 의하면 洪은 31일 平壤을 방문한 아프리카의 베닌共和國공보선전상 아조우히호우를 부수상 자격으로 출영했다。

流星의 賦 <147>

亡兆의 日月 ㉝

李炳注作 李友範畵

모함을 위한 상소、참언으로만 된 상소、아첨을 목적으로한 상소、흉에 못이겨 한 상소、진실로 의(義)를 위한 상소、그야 말로 상소、상소、상소에 묻혀 싸여 선조는 술을 쉴 여가조차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도 선조는 그 모든 상소에 일단은 눈을 쏟았다。가위 총명한 군주라고 할 수 있었다。

가령 박제(朴濟)의 다음과 같은 상소

『김귀영은 전하께서 시비를 물으셨을때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정지연은 어진 이를 배척하고 악인의 편당에 붙었으며 송응개、허봉、박근원은 화를 만들어낸 매와 사냥개요、김후원、서인원、김응남、김첨、홍진은 화를 만들때 자극한 자들입니다。아신해는 바으로 송후한 체 하나 마음 속이 음흉하며 방숙일은 어진이를 방해하고、이기는 어질고 능한 이를 질투하며 김우굉은 음험 흉사(兇邪)하고、김귀영은 아부하여 구차하고 홍혼은 교사(巧邪)음흉하고、홍여순은 잔폭 폭려(暴戾)하고、이경률은 허망 사독(邪毒)하고 정희적은 완명 무식하고、우성전은 음험 추비(醜鄙)하고、이경은 흉완천로(兇頑淺露)하오니 청컨대 모두 귀양보내든가 외직으로 보내소서。그리고 김신원과 우준민은 이이가 성밖에 나가기도 전에 그배종하는 아전들을 빼앗았고、유대정은 공공연하게 큰소리로「이이、성혼의 머리를 대궐앞에 매단 연후에 시비를 정할수있다」고 하였는데 대정은 박근원의 문객이요 한연은 간흉의 자제이며 김우웅은 비록 학문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같으나 역시 그 형을 닮아 옳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노수신은 절을 변하여 간당(奸黨)에 붙었는데 오직 안민하만이 효우독행(孝友篤行)하는 선비로서 밝고 개결합니다』

이와같은 것까지 읽고 선조는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털어 놓은것 같으나 지극히 망령되다』

고 노기를 삼켰다。

선조는 무슨 반대가 있더라도 이이를 다시 등용할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때 판서(判書)에 결원이 생겼다。

선조는 이이를 이조판서에 임명했다。그러자 안자유(安自裕)가

『판서는 반드시 대신이 천거하여야 하는 것인데 아무도 이이를 천거하지 않으니 곤란합니다』

하고 의견을 아뢰었다。

고 임금은 단호했다。

『쓸만한 사람을 내가 쓰는것인데 무슨 말이 많으냐』

그러자 또 사간원에서 말썽을 일으켰다。장수를 쏘려면 먼저 말을 쏜다는 격으로 정철을 씹기 시작했다。

『조정의 혼란한 일반의 책임이 정철에게 있다』

는 것으로 정철을 두둔하는 이이가 다시등장하면 더욱 혼란이 일것이란 언외(言外)의 뜻을 풍긴 것이었다。

임금은 이 경우에도 단호했다。

『정철의 맑고 충성됨과 그절의는 참으로 조정의 반열에선 하나의 독수리요、전상(殿上)의 맹호(猛虎)이다。만일 정철에게 죄를 준다면 이는 주운(朱雲)을 목 베어야 한다는 뜻으로 된다』

그리곤 무슨 말을 해도 임금은 듣지 않았다。

소년한국 비둘기記者 34명

美 해외취재·見學 길 떠나

자매지 소년한국일보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미국에 파견하는 제3차 소년한국비둘기기자 해외취재및 견학단(인솔단장 소년한국일보 在均취재부장) 일행37명이 1일 하오9시30분 대한항공편으로 김포공항을 떠났다。

지도자 3명과 培材中1학년 林成昊군등 학생기자 34명으로 조직된 이들은 23일동안 미국에 머물며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및 하와이등 여러곳을 견학취재하여 소년한국일보에 컬러특집 기사로 보도하게 된다。

日에 한글뉴스提供 聯合통신 어제부터

聯合通信은 1일부터 日本지역에 대한 한글뉴스서비스를 개시했다。매일 텔레프린터로 송신되는 한글뉴스는 東京의 新亞통신을 통해 日本語로 번역、日本내 주요신문에 제공되며 在日한국기관에는 한글로 배부된다。

아 세 아 선 물 센 타

SUMMER GRAND SALE (기간 : 81년7월15일~8월31일까지)

북경우황청심환 40% OFF	인삼녹용환 백봉환 40% OFF	당뇨병 특효약 옥천환 30% OFF	중국 길림산 녹용 3 BRANCHS 40% OFF
카나다 산 웅담 40% OFF	여행용 가방 삼손 나이트 30% OFF	물개, 뱀가죽 백 30% OFF	남녀청바지 $16.99
고급펜 크로스 30% OFF	피에르 · 카르뎅 와이샤스 30% OFF	피에르 · 카르뎅 벨트 30% OFF	기타 : 게브랄티 비타민, 전기다리미, 고급화장품등등

678 BLOOR ST.W. (고려식품 옆)

☎ : 530—0522, 3 조 지 섭, 김 영 철

光州一 大鵬旗 4강 선착

中央高에 3-1로 역전승

에이스車東哲7安打로막아

내일群商·心石綜승자와 결승진출 대결

【大邱=聯合】光州一高가 제3회 大鵬旗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4強에 선착했다。1일 大邱시민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 5일째 준준결승에서 光州一高는 에이스 車東哲이 中央高 타봉을 7안타 1실점으로 막으며 완투하는 한편 3회말 4번 李淵守의 중희비로(中犧飛) 결승타점을 올려 3-1로 역전승、3일 群山商高-心石綜高승자와 결승진출권을 겨루게 되었다。

中央高는 1회초 선두 盧承玫의 우전안타、2번 朴相益의 보내기번트、2死루 4번 曺在煥의 포볼로 이룬 1·3루의 찬스에서 3루주자 盧承玫가 홈스틸에 성공、선제 1점을 기록했다。

中央高는 총 안타수에서도 7-5의 우세를 보였다。

光州高도 2회말 5번 尹漢奎의 포볼에 이어 7번 全永龍의 우중월적시 3루타로 1-1동점을 만들고 3회말 2四死球와희생타로 이룬 1死1·3루의 찬스에서 4번 李淵守의 희생플라이로 2-1의 역전、결승점을 올렸다。光州一高는 7회말 2안타 1희타로 1점을 추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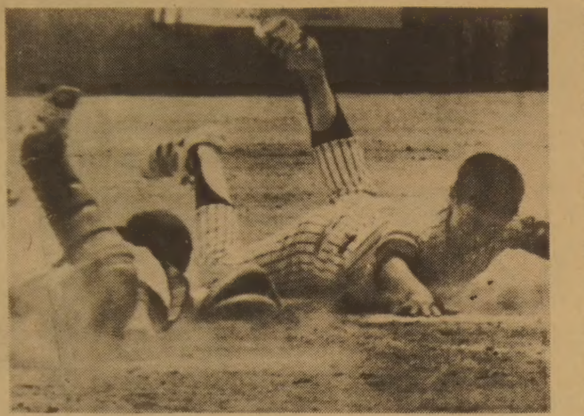
◇제5일 준준결승

중앙고	100	000	000	1
광주일고	011	000	10×	3

◇제4일 2회전

휘문고	000	000	000	0
군산상	000	410	00×	5
세광고	040	001	0	5
대구상	011	400	×	6

〈7회말 콜드게임〉



◇역전 홈슬라이딩 8強을 가리는 眞興—全州高전。1—0으로 뒤지던 眞興2회초 2死만루찬스에서 폭투로 3루주자에이어 2루주자까지 홈에 슬라이딩,아슬아슬하게 살아 2—1로 역전시켰다。【釜山=聯合】

光州眞興高 8강합류

화랑기 고교야구 金正洙역투…全州高눌러

【釜山=聯合】光州眞興高가 제33회화랑대기쟁탈전국고교야구대회 8강대열에 마지막으로 올랐다。眞興高는 1일釜山구덕운동장에서 속행된 대회5일째 2회전경기에서 좌완金正洙가 완투하며 全州高를 8-6으로 눌러 준준결승서 浦鐵工高와 겨루게 됐다。

4회까지 3-3으로 팽팽히 맞선 이날경기서 眞興은 5회초 투수 金正洙의 우월솔로홈런에이어 7번 吳貴燮의 적시2루타、8번 朴秉俊의 결승2점홈런등으로 4점을 보태 全州高의 종반 추격을 뿌리치고 2점차로 승리했다。

전날 경기서 홈팀 慶南高는 4번 田應天의 3점홈런등으로 大光高에 7회콜드게임 10-2로 승리、信一高와 8강전을 벌이게 됐다。

◇제5일 전적

▲2회전

진흥고	030	041	000	8
전주고	110	101	002	6

▲홈런=金正洙(5회초) 朴秉俊(5회초·2점) 姜豐遠(6회초·이상진흥)

◇제4일전적

▲2회전

경남고	501	301	0	10
대광고	000	020	0	2

〈7회콜드게임〉

▲홈런=田應天(4회초·3점)

핸드볼 男女대표

대한핸드볼협회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82년 西獨서 열리는 제10회남자핸드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지역 예선(9월·日本개최예정)과 제3회 여자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10월·캐나다)에 출전할 대표선수 31명(남15·여16명)을 선발했다。

◇남자대표 ▲감독=金昌勳 ▲코치=柳在忠 ▲선수=朴秉洪 徐雨錫 崔太燮 李相孝 姜泰求 林英喆 孫龍一 姜德壽 金良鉉 成永俊 片滿範 鄭容昊 金亨國 鄭東鎭

◇여자선수단 ▲감독=成鍾元 ▲코치=李正齡 ▲선수=柳京美 崔銀榮 金貞任 金美淑 金貴順 金光玉 張玉粉 尹秉順 李鍾禮 成京花 金名順 李桂順 金賢淑 金正富 李順伊 金美玉

朴利熙1승1패 월드컵탁구대회

【콸라룸푸르1日AP聯合】31일 이곳에서 벌어진 제2회 월드·컵탁구대회 이틀째 B조경기에서 朴利熙는 체코의 밀란·올로스키에게 21-15、21-18로 패배、1승1패를 기록했다。한편 세계선수권자인 中共의 郭躍華도 뜻밖에 폴란드의 안드레제·그루바에 22-20、11-21、18-21로 졌다。

◇제2일전적

▲A조 그루바 2-1 郭躍華

아펠그런 2-0 찐케위치

▲B조 클람파 2-0 선메이

올로스키 2-0 朴利熙

▲C조 프랑카 2-0 구메다

謝賽克 2-0 요니에르

▲D조 施元浩 2-0 코사노빅

오노 2-0 타이롱케

啓聖高 2연승 기록

中高축구 信興實·天安農은 비겨

【議政府=千一平기자】啓聖高는 1일 議政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19회추계중고축구연맹전 5일째경기에서 慶元高를 2-1로물리치고 16조에서 2연승을 기록했다。啓聖은강호永登浦工高(1승)와16강이겨루는결승토너먼트 진출권을놓고 맞서게된다。

1조의 信興實高는 天安農高와맞서 우세한경기를 펼쳤으나 득점빈곤으로 0-0으로 비겼다。

전날 鶴城高는 朴光石의 2골과 金東輝 河德敏이 한골씩넣어 培材高를 4-0으로 대파하고 3팀으로편성된 7조에서 2승을 올려 결선에 진출했다。

啓聖—慶元대전의 승부는 전반에서 판가름이 났다。전반 6분 啓聖은 키1m84의 장신FW 李洙權의수훈으로 선제골을뽑고 5분후 또한골을 추가、결승골을 기록했다。

李洙權은 미드필드왼쪽에서 치고들어가 페널티에리어 왼쪽20m지점에서 중거리 슛을 멋지게 성공시켰다。慶元은 전반37분 徐允錫이 득점으로 1골을 만회했다。

◇제5일전적

▲고등부16조

계성고 2(2-1 0-0)1 경원고 (2승)(3패)

▲동1조

신흥실고 0(0-0 0-0)0 천안농고 (1무)(1무1패)

◇제4일전적

▲동13조

안양공고 2(1-0 1-0)0 경성고교 (1승)(1패)

▲고등부14조

영남상고 2(0-0 2-1)1 춘천고교 (1승1패)(1패)

▲동7조

울산학성 4(1-0 3-0)0 배재고교 (2승)(1패)

第一合纖·一毛남녀팀결단식

아랍및 東南亞탁구대회참가

아랍 및 동남아순방친선탁구대회에 참가하는 第一合纖·第一毛織 남녀 탁구선수단이 1일 상오10시 체육회관 강당에서 결단식을 가졌다。국내 실업정상급인 이들 남녀팀은 오는5일 출국、7일부터 13일까지 아랍친선대회에 참가하고 귀로에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臺灣、日本을 순방、친선경기를 갖는다。

U大會 선수환영

내일 金浦空港서

대한체육회는 81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출전 한국선수단의 환영식을 오는3일하오8시30분 金浦공항광장에서 갖는다。

한국선수단은 이번 대회서 은메달1개、동메달4개를따내 종합20위의 성적을 냈다。

1회 월드게임

한국、태권도서 金9개

金貞國·李埈傑·金英國·吳日男도 우승

【샌타클래라=聯合】한국은1일(한국시간) 이곳서 열린 제1회 월드게임 최종일 태권도경기에서 금메달 4개를 추가、총10체급에서 금메달 9개 은메달1개로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다。

한국은 웰터급의 金貞國이 KO승을 거두고 우승한것을 비롯、페더급 李埈傑、라이트급 金英國、라이트미들급 吳日男이 각각 판정으로 우승했다。

웰터급 金貞國은 이날 샌타클래라 체육관에서 벌어진 결승서 원발내려찍기로 아르헨티나의 폴을 2회 KO로 제압했으며 라이트급 金英國은 美國의 알폰소를 맞아 날카로운 올려차기등 다양한 공세로 2、3회에 알폰소를 3차례 다운시키고 일방적인 판정승을 거뒀다。

◇최종일 전적

▲페더급 결승전 李埈傑 판정 바르샤(스페인)

▲라이트급 金英國 판정 알폰소(미국)

▲웰터급 金貞國 2회KO 폴(아르헨티나)

▲라이트미들급 吳日男 판정 김철회(미국)

五輪 나고야서개최 IOC41~42%찬성

【東京31日=聯合】88년하계올림픽유치를 둘러싸고 서울과 경쟁중인 日本 나고야(名古屋)시 관계자는 31일『지금까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83명가운데 41~80명정도와 접촉한 결과 41명이 나고야에 투표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아이찌(愛知)縣의회에서『나머지 위원가운데 12~13명도 거의 나고야찬성파』라고 말해 88년올림픽의 나고야개최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清州中央女高 패권

小崗盃테니스서 朝大附高 3-0완파

제9회 小崗盃 전국중·고대항 테니스대회가 1일 장충코트에서 폐막、여고부결승에서 清州中央女高가 朝大附高를 3-0으로 완파、4년만에 대회패권을 되찾았다。

◇최종일전적

▲여중부결승 서울중앙 3-2 안양서

▲여고부결승 청주중앙 3-0 조대부속

朴鍾八·李商虎 오늘 라이벌대결

프로복싱 동양 태평양권투연맹(OPBF) 미들급 챔피언인 朴鍾八과 동급 한국챔피언 李商虎간의 라이벌대결(12회전)이 2일하오 文化체육관서 열린다。

한국남자팀 최하위 臺北존즈盃 농구서

【臺北31日AP=聯合】한국남자팀은 31일 끝난 제5회 존즈盃쟁탈 최종일 뉴질랜드와의 대전서 75-67로 완패、1승6패로 自由中國팀、뉴질랜드와 함께 동률을 기록했으나 골득실차에서 뒤져 최하위인8위를차지했다。

필리핀은 自由中國팀을 74-44로 대파、7전 전승으로 우승했다。

◇최종일전적

뉴질랜드 75(35-28 40-39)67 한국

필리핀 74(29-18 45-26)44 자유중국

스웨덴 108(63-58 45-42)100 미국

▲최종순위 ①필리핀 7승 ②스웨덴 5승2패 ③프랑스 5승2패(이상 승자승) ④미국 3승4패 ⑤캐나다 2승5패 ⑥자유중국 1승6패 ⑦뉴질랜드 1승6패 ⑧한국 1승6패(이상골득실차)

'81 鳳凰大旗 인고교로 ⑥〈서울〉

전국49팀 強訓현장 올해의 스타는…

朴魯俊·金健友지닌 善隣商이 서울勢기수

信一 李載弘投打에 큰기대

冲岩의 기동력·中央타력 무시못해

培材 작년준우승주축李起昊등건재

흔히 서울軍團이라고 말한다。전국 50개야구팀중 3분의1이 넘는 18개팀을 가졌기때문이다。善隣商高와 같은 전통깊은 정예부대도 있고 德壽商高와같은 신설팀도 있다。오히려 너무 많은 팀을 가진 것이 서울의 고민이라는 사람도 많다。인구 8백만이 넘는 대도시지만 18개팀을 고루 살찌울만큼 충분한 선수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이다。

서울의 대부분팀들은 釜山이나 大邱、光州、群山등 소수정예의 밭아래서 기를 펴지 못하고있다。한때 웅성했던 京東高나 城南高를 비롯하여 수많은팀들이 전국무대진출을 위한 경쟁에 큰 시련을 겪고있다。

서울軍團의 기수는 善隣商高。69년 朴俊英의 전성기이후 10년동안의 침묵을 깨뜨리고 79년부터 전국무대를 휩쓸기시작、80년에는 청룡기와 황금사자기를 석권했다。

善隣商高의 무서운 힘은 投·打의 핵을 이루고있는 두 슈퍼 스타 朴魯俊과 金健友로부터 비롯된다。비교적 작은 체구지만 다부진 몸매의 金健友는 善隣商高가 위기를 맞을때마다 마운드에 올라 묵직한 직구와 슬라이더로 볼을 꺼준다。

3루수로서의 수비도 완벽하며 1루송구는 총알같이 빠르고 정확하다。

金健友의 진면목은 날카로운 배팅에서 나타난다。어떠한 투수、어떠한 구질의 투구라도 재빨리 파악、정확한 배팅을 보여 2학년때인 지난해 고교타자의 최고영예인 李榮敏타격상을 받았다。

朴魯俊역시 投·打에 고루 뛰어난 선수。지난해에는 우익수로대기하다가 羅成國을 도와 구원투수로활약했으며 금년시즌에는 金健友와함께투수로 힘을 쏟고있다。왼손에서 뻗어나오는 슈트와슬라이더는 위력적。더구나 결정적인 찬스에서 적시타를 날려 팀공헌도가 높다。1학년때인 79년 대통령盃 우승의 주역으로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善隣은 그밖에도 李敬宰 趙永一、金雄大등 좋은기량의 선수들을 보유해 공·수에서 가장 짜임새있는 우승후보다。

선두 善隣商高를 쫓는 信一高는 국내최장신투수 李載弘을 보유、李의 연투에 큰 기대를 걸고있다。청소년대표로 출전했던 李載弘은 시즌초반보다 투구에한층 자신을 갖게 돼 활약이 예상된다。재치있는 유격수 閔庚三、강타력을 가진 포수 徐孝仁、1루수 張光一와야수 崔炳薰등이 팀의주축。李載弘의「한방」도 무시할수 없다。

信一의 또하나의 강점은 야구이론에 밝은 金星根감독의 작전지휘。그의 손으로 다듬은 信一의 아기자기한 플레이가 기대된다。

金星根감독과 자리를 맞바꿔 화제를 모았던 韓東和감독의 冲岩高도 韓감독의 옛 선수시절을 연상케하는 기동력있는 플레이로 선전을 다짐하고있다。77년 鳳凰大旗를 차지했던 우완 奇世峰에못지않게 좋은 左腕투수 金起範을 가지고있다。

1년생인 金은 슬라이더와 커브가 예리하다。

尹參龍·金永洙 배터리가 활약하면 전성기에비해 다소 처진 느낌이나 中央高도 서울勢의 선두그룹에끼어있다。吳成珪·盧承玫·金永鎭등의 타격이 돋보인다。빠르고 무거운 구질의 우완 尹亨穀、컨트롤과 볼배합이 뛰어난 좌완 曺在煥이 마운드를 지키고있다。

지난해 鳳凰大旗서 두번째 준우승을차지했던 培材高는 당시 팀의 주축을 이루었던 강타자 李起昊·盧燦曄등이 그대로 남아 팀을 이끌고있다。

지난해 仁川高와의 격전에서 상대의 허를 찔러 연속5차례의 기습번트로 5-3의 승리를 거두었던 培材의 기동력과 과감한승부정신이 금년에도 큰 빛을 발휘할것으로 보인다。1m82의 우완 金兌源의 강속구도 믿을만하다。

팀부활 4년째의 서울高는 78년 鳳凰大旗를 제패、개교이래 처음 전국정상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으나 그이후 내리막길을 달렸다。

지난해 兪百萬감독이 부임、재정비에 나서 崔政燁·金鍾玖의 투수진과 趙泳鈺·李熒烈、柳相喆 鄭泰俊등 비교적 견실한 내야수비진을 구축해 놓았다。【方錫顯기자】

◇朴魯俊

◇金健友

◇李載弘

◇盧承玫

美프로야구 罷業종식

49日만에 선수·球團主協會합의

프리·에이전트 補償문제등 해결

10일부터 26개팀 정규리그再開

美國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파업은 31일 새벽 2시(이하 美國시간) 11시간의 마라톤회의끝에 이루어진 구단주와 선수협회의 합의에 따라 49일만에 극적으로 종식되었다。9일밤 클리블랜드구장에서는 지난 7월로 예정돼 있었던 81년시즌 올스타·게임이 벌어지며、10일부터는 26개 구단의 시즌 정규리그가 일제히 재개된다。각구단은 그동안 팀 정상가동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10일까지 메이저·리그는 58일간 총7백6게임이 중단되었다。

구단주협상대표 레이·그리비씨와 선수협회전무 마빈·밀러씨는 파업종식과 함께 다음 3개원칙에 합의했다。

첫째、분규의 쟁점이었던 프리·에이전트상문제의 해결을위해 선수풀제도를 채택한다。프리·에이전트와 계약한팀은 소속선수중 베스트24명을 다른팀의 스카우트로부터 보호할수있다。

둘째、양측의 기본협정 유효연한을 84년까지로 연장한다。

세째、선수들은 49일동안의 파업에 책임을 지고 봉사한다。1일현재 이밖의 상세한 합의내용은 밝혀지지않고있다。

시즌도중의 충격적 파업사태는 일찌기없던 일이었다。구단주와 선수들 모두가 파업으로인해 수입감소를 감수해야했으며、팬들은 야구없는 따분한 여름을 보내야했다。

31일의 극적인합의는 양측의 파업장기화에대한 초조감과 파업단축에대한 갈망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구단주들은 파업직전에 런던·로이드보험회사와 파업보상보험을 계약、1백53게임이 취소된후 보험금 지급조건이 이루어져 8월6일까지 게임당 10만달러의 보험금을 받게되었다。파업종식은 이보험유효시한을 6일 앞두고 이루어졌다。

일인당 연평균 20만달러의 수입을 올리던 선수들도 점차 알파해져가는 주머니에대해 불안을 느끼게됐다。

◆프리·에이전트=원래소속되었던 팀과의계약이 만료되어 다른팀과 계약、이적해가는 선수。이들중 스타들은 재계약시 1백만달러내외의 큰 돈을 받아왔다。구단주들은 이러한 우수선수를 잃게되는데 대한 보상을 요구、선수들은 자유계약에대한 압력이라고 반대해 이번 분규가 일어났다。

◇구단측 협상대표인 레이·그레비씨가 31일 49일간의 야구파업이 종식된후 표제에 플레이볼이라고 크게쓴 데일리·뉴스紙를 번쩍 치켜들고있다。【뉴욕31日UPI電送=聯合】

나브라틸로바 同性愛說

美프로농구 리버만양과

댈라스紙 공개

【댈라스(美텍사스州)31日UPI=聯合】동성애를 즐겨온 것으로 알려진 체코태생의 테니스스타 마르티나·나브라틸로바양이 최근 美여자프로농구계의 스타인 낸시·리버만양과 『뜨거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댈라스·모닝·뉴스지는 31일 나브라틸로바양과의 회견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두사람이 同居를 고려중에 있다고 보도했는데 나브라틸로바양은 최근 동성애주의자이자 작가인 리타·매·브라운과 헤어진후 댈라스·다이어먼드팀의 스타인 리버만양과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들어 여자테니스계의 최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나브라틸로바양은 댈라스지와의 회견에서 자신은 리버만양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기때문에 아직 그녀와의 동거를 결정한바 없다고 밝히면서 쌍방 모두 동성애주의자들의 동거에 대해서는 당연시하면서 한쪽만이 동성애주의자라는 이유로 그들 커플을 문제삼고있는 주위에 불만을 표시했다。

크리스천 敎授협의회

국제크리스천교수협의회(회장張童琳) 주최 81기독인교수 하계수련대회가 7~9일까지 雪嶽山 설악파크호텔에서 개최된다。「神·人間·自然—그상호관계성의 재조명」을 주제로 갖는 이번수련대회는 무더위를 피해 기독인교수들이 함께 사색하고 대화하고 친교하는 시간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미국 이민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 이민쿼터제
- 노동허가법
- 학생비자발급
- 그외의 문제등, 또한 지금 어떠한 종류등 이민수속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으신분

위와 같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화나 편지를 주시면 뉴욕에서 다년간 이민법에 종사하신 미국인 변호사 ROGER C. ALGASE(알게이즈 씨)께서 좋다 알기쉽고, 자세히 성의껏 답해 드립니다.
사무실엔 항상 한국인 보조원이 계시어 불편함이 도와드립니다.

연락번호 : (212) 762-5100
연락주소 136-31 ROOSEVELT AVE. Suite #2 FLUSHING, N. Y. 11354

광고는 좋은 뉴스입니다.

광고는 메이커로 하여금 소비자를 위해 경쟁하게 합니다.
광고는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나오도록 합니다.
새로운 상품의 경쟁은 기술혁신을 낳게 하고 생활의 질적향상을 가져옵니다.
민주복지사회는 곧 광고가 좋은 뉴스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사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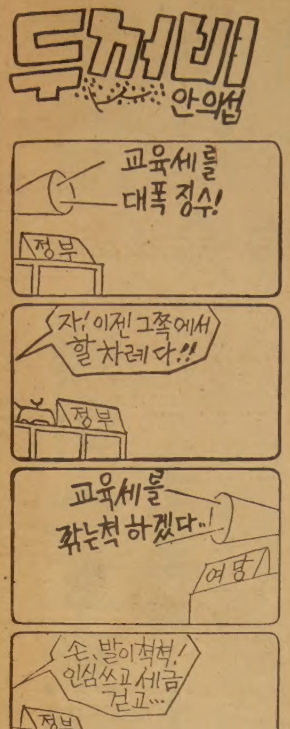
한국일보사
THE KOREA TIMES LTD

SALESMAN REQUIRED

TOP SALARY
ALL BENEFIT

DOMINION CITRUS & DRUGS
THE ONTARIO FOOD TERMINAL

CONTACT MR. JAY ZELIKOVITZ
TEL : 259-5481 ext. 17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企業弱點악용 갈취 강력搜査
自進신고業主 刑事처벌 안해
檢察 공갈犯엔 法定最高刑 구형

검찰은 1일 최근 기업의 경리부정이나 업주의 사생활 약점등을 악용한 갈취사건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기업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검찰은 피해사실을 자진고발하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약점이되고있는 탈세나 수회등 과거의 비위에대한 형사처벌은 되도록 불문에 붙이는 대신 탈세나 수회액만을 추징 또는 국고환수토록 조치하고 공갈범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이날 서울지검은 그 첫 조치로 지난 7일 회사의 탈세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 3천8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구속된 新和社(파일러트 만년필 메이커)전 전무 林昄圭(50)등 7명에대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토록 북부지청에 지시하는한편 자진고발한 新和社의 업주나 회사법인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徐壹敎 대법원判事 건강악화 辭表

徐壹敎대법원판사가 31일 건강상의 이유로 兪泰興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徐대법원판사는 지난 6월17일 미국·일본시찰을 마치고 귀국한후 지병이 악화돼 한때 高大부속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자택에서 요양하고있다. 사표는 곧 수리될것으로 보인다.

徐대법원판사는 47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대검검사, 법무부차관, 법제처장, 총무처장관을 지냈으며 77년2월부터 4년2개월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다가 지난4월18일 대법원판사로임명됐었다.

颱風 弱化된채 通過
麗水지방선 집 14棟·선박 26척 全破

【地方綜合=聯】폭풍우를동반한 제10호 태풍 오그던호는 남부지방을 통과했으나 釜山·光州·麗水등 일부지역에 약간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냈다.

釜山海雲臺해수욕장을 비롯한 남해일원의 모든 해수욕장이 일시 폐장됐으며 해상교통이 한때 마비되어 수많은 피서객들의 발이 묶이기도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가장 심한 全南지방은 1일 상오현재 寶城2백4·4㎜등 평균70㎜의 비가내려 일부농경지가 침수됐으며 피서객1명이 강풍에 절단된 전선을 밟아 감전사하고 가옥 3채와 선박2척이 전파됐다.

이 태풍으로 光州일원에 돌풍이불어 10~15년생 가로수가 쓰러지고 고층건물의 입간판이 떨어지는가하면 한때 정전까지되는 소동을 빚기도했다.

이밖에 濟州도일원은 태풍경보가 내려진 31일 해상및 항공 교통편이 모두 끊겨 2천여명의 관광객들이 발이묶였으며 漢拏山 등반객 3백50여명도 濟州도경의 하산지시에따라 모두 긴급 철수했다.

麗水지방은 1일 낮12시현재 태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늘어 가옥14동·선박26척이 전파되고 방조제1백10m·도로 7백m등이 유실된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高興·珍島·莞島·寶城지방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해안지방에서도 많은선박들이 피해를입었으며 順天·… 었으나 정확한 피해가 집계되지않고있다.

한편 31일 하오6시께 麗川郡三山面鎭竹里 廣島에서 1백50여m 떨어진 무인도인 속칭 금북도에서 신원을 알수없는 남자2명이 고립, 구조를 기다리다가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구조되지못하고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

◇태풍에 무너진 鐵筋받침대
光州市 北區 新安洞 시외전화국 공사현장의 철근받침대가 태풍으로 주저앉아 고압선과 가로수를 부수고 차도까지 뒤덮고있다. 【光州=聯】

係長등 3명 더拘束
釜山鎭 급행료사건

【釜山=聯】속보=일선구청공무원들의 급행료 상납사건을 수사중인 釜山지검 특수부는 1일 해운대구청 건축계장 金炯鎬씨(30)·부산진구청 건축기사 徐炅男(30)·북구청 건축기사 李東燮(30)등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추가구속했다.

구멍가게 主人들에 "슈퍼체인 내준다"
會社代表구속 幹部2명수배
契約金2億 가로채

서울北部경찰서는 1일 구멍가게주인들에게 슈퍼체인을 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2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슈퍼마키트」진흥주식회사 대표 文萬중씨(47·서울道峰區雙門洞121의30)를 사기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회사 상무 朴연수씨(33)·영업부장 張경한(28)등 2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1월20일부터 「슈퍼마키트」진흥을 설립, 운영해오면서 서울鍾路區新門路1街182에서 구멍가게를하는 李鍾勳씨(37)등 전국 8백75개 구멍가게 주인들을 속여왔다는 것이다.

무허가下宿서 60代노파 被殺

1일 상오11시께 서울中區南大門路5街394 李勝勳씨(30·노동)의 무허가 3층방에서 廉貞禮씨(63·여)가 벽돌로 머리를 맞아 숨져있는 것을 梁在國씨(63·빌딩관리인·中區會賢洞194의55)가 발견했다.

梁씨에의하면 廉씨는 지난29일 南大門路5街에있는 여관에서 지내다 무허가하숙집으로 이사했는데 이사비1천원을 받으러 廉씨방에 올라가보니 머리세군데를 빨간벽돌로 찍혀 숨져있었다는것.

너무더워 길가서 잠자다
트럭에 一家4명 死傷

【堤川=聯】찌는더위를피해 길가에서 잠자던 일가족 3명이 트럭에 치여 숨졌다.

1일새벽0시50분께 충북단양군大崗面舍人岩里26 앞길에서 더위를피해 아스팔트길위에서 잠자던 이마을 安明植씨(63)와 부인 李明子씨(60) 막내딸 영기양(25) 손녀딸 安광미양(11)등 일가족4명이 과속으로 달리던 충북7가5314호 1·5톤 타이탄트럭(운전사 李相植·24)에 치여 부인李씨를 제외한 3명이 모두 그자리에서 숨졌다. 부인 李씨도 堤川시내 병원에 입원가료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

安씨가족은 이날 집안에서 잠을자다가 날이 하도더워 길가로나와 돗자리를 펴놓고 다시 잠을 청하다 변을 당했다.

이날 사고는 트럭이 사고지점앞 5m의 커브길을 빠져나와 이들 가족들을 미처 보지못해 일어났는데 경찰은 운전사 李씨를 업무상중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했다.

空軍후보생 任官式

공군76기 사관후보생○○○명의 임관식이 1일상오10시 공군2695부대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임관식에서 朴柱漢소위(사진·23·漢陽大졸)가 국방부장관상을, 劉鍾陳소위(25·延大졸)가 참모총장상을받았다.

獨立운동 有功 成益煥씨 別世

독립유공자 成益煥씨가 1일상오1시15분 서울江南區論峴洞15의8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56세.

유족으로는 미망인 兪敏淑여사와 1남1녀가있다.

발인3일 상오10시 장지 경기廣州郡五浦面 한남공원묘원 ☎0063.

만삭주부, 雪嶽山등반하다 비룡폭포계곡서 女兒순산

표주박

○…분만예정일이 된 만삭의 주부가 무거운 몸을 무릅쓰고 雪嶽山 관광에 나섰다가 등산길에서 여아를 분만했다.

31일 상오7시30분께 雪嶽山 비룡폭포 다리밑 계곡가에서 산을오르던 李信씨(34·전남順天市佳谷洞765)가 여아를 순산했다.

만삭인 李씨는 지난30일 이웃주민 40여명과 함께 관광차편으로 雪嶽洞에 도착, 이날 아침 비룡폭포를 보러 올라가기위해 다리를 건너는 순간 진통이 시작되었던 것.

○…李씨는 진통이 시작되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분만장소를 찾느라고 허겁지겁 계곡아래로 내려가 마땅한 곳이 없자 다리밑 계곡을 택해 아기를 낳은 것.

이번엔 李承晩박사의 太極旗
僑胞가 뉴욕아스토리아호텔所藏한것발견
獨立운동시절 使用하던것 光復의달맞아 돌아와
1942년 韓國獨立만찬회때 壇上에걸어
데니의「最古태극기」와 흡사

李承晩박사가 미국에 망명,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용했던 태극기가 뉴욕의 한호텔에서 우연한 기회에 재미동포에 의해 발견됐다. 광복의달 8월을 맞아 50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태극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것으로 작년 역시 미국 포틀랜드에서 발견된 최고(最古)의 태극기(81년1월5일자 한국일보 7면보도)와 제작연도의 차이는 있으나 괘(卦)의 위치가 약간다를뿐 모양이나 제작방법이 매우비슷하다.

이태극기를 감정한 檀國大 金源模교수(사학)는『高宗의 하사품인 데니의 태극기와 너무 닮았다』고 말하고 태극기원형의 괘가 청색이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고 평가했다.

가로 1m43㎝, 세로 84㎝의 두꺼운 광목천위에 다시 홍·청색의 천으로 태극양의(太極兩儀)와 4괘를 정교하게 재봉질해 붙인것이 데니의 태극기와 흡사한데 데니의 태극기가 홑으로 재봉된것에비해 겹으로 재봉질된게 특이하다.

또 이태극기의 귀퉁이에 제작회사마크 코플랜드·컴퍼니가 영문으로 뚜렷이 표기되어있다.

이 태극기가 발견된것은 정말 우연한 기회였다.

지난해 9월30일 뉴욕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주최한 월돌포·아스토리아 호텔에서 「미공화당 대통령후보 레이건을 위한 만찬파티」에서의 일. 이 자리에는 레이건을 지지하는 韓·中·日·比계 교포 5백명이 모였는데 호텔측은 참석한 사람들의 국적에따라 호텔전통대로 4개국 국기를 파티장에 내걸었다. 당시 이 모임을 주선했던 재미교포 金東準씨(47)가 단상에 걸린 태극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태극기의 모양이 현재의 것과 판이했기 때문.

金씨는 이튿날 아스토리아 호텔로 찾아가 이 태극기에 관한 내력을 물어봤다.

호텔측에서는 옛날부터 소장되어왔고 한국관계모임에 몇번 내걸린적이있다고 대답했다. 월돌프·아스토리아호텔은 1931년에 개업, 각종 국제회의는 물론 각국의 거물급정객이 숙박하는 세계최고급호텔로 세계각국의 국기를 가장많이 수집해 놓고 있어 가끔 유엔에서조차 각국국기를 빌리러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

金씨는 태극기의 음양모양이 옛것인 이 태극기를 아스토리아호텔에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있는데 대해 흥미를 갖고 호텔측에『이 태극기가 옛날 것이고 현재는 쓰지 않으니 나에게 줄 수 없느냐』고 제의하자 꼭같은 크기로 만들어 오면 내줄 수 있다는 대답을 얻었다.

金씨는 이 국기를 만든 뉴욕의 포틀랜드·컴파니로 찾아가 사장 크리스찬센씨에게 태극기를 보여줬다. 크리스찬센씨는 회사마크를 보며 1930년대 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으나 당시 누가 주문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는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럴즈음 미국 포틀랜드에서 최고(最古)의 태극기가 발견됐다는 신문보도를 읽은 金씨는 이 데니의 태극기가 아스토리아호텔에 걸렸던 태극기와 아주 흡사한데 더욱 흥미를 느끼고 옛 망명애국자들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갖게됐다.

金씨는 이번에 공무로 한국에 오면서 이 태극기를 갖고 와 원로외교관이며 해방전 미국에서 李承晩박사를도우며 활동했던 韓豹頊전駐英대사에게 찾아가 이 태극기를 내보였다. 韓대사는『어디서 난 것이냐』고 묻었고 金씨는 발견경위를 설명해주었다. 韓대사는 자신이 1942년 李박사를 수행하고있을 때 월돌프·아스토리아호텔에서 이 태극기가 걸린 것을 보았으며 李박사가 호텔에 기증한것이 분명하다고 증언했다.

韓대사에 의하면 1942년 가을 李박사가 월돌프·아스토리아호텔에서「한국독립만찬파티」를 개최할때 단상에 이 태극기를 성조기와 나란히 걸었고 파티가 끝난뒤 호텔에 맡겼다는것. 이 파티에는 2백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는데 현재 필리핀의 로물로외상(당시맥아더 사령관보좌관)과 뉴욕시장 라구아디아도 파티에 참가했다고 韓대사는 기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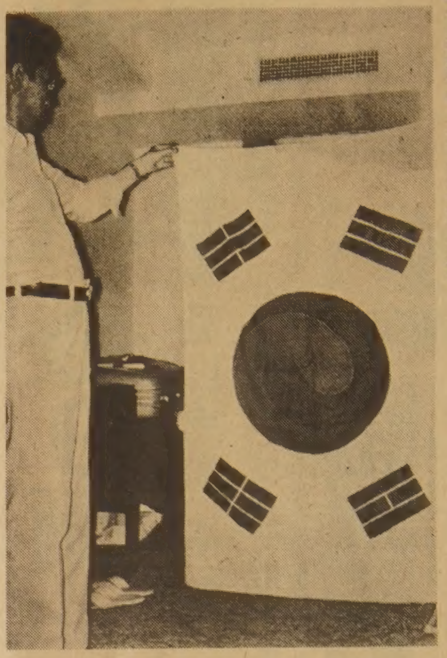
韓대사는 또 1944년에 미 우정국에서 피압박민족을 위한 우표를 시리즈로 발행하고 있을 때 태극기를 도안한 우표가 나와 현재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태극기의 발견은 태극기의 원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료가 될것이 틀림없다. 1882년 처음으로 태극기를 사용한 朴泳孝의「使和記略」에는「太極을 主心에 그리되, 靑·紅색으로 하고 네귀에 四卦를 그렸다」고 적혀있다. 1949년 문교부가 태극기를 제정할당시 검은색으로 그려 지금 까지 사용해오고 있는데 괘의 색깔을 놓고 어떤것이 맞는지 한때 논란이 있다가 데니의 태극기가 발견됨으로써 원형태극기의 괘는 청색이라는주장이 타당성을 얻게됐다. 이번에 돌아온 아스토리아호텔 태극기도 청색괘한것을 뒷받침하고 있어 주목되고있다.

金源模교수는 1880년대에만든 데니의 태극기, 朴淳燮씨(46)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소장하고있는 1900년대초에 제작한 태극기와 이번에 발견된 태극기가 상당한 시차를두고 있으면서도 제작방법과 괘의 색깔등이 너무나 흡사하다고 말했다.

金교수는『太極兩儀가 아름다운 곡선을이루면서 서로 휘어감긴것은 곡선미의 극치』라고 이태극기를 평가하면서『현재의 태극기를 청색괘와 곡선미를살린 생동감있는 국기로 개정해야한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태극기를 찾아낸 金씨는『이 태극기가 독립운동때 李박사가 사용한것을 알게돼 흥분을 금할수없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金昔宗기자】



◇獨立운동 함께했던 太極旗 李承晩박사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용했던 태극기. 데니의 태극기와 모양이나 제작방법이 너무나 흡사하다. 왼쪽은 이 태극기를 발견, 귀국할때 갖고온 재미동포 金東準씨.

◇태극기를 보관한 아스토리아호텔 각국의 국가원수등 거물들이 투숙하는 뉴욕의 월도프·아스토리아호텔. 31년 개업한 이호텔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기를 수집해 놓고있다.

한국일보 詩壇

무지개 따라
朴利道

잠깐, 소나기 지나고
나와 바다 사이에
솟은 무지개
내 꿈이 실린 木船이 있어
幼年의 言語들이
고기비늘처럼 반짝인다
떼지어 날으는 갈매기
뭉게피는 구름 사이로
헤집고 나아가는 木船이
갈망속에 닻을 내릴 때
아, 일제히 날으는
날개들이여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한 국 관
냉면·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 문
대소 200석 완비
OPEN :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TORONTO
536-0290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SHANGHAI RESTAURANT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각종 한약재 도매
보약조제및 상담
● 우황청심환 ● 우황 ● 사향 ● 용담
● 녹용 ● 정주사 ● 해구편
중국의사의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시간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偉信公司 KINGS IMPORTS
428 DUNDAS ST. W. TOR.
☎ : (416) 977-9818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지렁이 잡이구함(유경험자에 한함)
최고가격 1000마리당 30달러
☎ : 255-0730

좋은 농장, 좋은 골프장
최고대우 1000마리당 25-30달러
☎ : 532-3637 미스타 계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8~$25
☎ : 531-0474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입주하셔서 애들(2명) 봐주실분
가게 : 1-723-8632(오후5시까지)
집 : 1-571-0725(오후5시이후)
(콜렉·컬로 전화하십시요) MRS. 홍

룸·메이트 구함 : 여성에 한함
베더스트×듀폰
☎ : 531-5200 미스. 유(오후6시이후 연락)

급 구
주방헬퍼구함 628 BLOOR ST. W.
☎ : 536-0290
한 국 관

PHOTO SHOP에서 일하실 풀타임 구함
REXDALE지역
☎ : 486-6455

캐네디언 식당에서 일하실 용모단정한
미혼여성 웨이트레스 구합니다.
☎ : 362-3170 미스타 또는 미세스 리

일본식당 부엌에서 일하실분 구함
(오후3시~5시 사이)
☎ : 924-7501 459 CHURCH ST.
MICHI JAPANESE RESTAURANT

스토아 헬퍼 구함
● 경험있는 스토아 캐쉬어 구함
● 과일및 뒷일 해주실 분으로
VAN트럭이나 대형 왜건 가지신분 구함.
월수입 $1500.
☎ : 624-5817

급 구
20세에서 35세, 영어하실 수 있는
웨이트레스 구함
☎ : 224-1060, 221-1507

재봉사 약간명 모집
보통 공장에서 하는 일들이며, 또한 재단실에서
헬퍼하실분도 구합니다.
연락처 : 952 QUEEN ST. W. (오싱톤×퀸)

버라이어티 스토아에서 일할
경험있는 남자 헬퍼 구함
☎ : 532-6160

매매및 양도

타운하우스 매매 : 4 베드룸, 가격 : ₩62,500,
(DON MILLS × FINCH)
☎ : 491-3825, 27 SLENDER FERNWAY

카페테리아 급매 :
5일 오픈
☎ : 532 : 5966(오후3시이후 전화바람) 미스타. 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 233-2576

GIFT & VARIETY STORE
연평균 주매상 $5000이상, 주 $300~$400
+EXTRA인컴.
3200 ERINMILLS PARKWAY, 미시사가
(MILLWAY SHOPPING CENTRE, 1 BLOCK N.
OF DUNDAS)

콘도미니엄 매매
2 베드룸+큰 리빙룸및 부엌 $57,000(협의가능)
냉장고, 스토브, 디쉬워셔.
HWY 427×RATHBURN 오후6시이후
☎ : 622-7162 미스타 리

아파트단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4000, 리스 5년
☎ : 921-0034, 783-6464(오전10시~오후6시)

<매 매>
"가정 형편상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528 더프린 스트리트<자세한 것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 : 531-4165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가게급매 : 주매상 $4000~$4500보장, 렌트 월 $600
(1 베드룸 포함), 리스2년+4년 옵션, 가장 적당한 오퍼
자에게 양도코자 함. ☎ : 531-1067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격 $59,900, 주매상 $5,600, 렌트 $1,100
리스4년+5년 옵션가능함 ☎ : 1-579-4507(WHITBY)

벡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로타리오
☎ : 783-1984

성업중인 가게급매 : 주매상 $5000, 리스5년+5년
옵션, 렌트 $400, 가격 $27000+스탁
☎ : 766-1990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브람리 하드웨어 비즈네스 매매
크기 : 1800sq. ft. 리스 : 긴 기간 다운페이먼트 :
$10,000, 장소 : 우수함.
주위에 경쟁할 가게 없고 새집들이 매일
들어서는 지역
연락처 : 630-5353 FRANK PERRONE
BELSTAR REALITY LTD.

성업중인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하드웨어 비즈네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는 절호의 기회임, 좋은 장소
좋은 장래성, 좋은 가격임.
전화 : 741-4520
CALL JOE

드라이빙 레스트랑 매매
새로 시작한 비즈네스이며 앞으로 발전성 있음.
가족 비즈네스 혹은 파트너 둘이 할 수 있음.
아스킹 : $185,000 IHOR DZIADYK
☎ : 763-5555
R. CHOLKAN CO. LTD. REALTOR

좋은 가격의 하우스 세일
개인세일 : 넓은 현대식 가옥, THORNHILL
에 있는 2층집 방 네개 OAK으로 만든 용수철
식의 계단, WALK OUT베이스먼트, 화장실
4개, 벽난로 2개, 센트럴 에어콘디쇼닝,
현대식 조명장치및 등등 실지로 와서
보세요. 오픈하우스 오늘합니다.
☎ : 881-8436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뜸**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꽃 집

<제인·파크 꽃집>
*각종 꽃종류, 조화, Plants취급. *꽃꽂이,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어디든지 배달가능합니다.
☎ : 769-0609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미 용

스 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B) 661-5667, (R) 742-9450 MR. 김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쵀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악 기 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8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 현CA Office
근무중 ● Book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8-5655 531-5440 이 황 영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김용환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병원,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코스를 택하고 싶으신분
시간당 $7, 일주일 코스
☎ : 961-1057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Can Am Coin Investments Ltd. - 25년간 경력 -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사무실 렌트

가게렌트 : 부촌안에 있는 프라자 BURN KING,
BAKERY DELICATESSEN 또는 COIN LAUNDRY
좋은 장소임 1600~2600 sq. ft. (싼렌트)
531 WEDGEWOOD DR. BURLINGTON
☎ : 844-3151, 844-0121

세놓음 : 2 베드룸 베이스멘트
WARDEN×LAWRENCE
☎ : 751-9286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여보, 잠깐만!" "이 접시가 더럽잖소!" "이포크도 그렇고!" "둘중 하나만 더럽게 놔 둘순없지요, 한 세트니까요"

싸다고 소문 난 가 나 안
카텐
2390 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All Languages Service
"Helping People to Communicate"
ALS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in over 70 Languages
French for the Quebec Market
Suite 1105, 67 Yonge St., Toronto, Ont. M5E 1J8 361-0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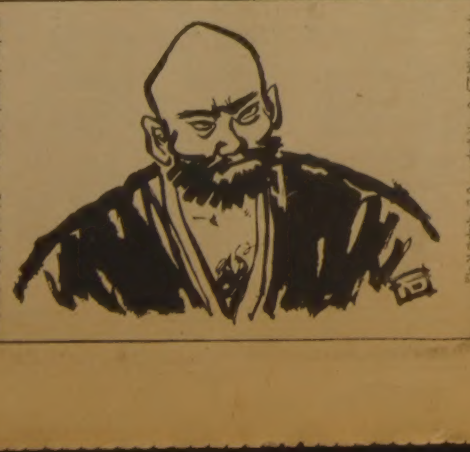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Tor.

張吉山 (1622)

黃晳暎 作
崔然石 畫

第四部 逆謀
第一章 [illegible] (82)



설유징이 붓을 놓고 허리를 펴고 앉으면서 말하였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저마다 다른 길을 걷고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읍니다. 산간과 평야에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백성들이 수없이 많소. 작은 개천이 모여서 대하를 이루듯이 이러한 갈래들을 한곬으로 합쳐야 할것입니다. 한양을 도모하는 일은 그리 쉬지않은 일이지요. 지방에서 변을 일으켜 감영을 점령한 뒤에 난민을 모아 세를 불려 가면서 상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정의 예에 따라서 사병(私兵)을 동원하고 사대부들과 결탁하여 궁을 직접 들이치는 수가 있소』
박대근이 말하였다.
『한양은 금위영, 훈련도감, 어영청등의 이른바 삼군문(三軍門)이 지키는데 특히 금위영은 오번 전에 설치되었을 겁니다. 사부(四部)로 나뉘어 윤번제로 지키니 대개 천이백칠십여명이 궁과 성문을 지키는 셈이오. 각 지방에서 역을진 군병이 올라와 한달씩 근무를 합니다. 특히 농번기인 넉달동안은 수를 절반으로 줄여서 번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삼사월과 팔구월에는 군사의 수가 육백여명에 불과한셈이지요. 기껏해야 천여명이 되지못하고, 명목상의 숫자만 나와있을뿐, 입번 때에 어느 부장은 수하병사를 구하지못하여 사흘동안이나 출발하지 못하였다가 단신으로 남하했을 정도로 군역이 실세로 쓰여지지않는 실정이오. 지난봄에 마포 경강에 나가있는 송방에서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훼파진(毁破陣)이라는 화포를 쏘는 별대가 생겼답니다. 모두 백팔십여명인데 당포술을 익히고 열두 부대로 나뉘었다고합니다』
설유징이 말하였다.
『군사의 배치와 주변 향군의 병력도 자세히 알아두어야 할게요. 아무래도 한양에 인접한 중요한 주지방이 있으니 해서와 강원도일 것이오. 공홍도(公洪道)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경상 수로와 남한산성을 굳게 지킨다면 삼남의 군사는 자연히 기회를 잃고 군사를 움길 것이오』
풍엔대사가 중얼거렸다.
『군소는 바로 한양의 궁궐이지. 마바로 궁궐을 치고나서 해서와 강원도에서 거병하여 지방군의 진격로를 끊고, 미리 내기하였던 민병이 남한산성과 강화를 점령해야하오』
여태껏 잠자코 있던 대신범주가 말하였다.
『우리 강원도쪽에서는 철원으로 하여 영평과 가평을 점령하여 동북로를 끊을수 있읍니다. 승병 오배이면 충분하지요』
『우리는 강화를 맡겠읍니다. 성을 점령한 뒤에 수군 진의 함선을 모두 불태워 버리겠소』
우대용이 말하였다. 김기가 그들의 논의를 막았다.
『밥을 짓는데도 준비와 그 역할의 분임이 있는 법이오. 쌀을 씻고 불을 맞추고 불을 때고 뜸기를 기다리며 익은 뒤에는 뜸을 들여야 하지요. 우리가 이미 한양을 도모하기로 하였다면, 기순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쌀 때는 역을 맡아야 하며, 황해도와 강원도에서 쌀을 씻거나 불 맞추는 일을 해야하며, 도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뜸 들이는 역을 해내어야 합니다. 이미 김제와 삼주계의 결당이 이루어져 있고, 일 어찌하느냐에 따라서 한양주위 수십리 지간에서 당은 혈당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오. 내 생각으로는 한양 도모는 단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요』

CENTRAL AUTO -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김창세

제1회 전카나다 한국인 체육대회

친애하는 카나다에 거주하시는 한국인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대한체육회 카나다 지부에서는 전 한국인동포의 체위향상과, 한인간의 친목증진과, 한민족의 융화단결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2세 들의 체육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족적인 체전을 개최함에 있어 카나다에 거주하시는 개인이나 어떤종류의 단체를 막론하고 적극참여하시어 대회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1981년 5월15일

재 카나다 대한체육회 회장 이 병 권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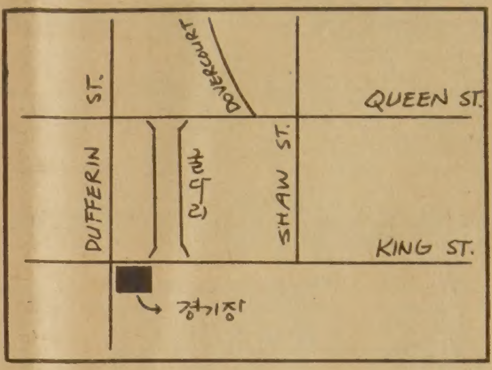
(1) 일 시 : 1981년 8월15일(토) 오전9시
(2) 장 소 : LAMPORT스타디움. 1151 킹 · 스트릿 · 웨스트. 토론토 M6K 1E3
(416) 537－3441
(3) 참가자격 : ① 카나다에 거주하시는 한국인 동포.
② 한국인으로 구성된 단체(교회 · 동창회 · 한글학교 · 전우회 · YMCA · 실협 · 신용조합 · 동우회 · 각종친목회 · 각종친목회 · 카나다주재 한국인상사 · 각종협회 등)
(4) 참가신청 접수처 : ① 1565 제인 · 스트릿 248－8846 이 병 권
② 631A 블루어 스트릿 535－6004 서울여행사 내
③ 454 블루어 스트릿 536－1692 미도파선물센타 내
(5) 신청마감 : 1981년 7월31일 오후5시까지
(6) 구비서류 : ① 참가신청서 1통
② 종목별 선수명단
③ 선수들의 연령 확인서(단체장명의). (각종신청서 용지는 상기주소로 연락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지방단체는 우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주] 이번 행사의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절대필요합니다. 신청마감 이후에는 등록을 받을 수가 없읍니다. 프로그램과 체육대회 진행 책자 인쇄와 운동장시설문제 때문입니다. 마감일을 특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 최 : 재 카나다 대한체육회
후 원 : 주카나다 한국대사관 · 토론토 총영사관 · 몬트리얼 총영사관 · 한인연합회 · 토론토 한인회 · 토론토 노년회 · 한인 노년회 · 한국일보 토론토지사 · 코리언저널사 · 민중신신문사 · 한인실업인협회 · 동우회 · 한인무역인협회 · 한인장학회 · 한인신용조합 · 한인무역협회 · 블루어번영회 · 외환은행 · 한일은행 · KOTRA · 대한항공
협 찬 : 김용순무용연구소 · 한인교향악단 · 호산나합창단 · 카나다태권도협회 · 한국참전용사회

우리 모두 참여하여 교민 단결 과시하자

운동장내 광고판과 프로그램 광고란을 사용 하실분



연 락 처 :

248－8846(이병권)
884－5573(강준남)
533－2361－4(한국일보)

사무실 : 537－0745
533－8421
635A BLOOR ST. W

체육대회 운영요강

(1) 유치부경기(주니어및 시니어. 유치원과 1학년까지)

〈경기종목〉
(A) 과자따먹기
(B) 엄마찾아 달리기
(C) 세발자전거 리레이

〈선수자격〉
① 유치원과 1학년까지
② 만4세～만7세 미만의 남녀어린이(8월15일 기준)
③ 나이와 학년이 문제가 될때에는 학년을 기준으로 함

〈팀 구성방법〉
① 한 팀은 10명으로 구성 함
② 여자선수는 최소 3명
③ 1학년 학생은 4명을 초과 할 수 없음
④ 선수가 충분한 단체에서는 종목별로 선수를 교체할 수 있음
단 위의 ① ② ③ 항의 조건을 지킬것.

〈경기방법〉
① 경기종목 A, B, C 모두 리레이 식으로 팀 대항전 임
② 참가팀이 6개팀이상이면 예선전을 가짐
③ 세발자전거는 본부측에서 준비함

(2) 유년부경기(2～6학년까지)

〈경기종목〉
(A) 80m 경주
(B) 콩주머니 바구니에 넣기
(C) 줄 다리기

〈선수자격〉
① 2학년～6학년의 남녀 어린이
② 만8세～만12세까지(8월15일 기준)

〈팀 구성방법〉
① 각 팀 10명으로 구성함
② 각 학년 2명씩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저학년 학생이 고학년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여자선수는 최소 3명

〈경기방법〉
① 경기 A는 개인 순위의 종합으로 팀순위를 결정함
② 경기 B와 C는 출전팀 전체를 종합하여 2내지 4개 팀으로 재편성하여 경기할 예정임. 그러나 팀별 성적이나 종합성적에는 각기 자기 점수를 갖고 감
③ 경기 A의 채점방법(이하 다른종목도 이와 흡사함) 각팀선수가 10명이므로 10번을 달리게 되는데
〈예〉 1위＝10점, 2위＝9점, 3위＝8점… 등으로

(3) 중 · 고등부 경기(7～13학년까지)

〈경기종목〉
(A) 기마전
(B) 장대 쓸어뜨리기
(C) 100m 달리기

〈선수자격〉
① 7학년～13학년까지
② 만13세～만18세까지의 남녀학생(8월15일기준)

〈팀 구성방법〉
① 7, 8, 9학년……………………5명 } 합10명으로 구성
② 10, 11, 12, 13학년 ………5명 }
④ 여학생은 최소3명

〈경기방법〉
① 경기 A와 B는 전체팀을 종합하여(팀별로) 2내지 4개팀으로 재편성하여 경기할 예정임. 그러나 승, 패의 점수는 각기 자기팀으로 갖고 감
② 경기 C는 개인순위의 종합으로 팀순위를 결정함. 채점방법은 (2)의 ③과 동일함
③ 경기방법의 세칙은 대표자 회의때 발표함.

(4) 일반을 위한 경기

〈경기종목〉
(A) 줄다리기
(B) 자전거 리레이
(C) 다리묶고 달리기

〈팀 구성방법〉
① 종목별 각 팀은 10명으로 구성
② 남 · 녀 공히 5명씩으로 구성해야 함.

〈선수자격〉
① 남 · 녀 연령제한없음(단 타종목에 출전했던 자는 참가 할 수 없음. 마라톤은 제외)

〈경기방법〉
① 경기 A는 전체출전팀을 합하여(팀별로) 2～4개팀으로 재편성하여 경기할 예정임(채점방법은 전과동.)
② 경기 B와 C는 개인순위의 종합으로 팀순위 결정함
③ 경기 B의 자전거는 본부측에서 준비함.
④ 경기 B와 C에 출전하는 팀이 6팀이 넘을 때에는 예선전을 가질예정임.

(5) 노년을 위한 경기

〈경기종목〉
(A) 눈가리고 북치고 오기
(B) 국자로 공 나르기
(C) 바늘귀 꿰고 달리기

〈선수자격〉
①55세 이상의 할머니 · 할아버지(8월15일 기준)

〈팀 구성방법〉
① 종목별 팀의 구성은 10명으로 함.
② 남 · 녀 공히 5 : 5의 비율로 구성해야 하지만 불가피 할 경우 7 : 3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

〈경기방법〉
① 경기 A, B, C 모두 리레이식 팀 대항전 임
② 개인 순위의 종합으로 팀 순위를 결정함.

(6) 축구경기

① 축구협회와 토론토한인회가 공동주최하는 8 · 15경축 도시대항 축구경기 최종 결승전을 유치할 계획임.
② 카나다 서부지역 대표팀(뱅쿠버 · 캘거리 · 에드몬톤) 대 동부지역 대표팀(몬트리얼 · 토론토 · 런던)의 도시대항 전 축구경기
(주) 경기①은 축구협회 · 토론토한인회 주관의 경기이고, 경기②는 본 체육대회 공식 경기임.
(주) 이 경기에서 모국체전에 파견되는 축구선수(토론토를 제외한 타 도시) 최종선발이 있겠음.

(7) 마라톤경기

〈경기종목〉
제1회에 한하여 스타디움안에서 경기할 예정임(8 · 15일 전으로 마라톤 코스가 허락되면(시 교통국에서) 코스 마라톤을 거행할 예정임)
〈규격〉 10,000m 트랙경기(미니 마라톤) 운동장 트랙 약 20바퀴
〈선수자격〉 ① 제한없음 ② 타 종목과 중복 할 수 있음.

채점방법

(1) 종목별 순위결정
①모든 경기는(마라톤 제외) 팀 대항 단체전이며 개인순위의 종합으로 팀순위가 결정된다.
[예] 한 팀에서 10명이 출전하여 해당 경기에서 개인별 순위가
1위 : 5점, 2위 : 4점, 3위 : 3점 식으로 계산하여
A팀이 100m 경기에 10명 출전하여
[예] 1위 입상 2명……10점 }
3위 입상 3명……9 점 } 19점 식으로 팀의 입상 순위가 결정됨

(2) 종합순위의 결정
① 어느 단체이건 해당종목에 참전하면 10점 취득
② 종목별 경기에서
우 승 하면………50점   4 위 하면………20점
준우승 〃 ………40〃   5 위 〃 ………10〃
3 위 〃 ………30〃   씩을 취득한다.
③ 마라톤경기에서(단체이름으로 출전했을 경우)
1 위＝45점   3 위＝35점   5 위＝25점   7 위＝15점   9 위＝5 점
2 〃 ＝40〃   4 〃 ＝30〃   6 〃 ＝20〃   8 〃 ＝10〃   10〃 ＝2 〃 취득한다.
[특전] ① 이 대회에서 우승한 자가 차기체전의 성화주자로 뽑힌다.
② 이 대회의 상위입상자들이 다음해 모국체전 마라톤경기에 출전권을 갖는다.
이상의 점수들을 종합하여 종합(단체)순위를 결정한다.

시상방법

(1)종목별시상
각종목에서 1 위……우 승 트로피와 각선수에게 우승메달
2 〃 ……준우승 트로피와 〃 부 상
3 〃 ……3 위 트로피와 〃 부 상
4 위에서～10위까지는 출전선수에게 참가상

(2) 마라톤시상
1 위……트로피와 상금   3 위……트로피와 상금
2 〃 …… 〃 상금   4 위～10위까지 메달과 상품

(3) 종합시상
종 합 1 위＝우승기 · 우승트로피 · 상금($300예정)
2 〃 ＝준우승 트로피 · 상금($200예정)
3 〃 ＝3 위 트로피 · 상금($100예정)
4 〃 ＝트로피
5 〃 ＝트로피

[추 서]
1. 본 대회의 어느종목을 막론하고 출전비는 없음.
2. 축구경기를 제외한 모든경기에서는 특별한 유니폼은 필요치 않으나
(A) 가급적이면 흰색 하의(긴바지)에 팀을 표시하는 상의로 통일 하시기 바람.
※백의 민족을 상징
(B) 선수는 누구를 막론하고 운동화를 착용해야 함.
3. 본대회의 상세한 경기진행 세칙은 대표자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임.